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16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90 호

"배고플 때 밥 한끼, 괴로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다 더 큰 보시가 없어요."

대구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서 '밥못 신토불이 곰탕집'을 운영하는 추이자 보살(44)은 돈만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밥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장사를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7~9시에 식당에서 친정 아버지를 비롯 독거노인과 실직자(성서공단 체육공단 홈리스) 15명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게 곰탕을 100원만 받고 팔아왔다. 무의탁노인들과 실직자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식대 받는 단지를 마련, 100원 또는 200원을 모으고 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가족처럼 모여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추 보살의 다정한 웃음과 대화가 이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을 주는 큰 보시다. 이제는 그들도 추 보살의 '나눌 줄 아는 마음'을 매일 지켜보면서 스스로 변화되었다. 식당의 담배꽁초 하나라도 줍고 자신



「배원짜리 곰탕」

들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됐다.

최근 추보살은 그들이 정성껏 모은 10만8천3백80원의 동전을 소적새마을 후원금으로 온라인 입금시켰다. "감사의 마음으로 모인 피같은 이 돈을 차마 딴 곳에 쓸 수 없어 매달 후원금으로 회향키로 했다"는 것이다.

추 보살이 식당을 시작한 것은 13년전. 7남매의 장녀로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며 어렵게 식당을 운영했지만 한시도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 배고픈 이웃들에게 밥을 주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겐 반찬을 만들어 줬다.

오는 28일에는 어렵게 마련한 3층짜리 식당 건물을 개조해 '연지사'란 절도 창건할 예정이다. 돈이 없어도 그녀를 아는 단청공들이 '불사가 잘된 후에 갚으라'며 무료로 건물을 장엄하고 있다. 조만간 스님도 모셔오고 해인사에 포교당을 기증할 계획이다.

"불사가 끝나면 절에서 떡을 지어 교도소와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살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남은 욕심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각국 불교대학 네트워크 연결

세계불교대학 설립

WFB, 2000년 태국 방콕에…10월말 호주총회서 안건상정

세계 각국의 불교대학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세계불교대학(World Buddhist University·WBU)이 오는 2000년 태국 방콕에 설립된다.

태국정부 교육부와 유네스코(UNESCO) 공동 주최로 8월26~30일 방콕에서 열린 '국제불교세미나'에 참석한 아시아 13개국 불교대표자들은 세계불교도우의회(WBF)가 제의한 세계불교대학 설립에 의견을 같이 하고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태국정부가 후원하고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창립 50주년(2000년 5월) 기념사업으로 주관하게 될 세계불교대학은 인도 나란다대학의 학통 계승과 불교 철학·문화·포교 및 불교도의 평생교육 문제 등에 대한 연구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세계불교대학의 설립을 통해 대승부·상좌부 등으로 나뉘어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리와 불교의식 등의 벽을 허물고, 불교의 세계적 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국제불교세미나에 참석한 동국대 김용표 교수(불교학부)는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의 필요성과 불교국가들 사이에 남아있는 앙금을 치유하자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세계불교대학 설립계획과 관련해 태국정부는 방콕 '붓다센터(Buddha Manthorn)'에 대학 본부 설립에 착수하고, 10월29일~11월2일 호주에서 열리는 WFB 제20차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이번 세계불교대학 설립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WFB 한국지부와 함께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um@buddhapia.com)



전국비구니회관 기공 2001년 개관될 전국비구니회관 기공식법회가 10일 강남구 수서동 신축현장에서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원로 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등과 송석구 동국대총장 이인제 前 국민신당 상임고문, 함종한의원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11월12일'

종회, 선거법 개정…종회의원은 10월29일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11월12일 실시 된다. 또 중앙종회의원 각교구 직선의원 선거는 10월29일, 직능직 선출은 26일에 각각 치러진다.

7일 개회된 조계종 제133회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 선거법, 교구종회법 등을 통과 시킴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두 선거의 일정이 정해졌다.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은 선거일을 현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1월20일로 끝나는 현총무원장의 임기로부터 15일전 첫 목요일인 11월 12일이 선거일로 정해진 것. 개정된 중앙종회의원선거법도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규정해 11대종회 임기가 끝나는 11월 8일로부터 기산해 10월29일이 선거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중앙종회는 9일 오후에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이로써 11대종회는 10번의 유회사태를 낳았다. 중앙종회는 9일 유회 직후 종회의원 30여명이 제134회 임시종회 소집 요구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17일 임시종회를 재소집 한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성보전산화 '진행순조'

국보·보물급 문화재 입력…성보 입력 착수

조계종 문화부가 종무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종단 소유 성보자료 전산화작업이 현재 2150건의 입력이 완료된 가운데 5년여에 걸쳐 실시된다.

성보전산화는 성보의 전산입력을 통한 비지정 성보의 발굴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문화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보현황 과악을 통해 훼손 성보의 보호대책 수립과 문화재 도난예방 및 성보도난시 조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보전산화 작업은 현재 25교구의 국보 보물급 문화재와 4교구 성보에 대한 입력을 끝냈으며 올해 안에 12교구의 성보 입력을 마칠 예정이다.

성보전산화작업은 유형성보관리 시스템을 이용 성보별로 관련문헌, 관리 및 보수 현황 등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세부사항에서는 성보의 국정, 제작 연대, 재질, 크기 및 명문 내용에 관한 부가설명을 첨할 수 있다. 입력된 성보자료는 이후 사찰별 성보문화재 도록과 CD-ROM 제작 등에도 활용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찰 보험상품 늘고있다 23면

제5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진호국가 기원 철야정진

총지종 주관…22·23일 부산 정각사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주요 종단의 주관으로 호국 불교와 관련된 불교계 단체들이 후원 참여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있습니다.

이번 제5차 '진호(鎭護)국가 기원 철야정진법회'는 불교총지종 주관으로 부산 정각사에서 열립니다. 밀교 수행법으로 철야정진을 통한 참회를 하게되며, 부대행사로 거리굿과 길닦음 사물 등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전국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철야정진: 1998년 9월22일(화) 밤9시 ~23일(수) 새벽3시
- 회향대법회: 1998년 9월23일(수) 오후2시
- 장소: 부산 정각사(051)552-7001

※ 법회 현장 생중계(23일 오후2시~3시)
※ 불교방송(101.9㎒)
※ 녹화 중계: 불교TV(ch32)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불교총지종
후원: 국민회의연동회·자민련불자회·한나라당불자회·군승단 경승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이 내는 구독료로 부처님가르침을 전합니다

경제국난으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와 닿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이 전하고 불교계의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 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최대지면(총24면) 최대부수로 탄탄하게 한 목을 당당해 온 현대불교신문은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부처님 품안에서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독료는 더 좋은 신문 제작으로 회향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구독료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처님 법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지금 현대불교신문을 적극 권해보십시오. 복을 짓는 일이며, 귀한 인연분사를 하시는 것이 됩니다.

■ 구독료 납부 방법
- 월 4천원:은행 자동이체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이체가 됩니다)
- 년 4만원:1년단위로 구독료를 선납 (17% 할인됩니다)
- 은행 지로번호 3054464
-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문의: 관리부 (02)737-8881

사진으로 보는 다비의식 11면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토함산 불국사 특별행사 안내



가람수호와 불교발전에 정진하시는 대덕스님과 주지스님, 신행단체 사부대중 여러분께 불은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국사에서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각종 전시와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사 기간 중(60일간) 성지순례 단체에 한하여 불국사와 석굴암, 기림사, 분황사 네사찰을 무료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불국사를 많이 참배하시고, 불교문화 유적의 예술적 가치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상설행사 안내
① "불국세계 친서회" (무설전 전회랑) 문화관광부 등록 장인 40여명 작품
② 죽정 최재남 선생 서각 초대전
③ 정비파 선생 서각 초대전
④ 세계 풍물과의 만남전
⑤ 세계평화와 소원성취를 위한 .10만등 달기 대법회

특별행사 안내
① 성림당 원산대종사 1주기 추모대법회 (9월 25일 10시 불국사 대웅전)
② 특별음악회 "천년의 소리" 9월 26일 오후 7시 불국사 대웅전 앞
③ 영산대제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
◇전통국악 특별공연◇
10월 9일 오전 9시~오후 5시
④ "오매라 원효" (9월 18일~20일)
(객석이 2천석으로 제한되므로 입장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정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입장권 판매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문의전화 :(0561)746-9912~3 팩시밀리 :(0561)746-1476

사 설

조계종의 2대 선거

해산위기에 처하기까지 했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일은 결정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총무원장선거와 종회의원들의 선거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2기 개혁종단을 이끌어 갈 주역들을 뽑는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돌이켜 보면 제11대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우리 종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개혁종단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종회는 성원미달로 열 번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듯한 고습을 보여 주었다. 총무원도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중생구제에 적극 나섰지만 실천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재가불자의 종단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4년 전의 선거당시 보여준 흑색선전등을 동원한 행태는 일부 교구본사 주지선거로도 이어져 불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다. 세속의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타락선거가 난무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다시 이런 과거의 추태를 되풀이 해서는 우리 한국불교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대중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불교의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선거를 여법하게 치르기 위하여는 입후보자나 선거권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신하고 덕망있는 후보자가 뽑혀야 한다. 문중이나 인맥, 파벌에 매여 구태의연한 지난날의 선거행태를 또다시 연출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새시대에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때이다. 수행을 통해 청정성을 인정받고 행정력을 가진 총무원장 후보가 나와야 한다. 종회의원들도 진정으로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종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지난 11대 종회와 같은 모습을 종도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이룩해야 한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고, 후보자들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승풍을 진작하고 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과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각계각층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연대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는 공정성과 엄격성이 생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풍토를 흐리고,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후보나 유권자는 철저히 가려내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후에 화합승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의연함과 대승적인 가풍을 보여줘야 한다. 본래의 부처님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선거방식일지라도 반목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부작용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선거전에 미리 사부대중앞에서 후보자들이 함께 서약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종단의 선거불사는 정말 여법하게 이루어져서 한국불교중흥의 기틀이 마련되길 서원한다.

남-북 '대장경 해제' 책-CD롬 나온다

장경硏 6권 출판…누리미디어 북한판 CD출시

남한과 북한에서 펴낸 〈팔만대장경 해제〉가 CD롬과 책으로 잇따라 나온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다음달 중순 6권 분량으로 〈팔만대장경 해제〉를 펴낸다. 장경연구소는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동국대 정승석교수에게 해제 집필을 의뢰했었다.

장경연구소판 〈해제〉는 모두 6권 3천5백쪽 분량에 이른다. 1~3권은 팔만대장경 해제, 4권은 주제어와 저·역자, 대장경 고유번호 등에 따른 세부목록, 5권은 가나다 순에 따른 총목록, 6권은 색인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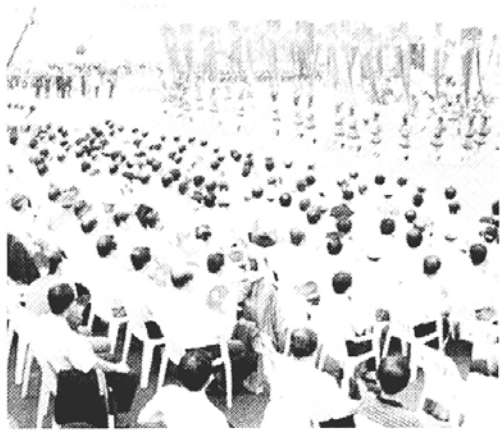
장경연구소판 〈해제〉는 △북한판과는 달리 원전의 개략적인 소개보다 주제 전달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전 명칭을 가나다 순에 따라 사전식으로 편찬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은 "북한판 해제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해제, 그동안의 팔만대장경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인 셈"이라며 "실용적인 내용분류체계를 통해 방대한 불전들을 주제별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CD롬 팔만대장경 해제〉는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의 91년판 해제본 15권을 전체 입력한 것으로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가 10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CD롬에는 팔만대장경 해제와 함께 각국의 팔만대장경, 한국의 불교, 한국의 불교미술을 곁들여 팔만대장경과 한국불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 북한의 불교문화재 사진 50여점을 넣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북한은 87년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25권으로 〈팔만대장경 해제〉를 발간, 91년에 15권으로 축소해 펴냈다. 우리나라에는 91년판 〈해제〉가 94년 들어와 판매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하는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가 11일 오전 11시 경주 보문단지 엑스포 행사장 전승의 마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등 2천5백명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주지 성타스님, 운문사주지 명성스님 등이 참석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1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전문기관 추천자도 포교사고시 응시 가능

조계종 적극검토…1년 인턴제도 도입

조계종의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종단등록 불교대학 졸업생 이외에 사회복지재단 등 포교원이 인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응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포교사 인턴제를 도입하되 수습기간을 1년으로 해 포교사단 사무국이 구성한 수습교육팀이 진행키로 했다. 수습교육팀은 기존 포교사로 구성된다.

조계종포교사단은 5일 열렸던 '포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포교사 배출·관리 개선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수교육은 연수를 수련과 전문교육의 두 종류로 구분해 수련은 년 1회, 전문교육은 전분야별로 년중 계획하여 실시한다. 또 기존의 포교사를 모두 포교팀으로 재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99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노숙자 쉼터' 대폭 늘린다

서울시 10월까지 113곳으로…교계 10여곳 더 개설

서울시는 10월말까지 '노숙자 쉼터'를 1백13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노숙자 쉼터 운영방식을 '20~30명씩 소규모 분산 입소'형으로 바꾸고, 노숙자쉼터에 입소한 노숙자 전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시내 82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모두에 노숙자 쉼터를 만들도록 했으며, 종교-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민간시설에도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혜명복지원, 승가원 등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산하 10여개 복지관이 새로 쉼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자양사회복지관은 이미 '자양보현의집' 시설을 마련, 이달중에 개원할 예정이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 교계 복지관들은 이미 노숙자를 위한 이동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노숙자복지의 노하우를 쌓아 놓은 상태라 쉼터 개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재단 박찬정과장은 이와관련 "서울시가 종교·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노숙자 시설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기존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숙자 대책에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판단, 노숙자 시설 설치를 제외해 달라고 구청장에 민원하는 사례를 수집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무행정 표준화-전산화 사찰 조계종, 법주사등 18곳 시범지정

조계종이 전국 본말사 가운데 18개 사찰을 '종무행정 표준화 및 전산화 시범사찰'로 정하고 종무행정 표준화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법주사, 수덕사, 불국사, 통도사, 동화사, 금산사, 송광사, 신흥사 등 8개 교구본사와 분황사, 도선사, 봉은사, 운문사,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청계사, 보광사, 구룡사, 보문사 등 10개 사찰에 대해 종무행정 및 전산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종무행정의 표준화를 위한 각종 서류와 업무계통은 물론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계종은 18개 시범사찰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금년내로 마치고 내면부터 표준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0년부터 전국 본말사의 행정업무를 표준화 전산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軍 행사시 종교의식 금지 국방부

앞으로 군부대 공식행사에서 특정종교의 의식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해병대 군종사병 서울역앞 집단선교행위 관련자의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명의로 8월 29일자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의 철저 이행을 각군에 지시했으며, 유사사고 발생시 허당 종단의 군종지정 재검토 △비인가 집단 종교행위의 금지 △부대공식 행사에 특정종교 의식 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정종교 의식 금지와 관련해 조계종포교원은 "군종활동 위축이 우려되나 종교편향을 근절키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교화합간담회 국방부, 10월23일

군종장교 파견 종교대표자 간담회가 열린다. 국방부 군종실은 9일 종파간 상호협조 및 군종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키 위한 간담회를 10월 23일 국방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조계종포교원장, 개신교 군종파송협의회장 김홍도목사, 천주교 군종교구장 정명조 주교, 원신도 대표로 불교에선 국방부 총신도회장 박기준 소장, 군에선 천용택 국방장관과 차관, 차관보, 인사국장, 군종실장, 각군 군종감 등이 참석한다. 정성운 기자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중앙승가대의 총무원청사 무단점거농성을 우려한다.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총무원을 무단 점거 농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중앙종회 서명의원들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개혁 이전 구 총무원시절에나 있었던 작태에 다름 아니며 최근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심어줬던 사건에 이어 종단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고 본다.

더욱이 아직 비구계도 수지하지 않은 사미·사미니의 신분으로 종단행정의 구심인 총무원청사에 난입하고 숙소에 있던 소임자스님들을 청사밖으로 내몬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종정파탄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중앙승가대학은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중추요 교학연구의 요람이다. 이에 속한 젊은 학승들의 본분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를 물리적으로 관철하는 것도, 특정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여타의 학승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다. 학내의 문제는 가급적 학내에서 풀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기관장을 통해 종단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학인들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치기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그 연원이 깊다. 교계 내외에서는 언젠가부터 승가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비등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승가대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마치 종단정치의 사당을 형성하는 장으로 자리매겨지고, 수행과 교학연구보다는 세속의 가치를 더 지향하며 전래의 계율의식이 무너지는 곳이라는 내용이 비판의 주요한 골자다. 더욱이 이러한 중앙승가대 실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태까지 점철되어왔던 중앙승가대의 잘못된 학풍과 집단적인 물리력을 두려워하고 좌시해왔던 우리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교계 중진스님들의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중앙승가대 문제를 이대로 좌시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종단존립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서명의원 일동은 이제 결단코 애정어린 질타의 채찍을 들고 그동안의 그릇된 풍조를 시정해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이번 무단 점거농성사태에서 기본이력도 마치지 않은 학승으로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종단 접수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경박하게 언급되고, 종헌종법상 징계사유로 명문화한 주지인사문제까지 거론됐다고 하니 이는 분명 학승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처음 성명서와 다음날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전체 중앙승가대 학승은 물론 농성단 내에서 조차 통일되지 못한 요구사항이 마치 전체의 요구인양 발표됐다고 하니 모종의 저의를 품은 배후가 존재하지 않나 의심스럽기도 하다.

우리 교계의 중진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학승 자신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부처님과 선배스님들께 참회하고 면학과 학교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종단 집행부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실추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사태를 장기화하거나 악화시킬 경우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종단발전에 추호의 도움도 되지 않음을 직시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가리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불기 2542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서명의원 일동

법등 일면 법성 영담 지홍 석호 대원 종림 장곡 덕상 무산 선봉 선용
원명 원행 평상 성오 영조 명진 현봉 여연 범각 정념 영환 동명 현진 수완

12대종회 구성후 총무원장 선출

조계종 선거관련법 개정 내용

선거일정 명문화 · 선기기간 30일로 단축
종단 미등록사암 운영자 등 선거권 제한

조계종 중앙종회가 7일부터 9일까지의 회기 동안 개정한 법안은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법 등 4가지. 개정된 법안들 7·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종단미등록 사암과 종단 관장하임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법인 소속 사암의 운영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의 원칙을 정했다는 것.

개정된 3건의 선거법 관련 법안은 기존의 법대로 차기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제11대 중앙종회가 제29내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의 모순점을 일소시키고 명확한 선거일정을 법으로 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선거일정을 법선거일정을 단축시켜 법적으로 명문화 한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종도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해석된다. 3건의 새법은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공통적으로 못박았다. 또 선거일정의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전 10일부터 3일간등으로 통일했다.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일은 11월 12일, 중앙종회의원의 선거는 10월 29일로 확정된 것.〈선거일정 도표참조〉 각종 선거일정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은 선거기간이 다른데서 파생되는 일정 중복등을 피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의 법은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내지 50일"로 정하고 있어 일정의 중복이 가능했다. 때문에 종회는 선거관련 법을 개정하며 제28대 총무원장의 임기는 1994년 11월 21일부터,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의 임기는 1994년 11월 9일부터 기산한다는 부칙을 각각 달아 종단 개혁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두 선거일정의 혼란을 막았다. 또 교구종회법 가운데 '총무원장선거인단 선출' 조항(제14조)도 "총무원장선거일전 15일부터 5일 중"으로 명시해 시한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서는 직능직 대표의원의 선출 시기는 "중앙종회의원 선출일 3일전"(제40조3항)으로 규정했다. 직능직 대표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직선직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제40조6항)도 신설해 중복 출마의 부작용도 막았다. 이번 종회에서는 직능대표의원 선출위원에 중앙종회가 추천한 종회의원이 아닌 자 6인과 재임중인 총무원장, 포교원장, 포교원장으로 한다는 기존의 법안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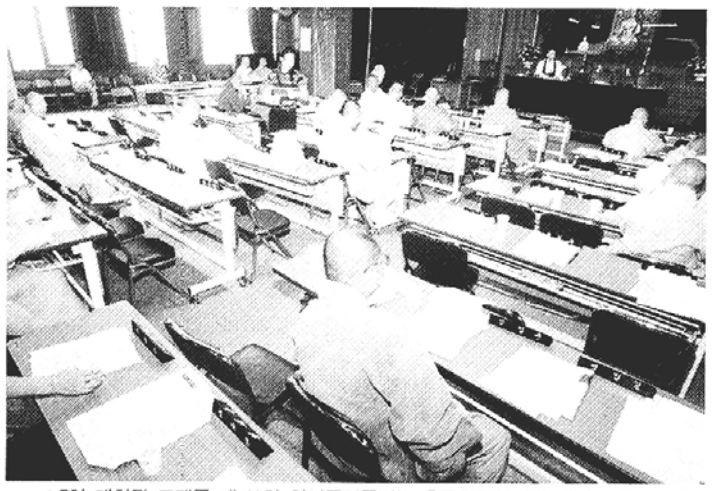
총무원장및 종회의원 선거와 관련 종단미등록 사설사암과 종단소속임을 정관에 밝히지 않은 법인 소속 사암의 창건자, 운영자와 인수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는 그간 쟁점이었던 '도제포함' 방침이 철회됐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각각 제10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6호에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및 인수자 포함)"을 제7호에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를 명시했다. 또 "제1항의 6호와 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인계한 자는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목을 제2항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5년간 피선거권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제11조 (피선거권이 없는자)의 2항으로 신설했다.

이같은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는 총무원장선거법의 제9조(피선거권)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종단 관장임을 정관에 명기하지 않은 법인 소속 사암과 종단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나 운영권자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권을 인계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또 사설 사암의 종단등록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기자 (ytlim@buddhapia.com)

구분 / 일정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제12대 중앙종회의원선거
선거일	11월12일(목)	10월29일(목)직선, 10월26일(월)직능간선
후브등록	11월2~4일	10월19~21일
선거기간	11월2~11일	10월19~28일
선거공고	10월14일 이전	9월30일 이전
선거인단구성	10월28~11월1일	



◇7일 개회된 조계종 제133회 임시중앙종회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선거관련법을 개정해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의 선거일정을 법률적으로 정했으나 또다시 성원미달로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9일 산회됐다.

목어

"불교연극 봅시다"

"저도 처음엔 형태에 집착하는 동연이가 못마땅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사람사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걸, 형태가 결정하고 있더군요…"

"…내 마음이 극락을 느끼면 극락문이 열리고 지옥을 느끼면 지옥문이 열려요…"

짜증스럽고 혹독하기만 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다. 가을의 한때, 다람쥐쳇바퀴같은 일상을 잠시 접고 이러한 대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반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18일부터 24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한편의 불교연극이 상연된다. 서울연극제의 일환으로 공연되는 '느낌, 극락같은'은 우리 시대 최고의 극작가중 한사람이라는 이강백씨가 극본을 쓰고 '문화게릴라'로 불리는 이윤택씨가 연출했다. 불상형태의 외적인 완벽함에 더 치중하는 '동연'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외적인 완벽함이란 무의미하다는 '서연'이라는 두 불상제작자의 상반된 가치관과 삶을 대립시키면서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길과 인간의 진실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연극이다.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 연극이라지만 현재 가장 수지가 안 맞는 예술이 또한 연극이다. 특히 불교연극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잘 만들어졌건, 아니건 불자들조차 무관심이다. 그러니 불교라는 바다에는 소재가 무궁무진하다고 공감하는 예술가들은 많지만 그것을 건져올려 무대에 올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허탈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느낌, 극락같은'은 프로중에서도 프로로 꼽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심혈을 기울인 작품답게 잘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연기경력 37년의 관록파 배우 신구씨의 연기는 압권이며 갖가지 불상으로 변하는 12명 인간코러스들의 모습 또한 장엄하고 이채롭다.

불교연극이 상연되면 불자들이 앞다퉈 보러갔으면 좋겠다. 신심을 핑계삼아 무조건 봐 주자는 것이 아니다. 좋은 작품은 격려하고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자는 것이다. 척박한 연극계에서 좋은 불교작품이 이따금씩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이 꼭 필요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총지종이 주관하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제 5차 부산법회가 22일 철야정진에 이어 23일 회향법요식을 연다. 밀교수행법을 통한 진호국가 기원 법회로 추진하고 있는 총지종 총지화통리원장을 만났다.



-이번 법회는 진호(鎭護)국가를 기원하는 철야 밀교수행 정진을 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종단은 종조님의 뜻에따라 창종이래 27년동안 진호국가불사를 지켜왔습니다. 전종도가 해마다 상, 하반기로 각 49일씩 모두 98일동안 불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인터뷰

국난극복 부산 대법회 여는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국민 모두의 참회 필요한 때"

이번 참회법회도 진호국가불사로 정각사 이외의 사찰에서도 전 종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과 법회장 일대를 종단 풍물패의 길놀이나 사물등으로 장엄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총지종 종지에는 호국사상이 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도들은 공공서원 즉, 일반적인 기도를 할때도 반드시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국강병 국태민안 사바하, 조국평화통일 사바하"를 꼭 염송하는데요. 우리 불교사가 호국불교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속에 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참회를 통한 국난극복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자세여야 하는지요.

▲IMF는 참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나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과를 공부하게 했고, 이런 어려움도 내가 있었기에 생긴다는 연기법도 짚어보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참회가 더욱 절실하고 국난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교계 최초로 여성 종단 대표자이신데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총지종단의 성직자로서 생활신조가 궁금합니다.

▲13살 학창시절때 밀교에 입교했으니 올해로 꼭 50년이 됩니다. 지극히 또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었고 자작자수(自作自隨)하고 수순하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종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사섭법(四攝法)의 정신으로 같이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장 공석 장기화

종회 '새원장 선출안' 상정도 못해
구심점 없어 포교행정 차질우려

두 달째 공석상태인 조계종포교원장 선출이 다음 종회 때나 가능하게 됐다. 포교원장 추천권자인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8일 중앙종회에 종하스님(전 불교방송 이사장)을 포교원장으로 추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유회되면서 포교원장 선출안은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포교원은 7월 19일자로 전 포교원장 성타스님의 사표제출 이후 두 달째 원장이 없는 상태다. 포교법이 따라 포교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포교행정의 공백도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포교원장 공석으로 포교행정의 큰 공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종무원들의 견해다.

그러나 다음 달로 다가온 국방장관 초청 군종파견 종단대표자 간담회에 누가 참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닥쳤다. 포교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당연히 포교부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초청해 각 종단의 대표급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개신교 천주교쪽의 참석자가 개신교 군종파 송종단협의회장인 김홍도목사, 천주교는 군종교구장 정명조주교여서 무게가 다소 딸린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 간담회는 불교계가 요청해서 열리는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안의 작성 등에서 역동적인 사업안의 제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포교행정 체계 강화, 군포교 활성화 등 올해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성을 띠고 있지만, 불교안팎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구심점으로서의 포교원장 공석은 보이지 않는 공백이 된다.

임기 5년인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포교법 14조) 따라서 다음 종회가 열리기 전까지 포교원장의 공석은 불가피하다. 종회가 열리더라도 포교원장 선출안이 처리될지도 확실치 않다.

월주스님의 종하스님 추천과 관련해 새불교운동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 8개 승가·재가단체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 "포교원장은 천만불교도를 조직하고, 사회의 궤범으로서 종단의 도덕적 지위를 고양시켜야 하는 자리"라며 "97년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이사장직을 사퇴한 종하스님의 포교원장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도들은 포교성과의 인사반영, 교구본사 예산 중 포교예산의 일정비율 의무 책정 등 종법에도 명시돼 있고 본사 포교국장회의 때마다 결의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덕망을 갖춘 포교원장을 바라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98년 2학기 원생모집 및 교육안내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을 개원하고 아래와 같이 '98년도 제2학기 교육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삼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분과 일반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산회향회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원 후원회인 '伽山廻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평등회향회원
  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회향하실 분
- 지혜회향회원
  「가산상」의 '연구상'이나 '학술상' 등으로 자유로이 회향하실 분
- 자유회향회원
  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회향하실 분

■ 회원이 되시면……
- 본원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15권 예정) 구입시 특전을 드리며,
- 본원의 강좌와 각종 교화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정간물과 교화매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가 되시어 본원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시거나
- 지로(7606753) 또는 온라인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삼학원 입시요강 및 원생모집 안내

- 이수대상자
  1. 三藏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2. 강원 · 중앙승가대 · 동국대학교 졸업 등의 학력을 갖춘 자
  3. 석사 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재가자
  4. 이상의 자격과 함께 본 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이수과정
  1. 예비과 (범어,팔리어,티벳어,한문)
     어학연수 및 기초과정 : 불교어학 / 일반어학 / 기초학습 / 원전강독
  2. 본과 (범어,팔리어,티벳어,한문 원전)
     근본경전강독 : 아함경,반야경 등
     불교논서연찬 : 팔리어논서/ 아비달마불교 / 중관불교 / 유가행불교
     대승교학/ 한국불교문헌연찬 / 선전연찬
     선수행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제출서류
  1.스님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수행이력서,
  승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추천서,사진3매
  2.일반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추천서,사진3매
- 전형일시
  원서교부 9월 15일~10월 15일
  원서접수 10월 17일까지
  면접전형 10월 19일
- 연구과정생 안내
  - 제출서류
    입회원서
    수강신청서
    사진2매
  - 접수일
    수시접수
- 연구과정생은
  자격제한 없음.
- 강의기간
  9월 17일 ~ 12월 5일

'98년도 제2학기 교육안내

- 불교원전연수과정

선전강독	[景德傳燈錄]	지관스님(본원원장)	매주 금 19:30~21:00
한국불교금석학	[歷代高僧碑文]	지관스님(본원원장)	격주 목 19:30~21:00
불교논서연찬	[攝大乘論]	이지수(본원전임교수)	격주 토 14:40~16:10
	[中論頌]	김성철(본원전임교수)	격주 수 19:30~21:00
	[修習次第]	허일범(본원전임교수)	격주 토 14:40~16:10

-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	[禪要]	김영욱(본원전임교수)	매주 금 17:30~19:00
범어연습초급2	[교재(II)]	문을식(본원전임교수)	매주 토 16:30~18:00
범어연습중급2	[교재(II)]	이지수(본원전임교수)	매주 토 13:00~14:30

- 기초학습과정

불교근본 교설의 이해	[佛敎根本經典]	본원전임교수	매주 토 18:10~19:40

도서출판 가산문고

- {佛敎大辭典} 제1권 *근간
  제2권 *근간 (전15권 예정)
- {伽山學報}
  창간호 / 제2호 / 제3호
  제4호 / 제5호 / 제6호 - 가산학회 편 -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 고려편1 / 고려편2
  고려편3 / 고려편4 / 조선편1*근간 - 이지관 저 -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이지관 저 -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이지관 저 -
- {伽倻山海印寺誌} - 이지관 저 -
-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 下)
  - 논총간행위원회 편 -
- {信行日錄} - 이지관 저 -

문의처 :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02)765-9602~3 FAX 02)765-5673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硏究院 院長 李 智 冠

교차로 승가



개강 맞아 학생들에 법문

녹원 동국대이사장은 15일 오후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개강을 맞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본사 교무국장 회의

암도 조계종 교육원장은 16, 17일 이틀간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본사 교무국장 회의를 갖는다.



경로잔치 · 바자 열어

혜성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은 25일 복지관 개관 3주년을 맞아 경로잔치와 지역주민 노래자랑, 은행골 알뜰장 바자회를 연다.



무료 재활 목욕서비스

혜창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15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수(水) 치료 등 무료재활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02)989-4215



'조선족 현실과 통일' 강연

정각 부산불교자비원장은 건국 50주년과 불교교양지 〈큰수레〉 통권 100호 발간을 기념해 '200만 재중 조선족의 현실과 남북통일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는 강연회를 12일 1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었다.



동산스님 문집 출판기념회

성오 범어사주지는 17일 오전 11시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동산대종사문집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中 성지순례 마치고 귀국

지묵 송광사 스님은 1년여 중국 성지순례 및 어학연수를 마치고 9일 귀국했다. 스님은 성북동 길상사에 주석하고 있다.



법보신문 편집국장에

원일 경북 칠곡 극락사 주지는 3일자로 공석중인 법보신문사 편집국장직을 맡았다.



태아령 천도사경법회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29일부터 10월19일까지 21일동안 제3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를 봉행한다.



장애인 차량마련 하루찻집

해성 광립사연화복지학원장은 10월25일 오전 10시~오후7시 키노하우스 커피숍에서 '청각장애인 무료운전 교습용 차량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02)202-5831

고침 189호 승가동정의 장곡스님은 관촉사 주지가 아니라 前 장곡사 주지이므로 정정합니다.



'영상포교 불사' 적극동참 기대

6차 주식공모 나선 불교TV사장 정우스님

"개국 초부터 지난 5년 동안 불교TV를 후원해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6차 주식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개월간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하는 불교TV 사장 정우스님. 스님은 케이블TV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현재 불교TV가 안고 있는 50억원의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식공모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상 포교의 새 장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불교TV의 전 직원이 재발심해 열심히 뛸 생각이다"는 스님은 "좋은 포교 프로그램과 불교 영상 발전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이번 주식공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시회 수익금 청소년 장학에"

'큰스님 염주전' 준비 **남지심** 씨



"큰스님들이 사용했던 귀한 염주를 이땅의 미래를 짊어질 불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5일 용성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염주를 대각사 도문스님으로부터 건네받은 남지심씨(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의 말이다. 남씨는 오는 연말경 10만결식아동과 불교계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장학기금마련 '큰스님 염주전시회'를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7, 8월 두달간 전국의 유명 사찰을 누비며 월하, 서옹, 관응, 청화, 석주스님과 같은 원로스님을 비롯해 중진, 본사주지 등 1백20여 스님들로 부터 4백여개의 염주를 보시받았다.

오는 연말까지 뜻을 함께 하는 스님들의 염주를 계속 보시받을 계획이다.

남씨는 "큰스님 염주 전시회는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하나로 이어주는 화합과 인연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교계가 사회의 무관심속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동국대서 언론윤리법 강의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로 초빙돼 1일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언론윤리법제론'을 강의한다.

'佛 도서유통' 주제 출판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0일 오후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프랑스의 도서유통'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美 LA에 WFB지부 개설



박동기 한국WFB본부장은 5계 파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LA에 WFB한국지부(지부장 정산) 설립기반을 다지고 8월 중순 귀국했다.

용정시 체육회 명예주석에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장은 4일 중국 용정종합체육관서 열린 제6회 조선민족 민속체육대회에서 대회개최를 지원한 공로로 용정시 체육총회 명예주석이 됐다.

만해사상선양회 수석대표에



장명국 내일신문운영위원장은 7일 백담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수석대표에 추대됐다.

안병욱 인생학 강좌 열어



안병욱 한국전인교육원장이 9월부터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2시 여의도 금산빌딩 310호 한국전인교육원 강의실에서 종교를 초월한 참교육프로그램 '안병욱 인생학 강좌'를 갖는다. 안교수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으로 인생의 근본물음을 제시하고, 명쾌한 해답을 결칠 예정. 이 강좌에서 안교수는 '입지덕행(立志德行)'이라는 자신의 휘호를 수강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02)786-8171

현대프로덕션 사무실 이전



영상매체를 통한 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현대프로덕션 김인기실장이 강남구 역삼동 667-4호 얀텍스빌딩 지하에 101평규모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12일 '(주)하이미디어 현대프로덕션'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스튜디오제작이 가능해져 앞으로 인터넷TV법회와 각종 교양프로그램등을 제작해 CATV에도 납품할 계획"이라는 김실장은 "불황일수록 더욱 변화발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멀티미디어시대 불교홍보에 한발 앞장서는 현대프로덕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02)553-8881

"재정 확충위해 재가이사 영입"

파라미타 정상화 모색 현근스님



"재가이사를 영입해 어려운 살림살이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파라미타 임시이사회를 개최, 재원 마련과 운영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몰이에 나선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현근스님. 스님은 파라미타가 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 불법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올곧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계에는 '현 이사스님들의 참여가 부족해 파라미타가 난항을 맞고 있다'는 등 파라미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현근스님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며 교법사와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종단의 지원이 있다"며 "파라미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현 이사스님들에게 이사직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결원된 이사 자리에 원력있는 재가불자들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파라미타 9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현근스님은 이사스님들과 종호의원의 신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파라미타는 99년도 예산으로 7억원을 책정했다.

현근스님은 "청소년단체는 투자가 필요한 곳이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모습이 상징적인 가치로 되돌아 오는 곳"이라며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청소년이 청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이건식 前 국회보좌관 수해사찰 30곳 구호 앞장



이건식 前 국회 입법보좌관은 최근 수해를 입은 의정부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30여개 사찰에 정부 구호품을 전달받도록 노력을 기울여 눈길.

수해로 사찰 축석과 등산로, 요사채, 심지어 대웅전까지 무너진 사찰이 있었으나 정부의 재해보상규정에 구호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 등 관할청에 협조를 요청. 시멘트 5천2백 포대와 이불 간장 세제 모기약 등 구호의연품 세 트럭분을 받아 내 30여개 피해사찰에 나눠졌다.

김재경 기자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

청교련 경기지부 창립 **법현스님**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9일 대한불교청교련 경기지부를 창립한 법현스님(자현사 주지)은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수십년간 고아원 보육시설인 '둥지'를 운영해 온 스님은 "경기지부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둥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며 지부 운영 방향을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결하는 '경기도 청소년 불교연합회'(가칭)로 까지 발전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종욱 기자

"나라 꽃 보며 역사아픔 달랬으면…"

나눔의 집에 무궁화 심는 탤런트 **이일웅** 씨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에 태극기와 무궁화는 있어야죠."

나눔의집후원회장인 탤런트 이일웅씨는 20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집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무궁화를'이라는 식수행사를 갖는다. 이날 심어질 무궁화는 한국재래종 흩꽃단심계 5~6년생(150Cm) 1천5백여주.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무궁화를 달아드리는 이 행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천원을 내면 전국무궁화보급회장 박상수씨의 지도로 이름표를 단 무궁화를 심고 일본군위안부기념관을 관람하게 된다.

국민은행 023-01-0548641(예금주 기념관). 문의 (02)960-688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공 고

제 134회 임시 중앙종회 소집 통보

본종 제134회 임시 중앙종회를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 14조,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집 통보하오니, 종회의원 제위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 2542(98). 9. 17.(목) 오전 10시 ■장소 : 불교회관 1층 회의실

■ 토의사항:

1. 종법 제·개정안에 관한 건
   1) 중앙종회법(개) 2)종무원법(개) 3)승려법(개) 4)총무원법(개) 5)지방종정법(개) 6)호계원법(개) 7)성보보존법(개) 8)분담금 납부법(개) 9)선거관리위원회법(개) 10)법규위원회법(개) 11)계단법(개) 12)교육법(개) 13)선원법(개) 14)총림법(제) 15)예산회계법(개) 16)중앙종회 규칙제정안에 관한 건(제) 17)산종총회법(개)
2. 각 상임분과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 불교방송(라디오)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2)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
3. 종무보고의 건
   1) 임시 중앙종회 지적사항 처리 보고의 건
4. 종단 상설행자교육원 지정 요청의 건
5. 원로의원 추천의 건
6. 기초선원 지정 동의 요청의 건
7. 중립학교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8. 남·북 불교 협의기구 설치에 관한 건
9. 승풍에 관한 건
10. 은해사 교구를 계율(교육)도량으로 지정 요청의 건
11.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요청의 건
12. 육주사, 강천사 재산환원에 관한 건
13. 기타사항

불기 2542(98). 9. 9.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전 설 정

1998년도 불교지도자를 위한(제28기)

불교의식 (범음 · 범 패)학인 모집

1 교수 및 교과내용

● 개강일시 : 98년 9월 19일(토) 오후 2시
● 교 수 : 정대은 학장스님 직강
● 교과내용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등)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예불, 행선축원, 천수경, 불공(삼보통청, 지장청 및 각단불공) 시식 등 천도의식, 법회의식, 생일의식, 결혼의식, 장례의식

2 모집방법

● 모집인원 : 30명 ● 자 격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교부 및 접수 : 98년 8월 22일(토)~9월 18일(금)
●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30분
● 입 학 금 : 일십만원

※ 특 전

①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이며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전통 불교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② 포교사(국내, 국제) 자격 취득 가능
③ 동국대학교 대학원과정 입학 가능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FAX: 765-3169

불교지도자를 위한(1년과정)

불교대학학인모집

불교는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할 「지도자(스님, 법사,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개설된 교육도량.

1. 교과목 및 교수
● 교 과 목 : 불교개론(부처님의 생애), 초기소승불교사상, 대승불교, 정토불교, 천수경, 법화경, 반야심경, 밀교의 세계, 중국불교, 한국불교, 비교종교, 불교와 예술
● 교 수 진 : 교계권위있는 석학으로 강의
2. 정규, 통신 각 OO명
3.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4. 개강일시 : 98년 10월 24일 오후 5시
5. 원서접수 : 98년 9월19일~10월 23일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입 학 금 : 일십만원
8. 특 전 : ①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② 포교사(국내, 국제)자격 취득가능
③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가능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FAX: 765-3169

해동불교 범음대학

"국난극복 · 제 2건국 앞장"

청와대 청불회 제2기 출범

직원 90명 가입…회장 김태동 수석

복지시설 방문 · 교리공부 등 계획

청와대 불자직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가 9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주지 청학스님, 박상규 국민회의부총재, 국민회의 배종무의원, 조성준의원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2기 회장에 김태동 정책기획수석을 선출하고 하반기 활동계획등을 확정했다.

김태동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기 청불회가 교계의 각별한 관심속에 재출범하게 됐다"며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에 동참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청불회는 회칙을 개정하고 16일 오후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열기로 했다. 개원법회는 석주스님의 법문과 월주스님의 축사, 청불회원들의 1백8배정진 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매월 정기법회및 초청법회 개최, 10월경 1박2일 간이수련회, 길상사 교리강좌에 단체접수, 연등회 자민련불자회 정각회 감사원불자회와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사회복지시설방문, 회원단합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하반기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신임임원에는 부회장에 박주선 법무비서관, 박준영 공보비서, 사무국장겸 교화간사 정은성 통치사료비서관, 총무간사 김경일 행정관 현제명 경호관, 재무간사 박인복 행정관, 섭외간사 김형욱 행정관이 임명됐다.

청불회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 9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모든 불자의 염원인 불국정토 구현과 남북통일을 위해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행 실천을 목적으로 96년 8월26일 창립됐다.

1기 회장이었던 박세일수석과 이각범수석 배재욱비서관이 주축이돼 발족한 청불회는 정권이 교체되며 잠시 침체기를 맞았으나 지난 4월부터 김태동수석을 주축으로 여러 차례 모임을 갖은끝에 제2기 청불회가 공식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탑쌓아 올리듯 육바라밀 정진

청불회 제2기 회장 김태동 수석



"불교의 근본수행법인 팔정도와 육바라밀 정진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에 동참하는 참 불자들이 되겠습니다."

9일 청와대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2기 회장에 선출된 김태동씨(50세, 정책기획수석)는 호국불교정신과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매달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 탑을 쌓듯 정성으로 청불회 융성불사가 이뤄지도록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회장은 회원단합을 이뤄 민족문화 계승 및 발전과 불교중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나라와 국민위한 경승기원법회

건국 50주년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승기원대법회'가 8일 서울 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서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은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인 경찰불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11돌을 맞은 경찰청 경승기원법회에는 과장급이상 간부전원과 34개 경찰서 경승 40명 등 사부대중 2백50명이 참석했다.



광진구 재가노인 보호소 개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8일 오후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영섭 광진구청장, 조계종사회부장 능관, 홍순원 서울동부경찰서장 등 지역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 재가노인주간보호소 개소식을 가졌다. 노인주간보호소는 자양3동 성보빌딩 3층에 65평의 공간을 마련, 매일 치매·중풍 및 심신 허약 노인 25명에게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승가원 서울 번2동 어린이집 개원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립 번2동 어린이집(원장 권현자)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장애인복지관장 혜창스님,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과 장정식 강북구청장, 권현자 원장을 비롯 지역주민 4백여명이 참석했다. '번2동 어린이집'은 대지 145평, 건물 2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승가원 법인산하 종사자 16명이 154명의 어린이를 돌보게 된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모임 발족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영호 경북대교수)이 9월9일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 서문로에 사무실을 개원했다. 대구경북지역 정신대할머니를 도왔던 여성단체와 대학동아리를 중심으로 지난 해 12월 31일 결성된 이 모임은 훈할머니를 비롯 정신대할머니 여섯명을 보살피고 있다. 약 3백명의 회원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인과 재일교포도 포함돼 있다.

탐방 송파구청 반야회



◇송파구청 반야회는 분기별 사찰순례법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 법흥사에서 임원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관내 25개 사찰과 유대 강화

96년 창립…회원 60명
타종교인도 행사 참여
사찰행사 지원 · 민원 해결

빌딩형식의 새건물이 세련돼 보이는 서울 송파구청. 청사에 들어서자 96년 '송파구를 빛낸 인물'로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의 사진이 눈에 띈다.

그동안 대선과 지자체선거 관계로 불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송파구청 반야회는 이번 정기인사개편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말 불자가족 성지순례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불자화합을 통해 신행을 증진하자'는 목적으로 96년 12월 창립한 반야회는 현재 6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달 1회 불광사에서 주지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와 분기별 사찰순례법회를 갖고 있는 반야회는 열린모임으로 운영하여 무종교인은 물론 타종교인도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사찰순례법회에는 가족들도 참가하여 가정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반야회는 관할구역 사찰의 어려움도 꼼꼼히 파악한다. 사찰의 안내 입간판 문제와 행사시 주차문제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관할구역 사찰의 행사도 참가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다. 4월에 열린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장애인 체육대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반야회원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찬조금을 전달했다. 또 광림사 수화교실에 송파구청 복지과에서 지원금 2백만원을 전달한 것도 반야회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반야회 유중원회장은 "내부적으로 불자회 활성화를 위하여 큰스님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연말까지 관내 25개 사찰과 연결할 수 있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사찰에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을 파악, 처리하여 유대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봉선사 직지사 무각사

직장직능법회 원찰로 자리잡아

법회장소로 산문 개방

각 지역의 주요사찰들이 직장·직능법회 원찰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길상사가 법회장소와 수련원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 김천 직지사와 광주 무각사, 김제 금산사등도 지역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산문을 열어 놓았다.

조계사에는 현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예술인불자회 백련장학회 조계종총무원 원우회 서울시청불심회를 비롯하여 정당불자회가 법회를 보고 있다. 또 봉은사는 한국세무사불자회를 비롯하여 강남지역 직장·직능단체들이 신행을 증진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는 연평균 20개 단체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최근 산문을 연 성북동 길상사는 직장인을 위한 수련회와 시민선방으로 개방하여 직장·직능단체들의 새로운 수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김천직지사가 교사불자회와 운전불자회 법회를 열고 있으며 직장·직능법회에 직지사수련장을 개방하여 50개 단체 7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다녀갔다.

광주 무각사도 광주·전남지역 직장법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무각사는 광주지역 직장·직능단체의 도량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행단체협의회 구성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광주불교산악회와 광주운전불자회가 무각사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중이다.

우리 모임에선

연등회 창립2돌 법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2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2)784-3153

불교언론인회 운영회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6일 12시 다보빌딩 2층 사무실에서 제3차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운영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9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02)719-4083

원광대 佛日동문 모임

원광대학교 佛日동문회(회장 차봉기)는 19,20일 교내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정기동문회를 개최한다. 재학생들의 축하공연과 동문법회, 정기총회, 재학생과 졸업생간 친선체육대회가 열린다. (0653)840-1643

'성원 살리기' 불심 뜨겁다

서명 15만명 돌파

'성원살리기' 청원 서명불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주)성원살리기 청원서명운동본부(본부장 혜총스님)가 전국사찰에서 결치고 있는 서명작업은 조계사 한마음선원 구룡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삼광사 감로사에서 진행중이며 앞으로 봉선사 수덕사 송광사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8월 22일 성원에서 제출한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7개 계열사중 주력기업인 성원토건 1개사는 화의개시, 6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성원살리기 청원 서명본부는 8일 청와대에 성원의 화의신청을 바란다는 청원서를 재출했다.



◇봉은사 신도들이 성원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화의신청이 늦게 처리돼 흑자부도사태가 늘고 있다고 보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화의신청에서 개시까지는 1개월로 하고 화의 개시 후 1개월동안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의 (주)성원살리기 청원서명본부 (051)816-3680

사찰과 가정을 "불자비"로 지키십시오



저희 (주)대동소방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 사찰 및 성보문화재, 그리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을 화마로부터 지켜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각종 소화기류를 원가로 공급합니다.
특히 금번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불자비" 상표로써 차량용, 부엌용 간이소화기를 시판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동소방은 불자기업으로서 끝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이사 智眼 이남제 외 임직원일동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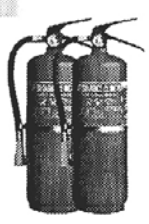
하론소화기
산업용,차량용,
부엌용,법당
400g(불자비,차량/부엌용) -15,000원
3.0Kg(STAINLESS) -9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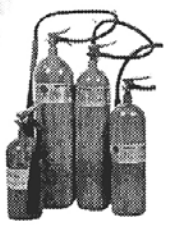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용
3,0Kg-20,000



ABC분말소화기
가정용,사무실용,
요사채,선원
1.5Kg-15,000원
2.5Kg-17,000원
3.3Kg-19,000원
4.5Kg-22,000원
20Kg-100,000원



CO2소화기
법당,요사채,가정용
2.3Kg-70,000원
4.5Kg-90,000원
6.8Kg-110,000원
23Kg-400,000원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소방에 관해 전반적으로 문의하실 분은 항상 저희 대동소방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 대표전화(02)215-0723 FAX :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 대표전화(0561)772-0729 FAX : (0561)772-3923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공장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679

예금계좌
서울은행 : 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 : 015-026140-04-011
상업은행 : 178-04-105683 한일은행 : 097-147931-13-501
제일은행 : 154-20-040173 국민은행 : 355-25-0003-678
신한은행 : 313-05-014055 축협 : 200-72-07640-717
농협 : 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쳐기업입니다.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법보신문 7월 29일자, 불교신문 5월 19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좌측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와 김우석 전내무장관이 구속되고 한나라당 오세응 의원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상당수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회의 정치개혁 특위는 떡값이라도 1백만원 이상은 모두 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련의 상황 진행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정치인치고 뇌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조소가 일반적이고 보면 뇌물관행은 차제에 뿌리뽑아야 할 망국병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망국병은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뇌물은 주고 받는 쪽 모두의 그릇된 재물욕과 부정직, 비윤리에서 비롯된다. 넓은 의미에서보면 그 뇌물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민의 피와 땀이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거래수단이 되어서는 그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뇌물 "국민복리 훔치는 도둑 엄벌해야"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오직 아첨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옛날의 어떤 왕이 뇌물을 받고 수행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였다. 그들은 결국 그 싸움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모두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모든 수행자들이 떠나버리자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부덕을 성토하고 자리에서 쫓아내고 말았느니라. 〈자타카〉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나리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삼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할지니 이것이 여래선불세존께서 세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능엄경〉

▨3악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구차함이 있더라도 인색하지 말라. 올 때도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할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지문경〉

▨훌륭한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해져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나니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구나. 〈잡아함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짙은 화장·짧은 치마 사찰예절에 어긋나

분장강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짧은 치마나 야한 화장, 짙은 향수를 바르고 절에 오는 불자들은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부처님이 항상 상황에 맞는 설법으로 우매한 우리 중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불자들의 화장법과 옷매무새도 장소와 분위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불자들의 경우 절에 갈 때에는 다른 외출 때보다 더욱더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법회나 재일날에는 긴치마나 법복바지 같은 편한 옷을 입고, 사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화장법을 권하고 싶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절을 찾는 것은 불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절이다. 그렇게 할 때 주위의 불자들과 미소로 법문을 나누고 신심도 절로 솟아나게 될 것이다. 김경숙
〈서강대 방송아카데미 분장강사〉

불교TV 주식 동참 영상포교 힘 실어야

21일부터 불교TV가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50억이라는 악성 부채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불교TV는 TV법회를 비롯해 평소 친견하기 힘들었던 선지식들의 법문을 담은 '뜰앞의 잣나무' 등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했다.

이렇게 영상 포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불교TV의 주식공모에 전 불자들이 다시한번 발심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수재의연금 모금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성원을 주식공모에 쏟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TV가 영상 포교 매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태연〈서울 개포동〉

청정승가 기원법회 절마당서 쫓겨나다니

지난 5일 재가불자들은 또한번 스님들에게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도박사건을 계기로 스님네들을 잘 모셔 청정승가를 구현하자는 참회와 서원의 뜻을 담은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를 열려고 했다. 그런데 조계종 총무원의 소임자 스님들이 법회장소로 예정했던 총무원 청사 앞 사용을 허락치 않았다.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무엇 하자는 것이냐"는 것이 이유였다. 차라리 잘못들은 말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인가.

신문보도를 보니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10월 초에 '정화이념 계승과 승풍쇄신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스님들의 대회는 괜찮고 재가불자들의 법회는 왜 안된다는 것인가.

한 가정의 부모들도 자식들의 눈을 의식해 언행을 삼간다. 하물며 1천만 불자들의 스승인 승가임에 오죽하겠는가. 승가는 여전히 재가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주길 바란다.
유승구〈강원도 영월〉

자연재해 원인은 인간의 탐진치

어느 날 문득 산이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계절을 바꾸어 오솔길 옆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리던 꽃들이 자취를 감추고, 식물원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진짜 산은 국립공원이나 이름 난 큰 산 뿐이 남지 않을까, 괜한 공상이 아니다.

몇 해 전 환경윤리 종교인선언이란 것이 발표됐다. 물질의 집착보다 정신적 풍요의 추구,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자연과의 조화, 후손의 삶을 생각하는 생활의 태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빛바랜 선언이 아니다. 올 여름 자연재앙을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지는 실천윤리이다.

선언 중에서 한 가지만 되새겨보자. "이제 우리의 삶은 물질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의 삶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더불어 나누는 커다란 기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과괴의 근본원인은 자연을 대상으로 일삼는 폭력, 즉 인간의 탐진치에 있다.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일진데, 온갖 생명의 물질을 제공하는 자연이 온전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기법이다.



변윤〈법주사 스님·시인〉

사찰을 청소년 교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교계 일선 포교사들은 여전히 청소년 문제를 '곁다리 끼기'로만 생각해 안타깝다. 청소년 탈선은 많은 부분 가족 간의 이해와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게 교육계 정설이다. 따라서 일탈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가족역할훈련'을 먼저 권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탈선에 당황하며 고민하는 부모와 그 사이에서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좁히는 지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명상·참선·화두 등의 수행법은 청소년의 도덕관, 창조력, 리더쉽을 계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익힌 것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도 포교사의 중요한 몫일 것이다.

물론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찰과 대중의 중간에 서있는 포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포교사들이 현대 교육의 방법론과 접근법을 과감히 포교의 장으로 흡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미경〈청교련 인천지부 시무국장〉



정진합시다 IMF 경제한파와 전국을 할퀸 물난리로 너나없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솟는 듯했다. 어른들의 간절한 모습과 어린의 천진한 표정이 대비된다.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다독이고 따뜻한 눈길로 세상을 보고 싶다. 권기철〈경북 안동시〉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1천원 법보시운동 동참"

지난 9일자 현대불교신문에 'IMF 어려움 겪는 이웃에 따뜻한 법음을 전합시다'란 알림기사를 보았다.

매월 1천원 이상의 동참으로 모인 금액으로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해외교민시설 등에 신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곳보다 절실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쉽지 않은 곳들이다. 현재 이런 곳에 1,258부의 신문을 보내고 있다.

전법은 포교와 다르다. 포교가 불자만들기, 즉 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올바른 이치를 전하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의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은 적은 금액으로 불법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신문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기뻐할까. 불국토는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아닐까. 김정호〈서울 중계동〉

독자의 편지에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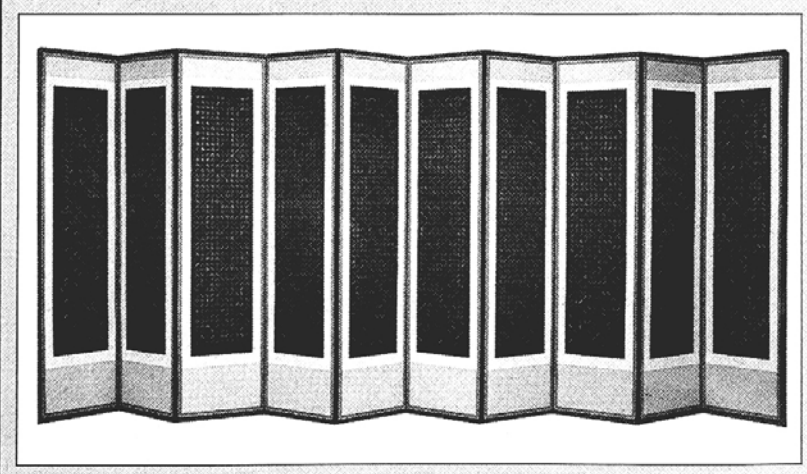
불상 軀로, 불감 座로 표기

대구에 사는 박유경불자께서 불상을 헤아리는 수사(數詞)를 '시체를 헤아리는 구(具)로 쓰지 말고 '좌(座)'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확인한 결과, 불상을 세는 수사는 '구(軀)', 불감은 '좌(座)'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세는 단위는 여러 고문헌에 나타난 표기법을 따와 쓰고 있다는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문화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부석사 무량수전, 남대문 등 건물은 '동(棟)', 탑 부도 비석 석등 다리 당간지주는 '기(基)', 경관은 '판(板) 또는 매(枚)', 종은 '구(口)', 벽화는 '면(面)', 향로 병은 '개(個)', 전적류는 '책(冊)' 또는 축(軸), 귀거리 요령은 '쌍(雙)', 금관은 '구(具)', 영정은 '폭(幅)', 혜원풍속도 등 그림은 '첩(帖)', 사리함 칼 거울 등은 '점(點)'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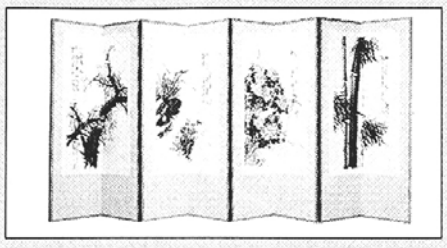
금강경金書공단병풍보급



■ 작품
·전면:금강경
·후면:팔상록(金書)
■ 재질
양면고급비단
스기목/고급죽절
10폭양면병풍
■ 보급가격
₩550,000

■ 석가세존일대기 병풍(8폭)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명 ·보급가: ₩450,000
■ 부모은중경병풍(10폭)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필 ·보급가: ₩550,000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정보병풍입니다·

林泉거사진품 사군자 8폭 병풍



▶林泉 朴秀春 作 ·후면: 한시제문 ·특가:₩580,000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등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맑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잘난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열나고 손, 발, 배가 차가우며 배꼽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를 눌러보아 맺힌게 있고, 통증을 느끼면 몸뚱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가을 불교문화행사 '풍성'

음악회
오페라 '원효'
불국토, 천년의 소리
⋮

전시회
경주판화전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제17회 불교미술대전
⋮

연 극
느낌, 극락같은

영 화
종교영화제

마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고단한 일상사를 잠시 떨쳐두고 낙엽지는 길을 걸으며 음악회장이나 미술전시장을 찾기에 좋은 때이다. 마침 '불국토, 천년의 소리',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음악제', 오페라 '원효', 연극 '느낌, 극락같은' '종교예술제' 등 대형 무대와 각 전시회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중에는 불교 전통의식인 '예불'의 전 과정을 음악화한 대형무대가 2개 마련되며 신라문화의 보고이며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가 국악공연, 오페라 등의 무대로 쓰이게 돼 한층 관심을 끈다. 이번 가을에 열리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 영화제 등을 알아본다 〈표 참조〉.

'98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해 경주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김영동의 '불국사 천년의 소리여행'과 오페라 '원효' 그리고 영산대재와 각 전시회가 그것.

특히 26, 27일 불국사 대웅전앞에서 열리는 김영동의 '불국토, 천년의 소리여행'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시간동안 펼쳐진다. 1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영산회상'을 시작으로 '바람의 소리' '역사의 강' 등 명상음악의 정수들이 1시간동안 연주되며 이때 대웅전 좌우에 설치한 스크린으로 스님들의 참선하는 모습이 비쳐지고 창작무용도 곁들여진다. 2부에서는 전통악기와 40여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사물소리와 대금독주가 어우러지면서 '예불' '안행' '참선' '승무' '반야심경' '청운교 백운교 지신밟기' 등이 공연되고 전 관객들이 참여하는 탑돌이로 회향하게 된다.

11월 4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 음악제' 역시 '예불'을 관현악과 합창으로 재구성했다. 교계 최초의 대규모 관현악단인 '비사관현악단' 창단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의 공연도 마련된다.

18~20일 불국사경내 특설무대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원효'는 총 출연진이 266명이라는, 오페라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대형오페라.

서울연극제의 일환으로 18~24일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올려지는 '느낌, 극락같은'은 우리시대 최고의 극작가와 연출가로 평가받는 이강백씨가 창작하고 이윤택씨가 연출한 정통 불교연극이다. 함축적인 심오한 대사들이 한번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불교미술작가들의 참신성과 기량을 볼 수 있는 제17회 불교미술대전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통의 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재현시켰다는 '건칠지불'을 비롯 다양한 불교공예품을 감상하려면 중요무화재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승공예대전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음악회와 미술전시회, 영화제, 학술세미나로 열리는 종교예술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인들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뜨거운 신심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음악회〉

행사명	날짜	장소
오페라 '원효'	18~20(오후8시)	경주 불국사
김영동의 '불국토, 천년의 소리'	26~27(오후6시)	경주 불국사
종교음악제	10.27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콘서트홀
선재어린이합창단 창단 연주회	10.31 (오후7시30분)	경주서라벌문화회관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음악제	11.4(오후7시)	서울잠실체조경기장
다악(茶樂)발표회	11.15~16	서울국립국악원 예악당

〈전시회〉

행사명	날짜	장소
정영렬유작전-침묵의 빛	9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천년의 향기-경주' 관화전	9월25일까지	경주문화엑스포우정관
'거장(장욱진 박생광 권진규)의 향기' 전	9월20일까지	서울가나화랑
제23회 전승공예대전	9.25~10.31	서울종교문화재 전시관
종교미술제	10.9~10.16	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10.14~10.21	서울공평아트센터
조선후기국보전	10월11일까지	용인 호암갤러리
석천 이경희의 백팔심경도서전	10.25~10.30	서울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
임무상개인전	11.4~11.10	서울동덕아트갤러리
세계문화유산사진전	9.26~10.10	경주문화엑스포원명실
경주 남산사진전	10.22~10.31	경주문화엑스포우정관

〈영산대재 · 연극 · 영화〉

행사명	날짜	장소
연극 '느낌, 극락같은'	9.18~24	서울문예회관대극장
신라불교 영산대재	10.9(오전10시)	경주 불국사
종교영화제	10.9~10.20	한국영상자료원영사실
멀티미디어아트쇼 '미소의 저편'	9.11~11.10	경주문화엑스포주제관

불심시심 〈144〉

이별에 남는 정

故人迎我喜 (고인영아희) 옛 친구는 기쁨으로 나를 맞아
款款一遊場 (관관일유장) 오손도손 정다운 한마당 놀이
打盞當論道 (타잔당론도) 이 잡으며 진리 논의 마땅하고
掃塵可臥床 (소진가와상) 먼지 쓸어 침상에 누울만도 하다
客筍看日色 (객공간일색) 나그네 지팡이 한낮 햇빛 살피며
村酒入花香 (촌주입화향) 마을집 술에 꽃 향기 묻어들다
臨別猶餘意 (임별유여의) 떠나려 하니 그래도 남은 정 있어
慇懃更把觴 (은근갱파상) 은근히 다시 잡게 되는 술잔.

징월(澄月)대사의 '아침에 도량을 떠나며(朝發場內)'라는 시이다. 시 자체로 놓고 보면 꼬집어 승려의 시라 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한 늙은 선비의 일상사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을 떠나 있으면서 세속을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대덕들의 초탈성을 이해하게 된다.

첫구에서 다정히 맞아주는 친구가 있어, 이 시가 정다운 두 사람의 일상사가 담담히 제기될 것을 예견하게 된다. 그 정다움의 실질적 표현이 관관(款款)이라는 의태어이다. 오손도손이라 번역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이 두 사람의 정의가 드러나는지 모르겠다.

이를 잡는다는 말이 꽉 잠잠해 보인다. 이잡음도 행위의 한 동작이니 분주한 몸놀림의 한 단면으로 봄이 옳을 터이나, 오히려 한가함의 전형적 모습이다. 대낮 토담집 토방의 햇살 아래이든, 한밤의 질화로가의 불기 옆이든, 이는 분명 여가의 한가한 작업이다. 이러한 한가함이 노스님의 무심한 동작으로 이어지면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멈춰지는 느낌이다. 이 때가 진리 논의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잡음과 진리 논의를, 마땅하다(當)는 한 글자로 묶었으니, 용의 눈동자 같은 자리맞춤이다.

한낮의 지팡이가 멈출 곳을 찾았다. 촌주라는 마을술은 그 자체로도 향기롭다. 그런데 꽃에 들어 향기롭다(入花香) 하였다. 소박하고 훈훈한 인정미가 느껴진다. 그저 입맛이 당기는 시어들이다. 결국 이 정에 이끌려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항시 여유로운 정이다. 다시 술잔 들어 한 잔 더 권하는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아무 헤아림 없는 도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종찬〈동국대 명예교수〉

일상의 잔잔한 '속삭임' 진실 추구하는 詩作 40년

고은 신작시집 '속삭임'



'민족시인' '청년시인' 등 고은 시인에게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왕성한 필력도 그렇지만 민족혼을 일깨워 온 그의 문학에 대한 정열은 문학이 삶 그 자체이고, 삶이 곧 문학임을 보여준다. 그런 그가 등단 40주년을 맞아 신작시집 〈속삭임〉(실천문학사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하나의 주제나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루던 종전과는 달리 일상의 잔잔함을 잔잔히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파문같은 잔잔함에서 깨달음을 보여준다.

시 '선운사 동운암 비탈길에서' 고은 시인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앞으로 남은 것을 어찌할 것인지 고민한다. 그런 반대쪽 한 켠에서는 '입은 옷 그대로도 왜 그런지 새롭습니다/사람에게는 10년 20년의 가파로운 단련으로/이루어지지 않는/어떤 울음이 잠겨 있습니다/반쯤 혹은 다 물속에 잠겨/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들길' 中)라며 또다른 삶을 꿈꾼다.

아픔과 절망마저도 이고 가야 하는 여정. 그 길을 고은 시인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불혹의 시들은 그렇게 삶을 채색하며 내면의 진실을 추구한다. 깨달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연꽃통해 생명근원 발견해요"

사진집 '蓮' 펴낸 이태영씨



사진작가 이태영씨가 사진집 '蓮'을 펴 냈다.

"단순히 연꽃의 아름다움을 찍는 것에서 벗어나 연의 일생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연을 통해 세파에 따라 굴절되어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영원히 존속해야 하는 참나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가 찍은 연꽃은, 연꽃을 주체화하는 카메라의 테크닉에 의해 부분적으로 핵심을 잡는 작업으로 한층 조형적이면서도 추상화하는 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요강지에서 연꽃의 사계를 담기 위해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이태영씨는 "연꽃은 찍으면 찍을 수록 신비롭고 청정한 정신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철학적이고 이미지화된 연의 모습을 포착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자연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기를 즐겨하는 이태영씨는 지난 95년 자연의 사계를 담은 사진집 〈사계-1〉을 냈으며 신라미술대전, 경북미술대전, 대구사진대전 등의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한국전통예술지보' 공연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13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를 비롯 11개 도시에서 '한국전통예술지보(韓國傳統藝術至寶)' 제목으로 예술공연을 갖는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대도시뿐 아니라 다카나베 구루메 오무타 이쓰키 다케오 등 지방의 소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공연에는 임이조씨가 '태평무' 이생강씨의 '대금산조' 정명자씨의 '살풀이' 임경주씨의 가야금산조 등 명인들이 동참해 우리 가락과 춤 등 한국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게 된다.

19~20일 김달진 문학제

월하 김달진 선생을 추모하는 제3회 김달진 문학제가 19~20일 '한국시의 미래'란 주제로 경남 진해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한국회귀잡지전, 옛 생활사 구술대회, 월하 전국백일장, 문학심포지엄 등이 열리고 둘째날에는 김달진시인의 생가를 찾는다.

이번 문학제에는 시인 신경림 김종길 강은교 문학평론가 김흥규 김윤식 씨등 1백여 문인이 참가한다.

문화재 소식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신청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추진위원회(위원장 나기정청주시장)는 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기록유산으로의 등록여부는 올연말 유네스코의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10월 청주에서 열리는 심사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00년 10월 개최될 청주 국제인쇄출판박람회에서는 유네스코 후원을 받고 내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때에는 한국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강릉 문화유적 지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강릉시가 문화유적 분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5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릉대박물관에 지도제작을 의뢰 15개월 만에 분포도를 완성했다.

유적지도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매장 문화재는 물론 강릉단오제 등 민속과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 3백71점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분포지역을 도면상에 표기하고 뒷편에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각종 공사허가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문화재 훼손도 막고 발굴조사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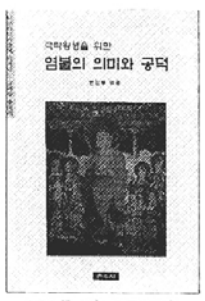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화엄사상 강설
通玄장자의 화엄사상과 淸凉국사의 화엄사상 비교
▶ 일 시 : 1998년 9월 셋째, 넷째주 월, 화요일 21일 22일 28일 29일(4일간) 오후7시
▶ 장 소 : 화엄회관 강당 (성원서면 주차빌딩 2층/부산진구청 후문 옆)
▶ 수강료 : 없음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화엄사상 강설
80 화 엄 경 입 법 계 품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 소 : 화엄회관 강당 (성원 서면주차빌딩 2층/부산진구청 후문 옆)
▶ 수강료 : 월 15,000원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강의 테이프(비디오.녹음)보급
▶ 과 목 : 80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삼매경, 초발심자경문, 대승기신론, 유식론, 육조단경, 금강경, 선관책진, 천태사교의, 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 대도직지중용직지, 천부경, 원인론 등.

韓國佛敎映像通信講院
전화 : (051)809-8945
전송 : (051)809-8946

황토 토굴
생명의 진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이다.
황토토굴의 효능을 체험하십시오 살아숨쉬는 ?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평생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황토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의 의미와 공덕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128쪽/값 3,500원
▶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 720-9372, 3

사찰도서관

'신도·주민의 문화 공간'

조계사·불광사·인덕원 등 12곳 개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사찰 도서관. 기도와 수행 외에도 책을 읽으며 신심을 다지는 새로운 공간.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서울 불광사(주지 지암)가 사찰도서관으로는 최초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도서관 문을 열면서 사찰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을 갖춘 사찰은 전국에 12곳 정도(표 참조). 국내 사찰수를 1만2천여개로 추산할 때 0.1%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

사찰도서관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는 인사말로 안부를 나눈다. 지역 문화공간이자 화합의 장소인 셈. 신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역할도 사찰도서관의 큰 몫이다. 모두가 책을 읽는데 읽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에 이끌려 한 두 번 들르다보니 단골손님이 된다.

정보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 시간은 없고 읽어야 할 책들은 많아서 고민거리.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지는 그나마 행복한 고민이다. 사찰도서관은 이런 고민들도 간단히 해결해 준다. 바로 가까이 있어 마음만 낸다면 책을 손에 쥘 수 있다. 또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에 웬만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어 가벼운 상담만으로도 근기에 맞는 불서를 선택할 수 있다.

89년 문을 연 서울 사천왕사 도서관. 이곳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독서모임이 열린다. 벌써 7년째. 12명의 회원이 그 주에 읽은 책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부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기쁨도, 그저 눈인사나 나눴던 서로간의 사이가 가까와진 것도 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불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협지도 있고 만화도 있다. 삼천사 인덕원 도서관에는 장년층이나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드나든다.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만여권. 웬만한 소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즐비하다. 인덕원측의 적극적인 홍보로 호기심에 한 번 들러본 지역민들은 반드시 이곳을 또 찾는다. 사찰도서관이 지역민들의 포교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하지만 아직 사찰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도서관리 전산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서의 다양화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젠 모든 사찰들이 도서관을 구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회관이나 복지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책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불광사 주지 지암스님은 사찰도서관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한다.

사찰마다 도서관 만들기 나서야 '여론'
장서 다양화-도서관리 전산화도 숙제

사찰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면 일반 불자들은 다양한 불서를 손쉽게 읽게되어 '불서읽기 붐'도 조성되고 이에 따라 불서출판도 활성화되어 침체돼 있는 불교출판문화 육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찰 도서관 현황

도서관	보유장서	연락처
조계사	1천권	(02)720-1390
삼선포교원	4천권	(02)923-0582
불광사	2천권	(02)413-6062
관문사 금강불교대	5천권	(02)3460-5300
삼천사 인덕원	1만권	(02)385-8205
사천왕사	2천권	(02)939-3900
강남포교원	1만권	(02)539-2631
부산 삼광사	5천권	(051)808-7111
부산불교교육원	3천권	(051)466-4080
대전 녹야원	3천권	(042)625-1080
일산 원각사	3천권	(0344)913-7744
여수 석천사	5천권	(0662)666-1770



◇최근 문을 연 서울 불광사 도서관. 전산관리 등 모든 운영을 신도들이 맡고 있다. 사찰도서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다.

"6만5천 단어 수록…불교용어 집대성"

불교대사전 펴낸 홍법원 김정길대표

불자들이 경소 불교공부를 하거나 불서를 읽을때 가까이 하는 것이 불교사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온 〈불교학 대사전〉(홍법원 刊, 1988년)은 3만2천여개의 단어만을 수록하고 있어 '찾지 못했던 용어'들로 안타까움을 느꼈던 불자들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 나온 불교사전은 한문위주의 해석과 설명으로 난해하다는 평을 들었다. 좀더 많은 용어 수록과 우리말에 가까운 단어풀이가 아쉽기만 한 이런 문제점을 덜어낸 〈불교대사전〉(상·하권 홍법원 刊)이 나왔다.

"88년 〈불교학 대사전〉을 펴낸 후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아쉬움을 덜어내기 위해 10년간 작업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방대한 사전을 엮은 홍법원 김정길 대표(58).

〈불교대사전〉은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불교사전의 대표격이었던 〈불교학 대사전〉보다 두 배 정도 많은 6만5천여 단어를 수록했다. 단어설명을 현대어로 쉽게 풀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썼다. 동일한 용어는 다각적으로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88년 펴냈던 〈불교학 대사전〉이 한정된 단어에다, 한문 위주의 해석과 설명으로 또 다른 사전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한꺼번에 덜은 것이다.

각국 불교문헌 인용
팔리어등 원어표기
사재 7억여원 들여
10년만에 결실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등 원어를 표시해 일종의 원어사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롭다. 술어의 정확성은 물론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텍스트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직접 찾아내 원어를 표시했다. 인도인의 생활과 인도사상을 검토해 그 술어가 의미하는 바도 설명해 놓았다. 용어를 채집하는데 있어 기존에는 검토하지 못했던 불교경전의 한역문헌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의 중요한 불교문헌을 참작한 노고도 숨어있다.





10년이란 세월이 말해주듯 사전 편찬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제작까지 든 7억여원의 경비 마련을 위해 50평짜리 아파트가지 처분했습니다. 불철주야로 작업하다보니 당뇨와 시력저하까지 겹치더군요. 하지만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김대표는 이 사전이 널리 읽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불교출판에 발을 들여 놓은 30년 동안 불교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홍법원은 이번 〈불교대사전〉을 펴낸데 이어 〈밀교사전〉과 〈인명사전〉도 빠르면 연내에 펴낼 계획이다. 상·하권의 가격은 22만원이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김 용 옥	통 나 무
2	계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걜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5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제 열	여시아문
6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7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9	현대인과 선	양 기 봉	대원정사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독서의 달 1천3백여 행사 펼쳐져

독서의 달을 맞아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과 독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1천3백여개의 행사를 펼친다.

이중 관심을 끄는 행사는 24~26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98전국 도서관대회. 각계 인사 2천여명이 참석해 '책의 역사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기획이 마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6일까지 '세계 각국 언어 사전 전시회'를, 10월22일까지는 도서관문화학교를 연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교보, 종로, 영풍, 을지 등 서울의 주요 서점에서 30일까지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특별판매 코너를 운영한다.

부산 금정도서관은 '독후감 감상화 전시회'를 30일까지 여는 등 각 지역별 도서관들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새로나온 책



▲영혼을 다스리는 49가지 이야기=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과연 영혼은 있는가. 관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이 책은 이 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겐 관심을 끌만하다. 구명시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들로 구성돼 있으며, 구명시식과 인연이 된 이들의 원고를 묶은 것이다. 엮은이는 차길진 법사. 〈명지사, 8천원〉



▲내 남편 윤이상=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라는 평가를 받는 윤이상. 불교의 윤회사상과 동양의 노장사상을 음악을 통해 노래했던 사람. 이 책은 항상 가까이서 지켜 본 아내 이수자씨가 그의 삶과 고뇌 그리고 꿈을 고스란히 담은 책. 그의 음악과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통일의 간절한 염원을 아절한 사랑으로 써내려갔다. 상·하 두 권. 〈창작과 비평사, 각 권 1만원〉



▲내 스무살을 울린 책="만약 도를 이루지 못하고 즉어 해골이 되거든 이렇게 전해 주시오. 도를 구하려 노력하다 죽은 사나이의 해골이 여기 있다고." 경전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은 만화가 박재동씨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다. 이 책은 이해인 수녀, 시인 정호승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젊은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했다. 〈작가정신, 7천5백원〉

'입문서 코너' 개설
책방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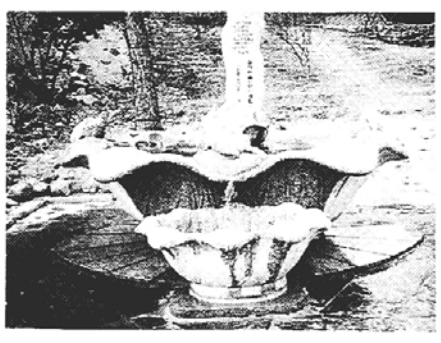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이 독서의 달을 맞아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11월22일로 예정된 조계종 포교사 고시를 준비하는 불자들을 위해 '입문서 코너'를 개설. 입문서 코너에는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刊)등 기초입문서와 〈한글 아함경〉(동국대출판부 刊)등 경전과 선 관련서, 불교교양서 등 모두 40여종의 책들을 선보이고 있다.(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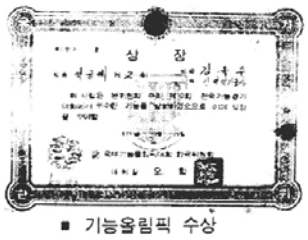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教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最新譯解·最善編輯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벳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고구려硏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

잊혀진 나라 발해 '조명'

한 · 중 · 일 · 러 학자 2백여명 참석

발해 건국 1천3백주년을 기념, '잊혀진 나라' 발해를 집중 조명한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발해의 유물 · 유적, 문화 등 발해사 연구에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는 11~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내 · 외 불교학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해의 불교와 불상'으로 발제에 나선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함과 동시에 모든 문물을 전승함으로써 건국 초기인 7세기 말~8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불상 양식이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경성에서 출토된 불상은 융성기인 8세기 것으로 당나라 불상의 양식과 수법을 느끼게 하고 있어 초기의 고구려적인 요소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수는 발해불상의 특징에 대해 "발해 전기인 9세기 초반까지는 당의 양식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으나 9세기 중반 이후 부터는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경대 소장 발해불상의 현상과 성격'에서 임석규 교수(동국대)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전시중인 발해 동경성 출토 '이불병좌상' 연구를 통해 "이불병좌상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독자성과 다양성"이라며 "기본적인 형식에서 같은 도상이나 중국의 상과는 다른 고구려의 불상 조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경용천부와 새로 발굴된 사리함(김태순 ·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등 총21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원효스님의 원융회통사상 21세기 정보시대 가치기준"

이어령교수 주장



"원효스님의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은 21세기 정보문명시대의 대러다임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 가치체계다."

'아시아적 가치는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4일 열린 한백연구재단(이사장 이항우) 국제심포지움에서 이어령 교수(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1세기 문명과 원융회통'을 통해 '원융회통'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정보시대를 열어갈 '키워드'라고 제시했다.

이교수는 "원(圓)은 서로 다른 가치의 조화와 균형으로, 서구의 가치체계를 각기 다른 가치가 평행적인 것으로 분할돼 있는 '삼색기'에 비유한다면 동양의 가치체계는 각각의 가치가 서로 어울려 원형을 이루고 있는 '삼태극'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융(融)은 만물일치의 융합사상으로, 오늘날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근대국가의 자유 · 평등 이념으로는 세계의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회(會)는 계약의 믿음보다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문화의 덕목으로 보는 동양적 가치"라며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 환경에서 계약의 세계와 신뢰의 사회는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通)에 대해 이교수는 "인간 · 세계 · 자연 사이의 소통으로, 유교문화의 '인(仁)'과 비슷하다"며 "광섬유 · 위성통신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가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자기와 타자, 그리고 우주를 함께 생각하는 '인'과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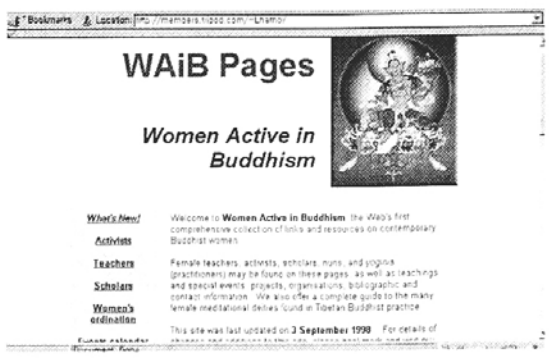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움에서는 동양사상이 동 · 서양 화합과 새로움 밀레니엄 준비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동아시아적 가치관'에서 라오거핑 교수(북경대 법학과)는 "최근 깊어진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곧 문명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동아시아 현대화의 뿌리가 된 심오한 전통문화는 지금까지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동아시아적 가치관을 형성, 발전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멍시 소장(중국문화연구소)은 '세기말의 도전:아시아적 가치의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시아적 가치에 위기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아시아적 가치가 도전을 맞은 것으로 본다"며 "현대화 목표의 실현에 따라 아시아적 가치는 진일보한 전개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가치에 관하여'에서 미소구치 유우조오 교수(일본 대동대)는 "근대 서양의 거울에 비친 동아시아의 모습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서구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편견 · 차별 등이 존재한다"며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역사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자각할 수 있"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여성운동

지구촌 여성불자 활동 등 소개 개설 1년만에 1만여명 '클릭'

자유 분방한 사이버 세계. 이곳에서 여성불자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탐험하고 그들의 활동을 소상이 열람한다면 네티즌 우바이들은 여성과 불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해 초 개설된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일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무려 1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각광받는 곳이다. 또 이 사이트는 미국인 여성불자 쥴리아 밀톤이 인터넷에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 홈페이지를 선정, 수여하는 '달마링'도 받았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여성불자 수계식 및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이 있다.

△상좌부 여성 작가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도 압축된 텍스트 파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다운로딩(가져오기)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80년대 미국의 서점가를 강타했던 릴리 디 실비아교수(美 렌실바이아대 불교학)의 〈세상에 남긴 발자국〉을 비롯해 실비아 부르스타인의 〈파라미스(Paramis)〉, 칸다시리스님의 〈끝없는 사랑〉, 엘리자베스 헤리스의 〈불교를 배우자〉 아웅 산 수지의 〈명상과 회생〉 등 40여권이 소개되어 있다.

△유명한 여성불자에서는 학술 · 문화계 여성불자, 상좌부 · 금강계 · 선불교 등으로 구분해 스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불교의 꽃을 피웠던 아야 케마스님도 소개받을 수 있다. 케마스님은 87년 세계비구니 대회를 개최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했다. 케마스님은 이 대회를 계기로 '부처님의 딸들(사카야디타)'라는 국제 여성불교단체를 결성했다. 케마(Khema)란 안정과 평온을 뜻하는 빨리어. 이외에도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을 소개하고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 속의 여성은 담마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의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한 인물 평전도 열람할 수 있다. △여성불자 수계식에서는 범어와 팔리경전을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 〈고독한 도반〉 등 수계와 여성 관련해 20여권의 서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구니로서의 삶' '티벳여성 보고서' 등 여성불자 관련 각종 연구서들도 소개한다.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벳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 중에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에카자티(Ekajati), 쿠루쿨라(Kurukulla)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카자티는 티벳불교계 닝마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다. 에카자티의 모습은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을 등으로 구상되어 있다.

http://members.tripod.com/~Lhamo/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학술심포지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 · 중 · 일 국제학술심포지움이 18~19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열린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는 유형 · 무형문화재와 관련,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 · 중 · 일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한병삼(동국대 석좌교수),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박범훈(중앙대 교수), 조유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상성(중국 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 우치다 히로야스(나라국립박물관장) 등이 참석한다. (02)260-3606

미술사학회 월례발표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김리나)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고구려 다각탑에 나타나는 의례적 요소(강병희 · 정신문화연구원) △조선시대 감로탱에 나타난 풍속화(이경화 · 홍익대) 등 3편이 발표된다. (02)884-0271

새문명아카데미 '밀레니엄 대학' 개설

(사)새문명아카데미(이사장 송희식)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밀레니엄 대학'을 개설한다.

새로운 2천년을 앞두고 밀레니엄의 의미와 정치 · 경제 · 문화 · 환경적 변동을 살피며, 이를 토대로 오늘의 한국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명창조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밀레니엄 대학에서는 '밀레니엄의 의미와 각국의 움직임'(김영수 · 순천향대) '밀레니엄과 환경재앙, 그리고 에너지 위기'(이향규 · 환경운동연합) '밀레니엄과 서구문명의 대전화'(이원호 · 신한종합연구소)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사회적 실험'(김찬호 · 연세대) 등을 주제로 13회 강연이 준비됐다.

강좌는 9월15일부터 10월29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개설된다.

송회식이사장은 "새로운 2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 · 서양의 문명전환과 세계 각국의 개혁정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대안 문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47-5982

오종욱 기자

중도-방편의 변증법 중용-유기체 평형원리

김수중교수, 현대적 재해석

'중도(中道)'와 '중용(中庸)'을 통해 유교와 불교의 본질과 그 사유방식의 핵심을 파악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주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제4차 세미나에서 김수중 교수(경희대 중국철학)는 '중용과 중도: 두 가지의 사유 패러다임'을 통해 "중도는 방편(方便)의 변증법으로써 선(禪)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인도적 사유의 패러다임, 중용은 유기체의 평형의 원리를 모델로 하는 중국적 사유의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것'이니까 살려야 한다는 고집보다는 현대문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대안의 모색 과정에서 '동양적인 것'이 재해석되고 다시 요구되어짐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를 '방편적 변증법'이라고 규정한 김교수는 그 의의에 대해 △무한과 절대의 문제에 접근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리 △사회적 · 종교적인 것, 세속적 · 성스러운 것에 대한 일체적 경향 △현실적 수행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도약의 수단 등으로 설명했다. 또 '중용'의 '중(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합하고 바르게 달라질 수 있는 '시중(時中)'의 사상이라는 것.

김교수는 "중도와 중용에 대한 비교는 역사적으로 차이점을 강조한 논쟁과 절충 가능성을 모색한 조화론이 있었으나 지금은 현대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때"라며 '중도'를 '권위주의에의 거부'로, '중용'을 '유기적 관계성의 회복'으로 재음미했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美 캘리포니아 교도소 '종교활동 자유로운 곳'

미국 교도소 중 종교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도소들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밝혔다.

총 33개의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도 · 이슬람교도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새크라멘토 교도소의 경우 수행실 · 기도실 등 신앙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채식과 같은 특별 식단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 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윌리암 로서(40)는 "교도소에서 개인적인 명상을 위한 소도구도 허가받아 소지할 수 있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불교에 더욱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한형조

무문관 열방

65

오조의 소꼬리

* 오조가 말했다. "가령 소가 창문을 지나간다 하자. 머리와 뿔, 그리고 네 다리는 지나갔는데, 어째서 꼬리는 지나가지 못할까."

* 나 혜개가 말한다. "만일 여기서 눈 한 짝을 거꾸로 붙이고, 전환의 한 마디를 내릴 수 있다면, 위로는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세 가지 존재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꼬리를 열심히 살펴볼 일이다."

* 송하여 가로되, "지나가면 구렁에 빠지고, 돌아가면 부서질 터. 이 꼬리란 놈, 심히 기괴하구나."

牛過窓 :

五祖曰, 譬如水牛過窓 . 頭角四蹄都過了, 因甚麼尾巴過不得. 無門曰, 若向者裏辨得一隻眼, 下得一轉語, 可以上報四恩, 下資三有. 其或未然, 更須照顧尾巴始得. 頌曰, 過去殭坑塹, 回來却被壞, 者些尾巴子, 直是甚奇怪.



그림 · 문병성

이번 화두의 주인공도 오조(五祖法然 ?~1104)이다. 천녀유혼(본지 제185호)과 외나무다리(본지 제187호)에서 만난 적이 있다.

번역은 우선 직역에 가깝게 해 놓았다.

1)소(水牛): 글자 그대로는 물소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석연치 않다. 물소는 중국의 북방이나 중원은 물론 남방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종류이기 때문이다. 화두의 배경이나 소품은 일상적인 것을 쓴다. 그래야 현실과 역설의 대비 효과를 극대치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종류는 거세된 수소나 암소를 가리키는 듯하다.

2)창령(窓欞): 그런데 그 소가 창문을 지나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소가 뭣하러 사랑이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인가. 게다가 나갈 때는 어째서 또 창문인가. 창문으로는 머리나 뿔, 그리고 사지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창령(窓欞)은 무턱대고 '창문'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령(欞)은 창(窓)과 마찬가지로 '격자무늬'를 가리킨다. 이를 참작하면 창령이란 나무판자나 통나무로 얽어놓은 소 울타리, 좀 더 한정하자면 그 울타리에 소가 드나들 수 있게 낸 출입구를 가리킨다.

3)눈 한짝을 거꾸로 붙이다: 눈은 본시 두 짝이다. 원근과 대소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조화옹(造化翁)의 배려이다. 그런데 선가에서는 이 한 쌍의 기관(器官)이 대립과 상대성의 한정된 세계를 고착시키는 불완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짝인 눈', 즉 일척안(一隻眼)이라고 했다. 영원의 전망, 절대자의 시각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시각은 상식과 일상의 닫힌 세계를 흔들고 뒤집는다. 그래서 '거꾸로' 볼 여야 한다.

4)네가지 은혜(四恩): 삼보(三寶)와 국가, 부모와 중생의 은혜를 가리킨다.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키우며, 또한 진리의 삶을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더없이 지극한 은혜를 가리킨다. 첫머리의 삼보는 불교가 중국화하면서 그들의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천지(天地)로 바뀌기도 했다. 한 존재의 삶은 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들 인연들의 자비와 도움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가 이만저만이겠는가.

5)세가지 존재(三有): 불교는 이 세계를 '참고 견뎌야할' 곳이라는 뜻에서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한다. 사바는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삼계(三界)라고 한다. 욕계(欲界)와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갈수록 견디기가 수월하지만 아직 삶의 흔적과 불건전한 정념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 그리고 지침을 준다. 자(資)란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화두의 상황은 이렇다. "소가 얼기설기 엮은 울타리를 비집고 나온다. 머리를 내밀고, 뿔이 빠져나왔다. 네 발도 무사히 건넜다. 그런데 정작 꼬리가 덜컥 울타리에 걸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오조의 물음이고, 또한 덫이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뿔이나 사지가 건너갈 정도의 울타리라면 꼬리야 무사통과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조는 그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유추를 용납하지 않는다. "꼬리는 건너지 못한다."

소가 울타리를 건너듯 우리는 세상을 건넌다. 섭세(涉世)는 그래서 위태롭고 위험한 게임이다. 살짝 낀 개울의 얼음판을 디디자면 남다른 주의력과 조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전긍긍 발밑을 살피고 도명(圖命)하느라 우리는 정작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다. 선은 이것이 목숨보다 더한 무엇이라고 강조한다. "더 늦기 전에 일상적 루틴에 묻혀 새어나가는 영원의 가치를 찾아라." 시도는 각자의 몫이다. 혜개는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기괴한 물건이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냥 지나가다간 구렁에 빠질테고, 아차 싶어 돌아가다간 꼬리가 남아나지 않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진리 보려면 또다른 눈 필요

일상에 묻혀 새나가는 '영원의 가치'를 찾아라

그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로 쉬운 팔정도



25

정념④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숨결과 마음에 쏟는 집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집중력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벽, 마루, 숨결 등을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족하다. 몸의 기본적인 감각기관의 작용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금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모든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숨결은 흉부와 복부에서 공기가 괭창하면서 일어나지만 이것은 매번 동일한 압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유정물의 본성은 육체의 작용에서 파악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나마(nama), 루파(rupa)라고 한다. 루파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어떤 변화를 지켜볼 때 지각하는 육체적 요소이다. 이때 마음을 현미경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는 순간 그 경험은 고정되며 우리는 과학자가 현미경을 사용하듯이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웅덩이를 휜히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가재, 다슬기 등 수많은 유정물을 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자각을 동반할 수 있다면 숱한 감각의 변화는 마음의 작용으로 녹아들 것이다.

보는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시각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이 합쳐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만 생각한다. '보는 것은 나다' '보이는 것은 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마음을 현미경처럼 사용
> 감각기관의 작용을 보라
> 사물의 참주인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보는 행위에서 '나'를 제거해야 한다. 바라보는 것에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움직임 변화 등의 모든 행위들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구부리려고 하면 손이나 발의 움직임이 안쪽으로 일어난다. 마음이 펴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일련의 움직임 또는 그에 따른 각각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물론 이것들은 쉬 사라진다.

마음을 놓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그 과정을 주시하라. 처음에는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진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 즉시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물들이 어떻게 그처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마음집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사물의 참주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고 몸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이고 몸은 몸의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몸을 보고 늙지 말라고 하면 몸이 그 말을 듣던가? 그대의 장이 탈을 일으킬 때 그대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던가? 우리는 단지 이 집을 빌려쓰고 있을 따름이다. 누가 정말 그 진정한 주인인지를 왜 찾아보지 않는가?

눈푸른 납자 한 사람이 아잔차 스님에게 마음작용을 물었다. 아잔차 스님은 "내가 보기에 마음은 우주의 중심이며 마치 하나의 점과 같고 마음의 상태는 잠시 혹은 장시간 여기에 머물려고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 이 손님을 잘 알아두라. 자기네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들이 그려보이는 생생한 그림들과 그들이 늘어놓는 그럴싸한 꾀임의 언사들을 환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대가 차지한 자리를 내어주지는 말라. 그대가 발붙일 곳은 거기 뿐이니까. 그대가 부단히 한눈 팔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아주고 알아차리고 수행을 확고히 하여 그대의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 방문객들은 결국 발걸음을 끊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방문객들 쪽으로 눈길을 나누어 보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마음작용 하나하나를 잘 알게 되고 마음의 평온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번역=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⑰④

불교와 수학

69

절대와 상대

김 용 운

지난 이란전쟁 당시 미국의 전차대가 사막을 질주하며 이란군을 섬멸했었을 때의 광경을 TV에서 본 바 있다.

당시 미국 전차부대 장병의 안주머니에는 〈구약성서〉 시편의 한 구절 '신은 사람과 뱀을 짓밟고 진군한다'라고 적힌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미국과 이라크는 공통적으로 사막의 풍토에서 태어난 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차없이 싸운 것이다. 유태교의 신 여호와는 절대자이다. 그는 모세에게 이집트인이나 가나안의 전 주민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귀띔했으며 그의 군대는 그 분부대로 집행했다.

신은 절대적이기에 모세는 서슴없이 신의 명에 따른다. 한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코란〉의 정신을 받들어 '성전(지하드)'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때의 전쟁은 절대자(신)를 등에 업은 종교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교, 기독교는 절대자(신)를 받드는 종교이며 〈구약성서〉를 공유한다. 한결같이 절대자를 구상하면서 그 해석의 차이가 문명 내용을 다르게 했으며 서로가 치열한 적대감정을 갖게하고 있다. 예전에는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었다.

한편 불교의 기본은 '공(空)'이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아닌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자를 신봉한다는 뜻에서 이들 사이에는 다름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가 아니면 상대라는 이분적인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 이슬람 · 기독교는 절대신 신봉
> 초월 · 관념의 세계에 삶 의탁
>
> 불교 기본사상은 空(0) 철학
> 상대를 수용 갈등 · 모순 해결

이것과 관련해서 수학적 사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空)의 철학은 수학의 측면에서 제로(0)로 생각 할 수 있다. 0 속에는 플러스 억과 마이너스 억이 등시에 들어간다. 어떤 유한 수도 0과의 곱은 0이며, 0은 나누면 0이 된다. 공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므로 근원이다. 무한대, 무한소, ……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동시에 무한대, 무한소를 태어나게 한다. 같은 이유로 대우주도 공에 포함되어 그 속에서 나왔다. 그렇기에 절대일 수 없다. 절대가 아니면 상대라는 것은 속단이다. 상대란 +와 -, 긍정에 대한 부정의 구조인데 공은 +, -를 등시에 내포하는 상대의 총합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것 모두를 내포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는 '절대불이(絶對不二)'는 +도 -도 함께 포함하고 낳게 하는 상대의 총합이며 절대가 +, 또는 -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희랍의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의 근원은 수'라 하며 수를 절대화함으로써 좌절했다. 피타고라스가 절대화한 수는 유리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전체이다. 그는 천체의 운행, 계절의 주기, …… 등 모두가 수로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수를 절대화한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수는 불교 철학이 -를 수의 근원으로 삼으면서도 절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고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는 공통의 절대자 신이 있다. 이 신에 대한 해석은 달라도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절대란 실제로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일단 그 존재를 얻는다면 현실을 초월한 가공의 가치, 또는 관념의 세계에 삶을 의탁케 한다. 일단 절대화된 개념을 한 자리에 찍어 놓으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기하학과도 같은 논리정연한 신학의 세계가 전개된다. 한편 불교는 상대의 총합인 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어디에도 점을 찍을 수 있고 동시에 찍을 수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상대의 총합 세계이다.

유럽의 여러나라 국기에는 십자(十)가 그려져 있다. 이들 나라는 반석과도 같이 기독교의 기반위에 있다. 절대에 대한 신앙의 기반위에 국가가 있는 것이므로 나라의 이익, 타산(?)이 절대화된 신앙의 기반에 접목되면서 십자군전쟁, 마녀사냥, 이단 재판이 가능해진다.

최근 지식인 사회에서 미국 하버드대학의 헌팅턴 교수의 〈문명충돌론〉이 자주 거론된다. 헌팅턴에게는 절대자를 배경에 둔 문화가 있다. 절대화된 신을 믿는 풍토에서 이악이 반대되는 나라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절대의 신봉은 모순과 갈등을 낳는다.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핵실험이 행해질 것인가. 세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상대의 총합을 내세우는 공존의 지혜가 해결할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 영결식이 7일 봉원사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보성스님 영결식 1천대중 참석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 영결식이 7일 오전 10시 산촌 봉원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다비식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원주 보림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태고종 원로 만봉스님 송암스님,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원효종 종정 법홍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승정 덕암스님은 영결식 법어를 통해 "보성종성 예하시여, 그 크신 은혜와 공덕, 가르침으로 우리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상실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사회질서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밝은 세상 깨끗한 국토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월서스님(재심호계 위원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수행과 학덕을 겸비하신 큰 지도자이셨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염원을 듣고 스님의 미래면목을 시현해 주십시오"라고 추모했다.

오후 2시 법구가 원주 보림사 다비장에 도착하면서 엄수된 다비식은 재문낭독에 이어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 거화의식, 하화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례위원회는 9일 현재 1백30여과의 사리를 수습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원로스님들

茶毘 몸은 다시 물·불·바람·흙이 되고…

'죽음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다비식 생사관 따른 장례절차


◇연화대 설치 방향 잡기.


◇오방수 준비.


◇오방수 향아리 묻기.


◇연화대 기반 작업.


◇참나무를 쌓은 후 짚으로 싸기.


◇짚과 가마니로 둘러싼 연화대.

우리 몸은 죽어 어디로 가는가.

〈아함경〉에서는 열반의 길을 4대(大, 지(地)수(水)화(火)풍(風))로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며 화대(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모두 무너지고 부숴져 모든 기관은 공(空)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4대로 돌아갈 육신에 대한 애착으로 화장대신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유교의 전통이 뿜에 밴 우리나라도 매장문화의 뿌리가 매우 깊다. 때문에 전국토의 1%, 서울면적의 1.6배가 묘지로 뒤덮혀가고 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의 국토가 묘지로 조성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묘지문제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화장문화가 그 대안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개혁실천범국민국민협의회와 함께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비(茶毘)'는 불교적 가르침이 담긴 독특한 화장 장례의식이다. 다비는 범어 자피타(Jhapita)의 음역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다비는 선업(善業)을 닦아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한 장례절차라는데 큰 뜻이 있다. 가합(假合)의 4대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감으로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각은 다비식을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엄숙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비의식의 과정은 다비장 조성에서 쇄골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다. 다비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은 없으며, 전래되는 관습에 따라 다비장 설치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다비장은 연꽃모양으로 조성되는데 먼저 터를 고른다. 그 뒤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부처님(오방불, 五方佛)께 귀의하고 사리 수습을 위한 오방수(五方水)를 묻기 위해 땅을 십자로 파 오방수 항아리를 묻고 가름을 뿌린다.

동근 구릉에 푹 파묻힌 형세인 다비장의 연화대는 높이 60cm가량으로 밑바닥은 구멍뚫린 철관, 위는 콘크리트, 가운데는 법구가 모셔질 빈공간을 남겨두고 조성한다. 그런 다음 연화대는 다비식날 법구가 들어갈 입구만 남겨놓고 높이 2.8m, 직경 5m, 둘레 10m 정도가 되도록 참나무를 층층히 쌓는다. 참나무 더미를 짚으로 그 둘레를 쌓고 가마니를 씌운 후 기름을 부어 태우도록 한다. 연화대를 다시 흰색 무명천으로 빙둘러 감싸고 그 위에 창호지를 바른다. 그 위에 연잎을 덮는 것으로 다비장 준비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연화대는 말그대로 큰 연꽃이 된다. 다비장의 조성과정과 규모는 경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범해과 교수 명수스님은 다비장을 연꽃모양으로 꾸미는데 대해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중생이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구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재문낭독에 이어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을 거쳐 불경이 독송되면서 참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화, 이를 연화대에 붙이는 하화가 거행된다.

이 때 거화편을 영송한다. '이 불은 소목의 불이 아니라 여래일등삼매(如來一燈三昧)의 불이니…, 이 빛을 보고 지옥의 광명을 돌이켜 무생을 깨달으라.'

불은 1월·5월·9월에는 서쪽부터 거화하고 2월·6월·10월은 북쪽부터 놓으며 3월·7월·11월에는 동쪽에서부터 놓고 4월·8월·12월에는 남쪽에서부터 놓는다. 이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봉송의식(奉送儀式)을 행하고, 죽은 이의 영혼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것을 바라는 창의의식(唱衣儀式),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수습하여 분쇄하고 흩어버리는 기골(起骨)·습골(拾骨)·쇄골(碎骨)의식을 행한다.

'한번 뒤집으니 허망한 몸뚱이가 마음대로 구르며 찬바람을 일으킨다. 취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가. 뜨거운 불 속에 한 줌의 황금빛을 이제 쇠소리가 항그렁하며 뼈들을 부수어 청산 녹수에 뿌리노니 불생불멸의 심성만이 천지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이다.' 이렇게 법열의 환희심이 다비장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환귀본토진언(還歸本土眞言) '옴자나 사다모'를 염송하며 영가가 보련대(寶蓮臺)에 오를 것을 발원한다. 월인스님의 영가시어(靈駕示語) 한 구절은 다비의식의 의미와 염원을 간결히 전해준다.

"법신은 온 세계에 가득차서
인간과 천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따라 달 그림자 못 속에 나타나듯
마른 몸을 연대에 앉히소서."


◇흙과 물, 불, 바람이 인연따라 모였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다비의식은 이 자연회귀의 인연법을 따르는 불교의 장례법이다.

글=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무명천과 창호지를 바른다.


◇연잎 붙이기.


◇큰 연꽃 모양을 한 연화대.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


◇불을 붙이는 거화의식.


◇습골(사진제공=선암스님)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생사품(生死品) ③

性癡淨常想 성치정상상
樂身想疑想 락신상의상
嫌望非上要 혐망비상요
佛說是不明 불설시불명

성품이 어리석어 깨끗하다, 항상되다
즐겁다 몸이다 생각하고 의심도 해보지만
꺼리고 바람은 다 좋은 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는 무명이라 하셨네

一本二展轉 일본이전전
三垢五彌賡 삼구오미광
諸海十三事 제해십삼사
淵錦越度歡 연소월도환

본래 하나인데 둘이라며 굴리니
신·구·의, 오온의 때 더욱 넓어진다
열세가지 행법을 잘 닦아서
깊숙한 번뇌 다 녹이면 건너뛰어 기쁘다

三事斷絶時 삼사단절시
知身無所直 지신무소직

본래 하나인데 둘이라며 굴리니
신구의·오온의 때 더욱 넓어진다

命氣溫煖識 명기온난식
捨身而轉逝 사신이전서

탐진치 세가지 일 끊어진 때엔
이 몸에 바를 것 없는 줄 알게되니
따뜻한 목숨기운과 나의 의식은
그 몸 버리고 계속해서 굴러 간다

當其事臥地 당기사와지
猶草無所知 유초무소지
觀其狀如是 관기상여시
但坵而愚貪 단환이우탐

그 일 당해 땅에 누우면
마치 초목처럼 앎이 없다
그 모양이 이와 같음을 보면
다만 허깨비인걸 어리석게 탐하네

도리품(道利品) ①

人知率其上 인지봉기상
君父師道士 군부사도사
信戒施聞慧 신계시문혜
終吉所生安 종길소생안

사람은 윗사람을 받들줄 알아야하니
곧 임금·아버지·스승·도인이다
믿음·계율·보시·법문·지혜로 받들면
끝까지 길하여 나는 곳마다 편안하다

宿命有福慶 숙명유복경
生世爲人尊 생세위인존
以道安天下 이도안천하
奉法莫不從 봉법막불종

숙세의 업에 복과 덕이 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 존귀한 사람되어
도로써 천하를 편케하니
법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이 없다.

王爲臣民長 왕위신민장
常以慈愛下 상이자애하
身率以法戒 신솔이법계
示之以休咎 시지이휴구

임금은 신민의 어른이다
항상 자비로써 아랫사람 사랑하고
법과 계율로써 낸 몸 이끌어
허물 짓지 않음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處安不忘危 처안불망위
慮明福轉厚 여명복전후
福德之反報 복덕지반보

不問尊以卑 불문존이비

편안함에 처해도 위험 잊지않고
사려 밝으면 복이 두터워진다
복과 덕의 그 되돌아 갚음은
높은 이 낮은 이 묻지 않는다.

夫爲世間將 부위세간장
修正不阿枉 수정불아왕
心調勝諸惡 심조승제악
如是爲法王 여시위법왕

무릇 이 세상 거느리는 이 되었거든
바름을 닦아 굽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조섭해 모든 악을 이겨내라
이같이 하면 곧 법왕이 된다

見正能施惠 견정능시혜
仁愛好利人 인애호리인
旣利以平均 기리이평균
如是衆附親 여시중부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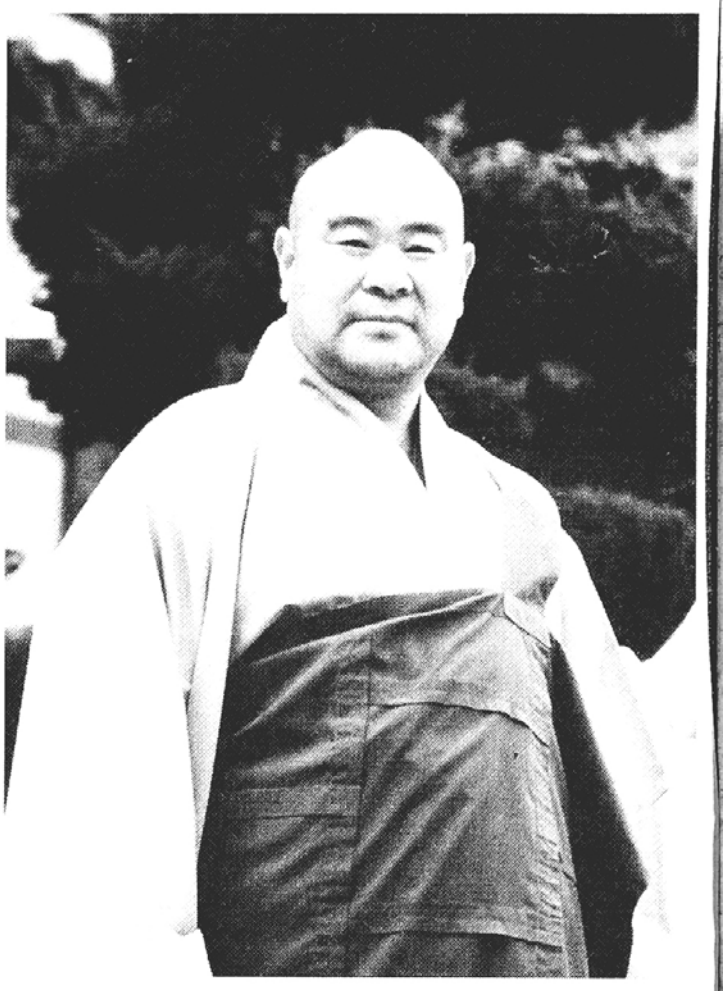
바른 법 보아 능히 은혜 베풀고
어질고 사랑하여 남이 이익되길 좋아하고
이롭게 하되 고르게 하라
이같이 하면 무리가 붙좇고 친애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스스로를 옭아맨

덕명스님 〈안적사 주지〉



약력
- 1926년 울산 生
- 51년 범어사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해인사 범어사 강원서 공부
- 74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75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 78년 범어사 주지
- 80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맡음
- 97년 〈범망경보살계본〉 역음.
- 現 부산시 기장군 안적사에 주석

이렇게 산중 깊은 곳에 고요히 앉아 있지만 세상소식은 다 들려오는데 요즘 어렵다고들 많이 그러더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 마음의 여유마저 잃고 너무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다 어려웠던 때를 한 번쯤 되돌아 보면 지금의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가 나오리라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베살리의 대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베살리 사람들을 칭찬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살리국이 두 개의 큰 왕국사이에 끼여있어서 항상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치체제를 잘 운용하고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이곳 사람들은 밤에는 짚을 베개삼아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할 틈을 찾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장차 그들이 유약한 생활에 빠져서 푹신한 침소에서 새털 베개를 베고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잠을 잔다면 금방 침략의 틈을 주고 말 것이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어찌 국가를 지키는 데만 국한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 푹신한 침소에서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잠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 보다는 있는 사람들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 해결에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본래부터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더 가질려고 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욕망보다는 사회, 국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출가하던 당시는 해방직후라 여러 가지로 혼란기였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지요. 속가 살림살이는 우리집뿐 아니라 누구나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어머니가 칠남매를 낳으셨는데 외대에 다니시던 큰형님께서 학도병으로 끌려가 돌아가시고 나니 허탈감이 크셔서 나를 절에 보내셨어요. 절에 가면 명(命)도 잇고 공부도 할 수가 있다며 절에 가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때 공부라고 하면 책이나 글을 배우는 것으로 알았는데 차차 글이나 교리가 아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겠다는 원력을 내게 되었죠. 그렇게 나를 절에 보낸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들에 대한 정이 그리워 숨어서 공양주하는 나를 지켜보곤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범어사에 다니러 온 어머니 친구분들께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아는 척을 안하셨나 했는데 나를 몰래 지켜보고는 돌아서 가신 어머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이제는 감사할 뿐입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정에 이끌리게 되고 내 공부에 장애가 될까봐서였지요.

절에 들어와 이제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사이신 동산스님의 가르침은 특별하고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스님께서는 범어사 조실로 계실 때 칠십 노구에도 새벽 3시 5분전이면 반드시 일어나 세수하고 모든 법당을 참배하셨습니다. 예불드리고 같이 정진하시고는 아침 공양후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시는 겁니다. 조실스님이 앞장을 서시는데 다른 스님들도 자연 안 나올수가 없는 것이었죠. 조실스님께서 몸소 마당에서 비질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게으름을 피울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스님은 무엇보다 내상좌 남의 상좌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든 정진하고자 하면 받아들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더 가지려다 더 편안하려다 오히려 사는게 힘들어 졌어요 더불어 사는 마음 회복해야죠"

어려운 시절이라 범어사 살림살이도 예외가 아니어서 때거리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 들였어요. 한때는 백5십여명이 공부한 적도 있었지요. '하늘이 알아서 식량을 대준다'고 늘상 말씀 하시며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수제비나 보리죽을 나누어 먹었죠. 그렇게 넉넉하고 자비로운 스님이셨지만 공부 점검에는 매우 엄격하셨지요. 삼십대 초반 파계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5명정도가 같이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죠. 저녁 공양후 자는척 하다가 몰래 좌선하려고 일어나 보면 벌써들 다들 앉아 있곤 했어요. 그렇게들 열심이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거울삼아 서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죠. 좌선을 하다 졸음이 오면 잠시 걷다 들어가곤 했는데 그렇게 두달여 지난 음력 6월 보름날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잠시 나왔는데 솔바람이 불어오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데 바윗돌에 앉아 있자니 스스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전후좌우가 뚝 끊어지는 경지가 되더군요. 바로 무아경이라고 할까요. 그때 게송을 적어 동산스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범어사에 돌아와 문안을 드리고 앉으니 동산스님께서 "싱거운 놈, 뭘 글을 적어 보내고 그러노" 하시더군요. 그래 어떻게 경가를 해 주시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 게송은 그만두고 여자출정지화(女子出定之話)를 일러보아라"하시는데 그만 한방 맞은 겁니다. 그래 얼른 삼배를 드리고 물러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저에게 "도적놈"하시길래 "큰 도적놈 되겠습니다"했어요. 그때 스님께서 "공부 잘해"하시던 그 격려를 지금껏 놓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겠다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 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오대산, 도리사, 해인사, 파계사, 강진 만덕사 등지에서 용맹정진했지요. 도반들과 함께 이 몸 받았을 때 제대로 공부해 보자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옥산동 소재
◇대지 : 상가겸 126평(도로 인접, 철도 굴다리옆)
◇법당 : 가건물 40평 요사 : 25평 (※시설완비)
◇가격 : 1억 5천만원(전세 4천만원, 월세가능)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밀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 포교용도로 시설설비후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현 7천만원 농협 융자 포함)
0346)62-6903/011)308-4225
02)215-7978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2,500만원
053)767-5635
※ 토굴터 및 묘터 최적지임. (남해 서면 정포리남해바다 및 묘도 보임)
◇부지 : 1,775평 준농림지 ◇가격 : 2,500만원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인천시 숭의 2동
법당 : 17평
요사 : 28평 방3칸, 욕실 3칸
가액 : 전세 1,000만원
시설 : 이사비용만 부담 요함
◆위치 : 김천시(사찰겸 농장)
부지 : 3,000평(유실수 500주)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가액 : 전세 5,000만원
◎ 각 사찰 공히 부처님 전법도량이므로 스님의 무속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원, 사정상 양도하실 스님이나 인수받으실 스님은 부담갖지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함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토목완료)
◇면적 : 총 5,900㎡ (1,785평) - 준농림지역 (이중 400평은 건축 허가 완료 및 전용 부담금, 세금 납부 완료)
◇환경 : 전망 최고, 현지에 작은 계곡있고 3~5부 능선 (전원주택 및 별장도 적합)
◇교통 : 대전↔청주 국도(4차선)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분 거리 청주에서 10분, 대전 광역시에서 25분청원 톨게이트에서 5분
◇도로 : 4차선에서부터 4~5M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 1,785평 × 11만(주변 시세보다 50% 저렴)
011)484-4555/012)453-4555/자택 0431)257-3573

사 찰 안 내
◇위치 : 진주시내 산엎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금년도 신축
◇대지 : 300평(가격은 상담후절충)
0591)746-7350/017)552-7350
김 강 철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재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회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外的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등은 기술할 수 없음으로 요약하건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의 體內에는 수많은 성장세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촉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으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차츰 늙음을 향해가는 노쇠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뉘라서 막겠는가? 그런데 旣成醫化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體세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즈음은 의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문 요청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事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동참 하실분에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름으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연락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437-4136 , 437-4135

큰스님 수행한담

탐진치의 끈 푸세요”



◇1957년 보살계를 마치고 동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한 덕명스님(맨 왼쪽 끝)

‘나의 불성을 밝히겠다’ 각오로 참구하고 마음공부 하세요 정진에는 승가재가 따로 없어요

불법은 모든사람에 차별없이 열린 문 “자신 방생해야 일체법의 실상 알아요”

때 성불하리라는 다짐으로 밤잠 안자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즐겁고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께 정진하던 많은 스님들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도반이 있어요. 인곡스님의 제자였고 혜암스님의 사제였던 혜곡스님은 같이 강원에서 공부할 때 하루에 2장 외우기도 쩔쩔매는 경전 40장을 토도 없이 외워 주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비범한 분이였죠. 〈법화경〉 7권을 모두 외울정도로 열심이셨던 그런 분이었죠. 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지 부산 금정사에서도 함께 지낸적이 있었는데 나는 폐디스토마에 걸려 있었고 혜적스님은 결핵으로 앓고 있었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병세가 악화되어 각혈이 심해져 그당시 하늘에 별따기 였던 진찰권을 하나 얻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혜적스님이 아주 부러워 했는데 그때 선뜻 그 진찰권을 건네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돼요. 그때 내가 그 진찰권을 줬더라면 혜적스님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도반을 잃지 않았을 것을... 하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들어도 공부끈을 놓지 않는 납자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변변히 먹지를 못해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빨리 이룰려는 욕심이 커서 병을 많이 얻었어요. 은사스님께서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늘상 일러 주시며 특별한 것에서 공부를 찾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도 왜 그리 마음이 급했는지…. 직녀가 베틀에서 실을 짜듯이 공부하라고 일러주셨는데도 젊은 혈기에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참선을 하면 금방이라도 성불을 이룰 것처럼 제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병을 얻고는 했죠.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 즉 성불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결코 쉬지 않으리라는 정신으로 꾸준히 생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경전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어 일체의 선법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진각 혜심스님도 확고한 믿음이나 뜻을 세우지 않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거나, 반은 나아가고 반은 물러난다면 지혜를 증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출세간의 큰 인물이 되려면 모름지기 척추를 세워 단단한 것은 강철을 녹이고 두들겨서 만들듯이 나약한 마음도 내지 말고 물러설 마음도 내지 않고 진리의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일체의 시비를 떠나야 합니다.

한때 범어사 주지직도 맡았지만 이렇다 할 무엇을 이룬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성격적으로 책임을 맡으면 완수해야 하고 남보다 잘하고 싶은 승부욕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범어사는 빚도 많았고 중간에 사기꾼들이 끼어들어 절땅을 속여 팔아버려 땅을 많이 잃어 버린 상황이었죠. 그 땅을 되찾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덤비고 보니 10만평 정도의 땅을 되찾는데 피고가 200명이 넘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진해 3만평 정도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세금만 부당하게 부과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삼보를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불교연합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종단별로 활동을 하는 것 외엔 협의기구가 없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불교의 힘을 결집하려면 연합 기구가 하나 필요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종단별로 어른 스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뜻을 말씀드렸죠. 다른 종단 어른들이 참 기뻐하셨어요. 먼저 찾아 와서 인사를 하는, 하심하는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시장에게 종단 책임자와 실무자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 모임을 갖게 되었지요. 부산시장은 자리만 만들고 슬그머니 빠지고 내가 시장님이 우리를 모아 준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 연합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부산불교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이후 불교의 공동관심사를 같이 의논하고 힘을 모아 부산시의 불교행사를 같이 치를 수 있어 불교단합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 백양사에서 무차선회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요 그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본래 불교자체가 무차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본래 차별이 없고 모두에게 다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지식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치 않고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요즘 출가자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종단차원에서 학교를 만들어 어릴 때부터 원하는 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해 승려의 자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고졸이다 대졸이다 하는 학력보다는 인격적인 내면이나 승려로서의 신심이나 각오가 얼마나 깊은 지가 먼저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위주의 교육에 물든 이들이 갑자기 승려의 길을 간다고 해서 참다운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스님이 되어야만 깨달을수 있는가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진에는 장소구별이 따로 없고 승가 재가가 따로 없습니다. 영화관이나 자동차 안이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참구하는 힘을 잃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재가자니까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그 마음이 바로 자유로운 본래 마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스스로 태어났으니 스스로 당당히 걸어갈줄 아는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불법입니다. 일상생활중에서도 ‘나의 불성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참구하고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절에는 ‘방생회’라고 4백5십여명이 가입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방생이라 하면 흔히들 잡은 고기를 놓아주는 것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방생된 삶이란 원융무애한 참다운 삶을 말합니다. 탐진치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탐진치만 없앤다면 스스로를 옭아맨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묶고 있고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방생이고 해탈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흐려 있지 않을 때, 노여움으로 끓고 있지 않을 때,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지 않을 때,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볼수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정견(正見)이며 일체법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 여실지견(如實之見)을 얻을려면 우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흐려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심성을 밝히면 바로 부처라 했으므로 자기 자신의 탐진치만 방생하면 바로 해탈이 되는 것이죠. 모든 불자들은 스스로를 방생하고 해탈을 얻는 참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성내지 말고 베풀어라’ 평생좌우명 경주문화엑스포 홍보는 전생 인연

얼마전 나는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과 동시에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98경주문화엑스포의 홍보담당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천육백년 불교역사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곳으로 불자인 내가 경주에서 우리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전생과 금생의 크나큰 인연이 아닌가 싶다.

나의 23대조 할머니는 설총의 손녀이다. 나는 원효대사의 외손인 셈이다. 이같은 집안내력으로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해 왔다. 우리 어머니 역시 독실한 불자로 시집을 와서도 일심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그 공덕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8남매인 나의 형제자매 역시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 지금껏 불교에 귀의해 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70년대 초 나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종사했었다. 그때 점점 물질문명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인간의 정신문화가 황폐해지고, 민족의 정기가 사라지고, 가치관이 전도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 존립의 근원인 가정의 존립도 위태위태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정신문화 선도 없이는 어떠한 행복과 안정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줄 우리민족의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불교였다. 1600년 우리나라의 불교역사가 바로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삶의 토대를 일궈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교는 절하고, 시주한 만큼 복준다는 잘못된 기복불교로 흐르고 있었다. 정법불교를 홍보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교화사업을 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78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를 문공부에 등록하고 회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로서는 최초의 정부등록 청소년 단체로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렇게 교화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도량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본관인 경북 성주에 대흥사라는 절을 지어 종단에 헌납하고 청소년 교화도량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불교는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의 마음자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경전, 법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다. 한절에서 7일 기도를 하던 중에 내게도 유사한 경험이 찾아왔다.

1974년 말 추운 겨울 아침, 법당에서 2시간동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기도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법당에 들어와 뒤에 앉아 계속 내게 말을 하길래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스님의 말씀인즉 ‘모든 일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행하면 이롭다. 죄를 짓지 말아라. 성을 내지 말아라. 베풀어라. 그러면 다 되는데 뭐하러 여기 앉았느냐. 달로만 불교를 믿고 행하면 믿는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기거하던 방에 들어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똑같은 스님의 말씀을 반복해 들으며 꿈인듯 이상한 형상이 내앞을 지나갔다. 친구 2명이 새차를 타고 가고, 나는 헌 지프를 타고 가는 꿈이었다. 그때 그곳에서 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일순간 평소 생활속에서는 성질이 급해서 작은 일에도 참지못하고 화부터 내고, 남을 배려하는 법없이 그저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권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차츰차츰 내 행동과 말씨와 모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치게 되었다. 환청인듯 내게 들려왔던 그 스님의 말씀을 현재도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한 후 나는 바로 절을 나와 절을 짓고, 청소년 교화사업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계속〉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목판·동판·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한국 수액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체,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험·사·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를 합니다
저희 남편도 오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장도 엷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등
☎.3437-8282

악귀 내쫓고 청정도량 외호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5

신중

사찰엔 온갖 신들(神衆)로 가득차 있다. 사천왕을 비롯해 제석천, 범천, 금강역사, 산신 등…. 왜 거룩한 제불보살님을 모신 도량에 신들을 모셨을까?





◇귀면문이 서겨진 불국사 문고리(사진 왼쪽)와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방일한 마음 경책·도량 지킴이 역할

염라대왕 죄업 심판 상벌주는 일 맡아

신 중 불법·법사 호위하는 선신

"사찰을 외호하고 악귀를 내쫓아 사찰을 청정도량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방일한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고, 또 이 수호신이 지키는 사찰을 모든 악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청정한 장소라는 신성관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귀신이라고 해서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귀신이란 글자가 귀(鬼)와 신(神)으로 짜여졌듯, 사사스럽고 악한 마귀(鬼)와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착한 신(神)의 뜻이 합쳐져 있다. 저주와 공포, 경책과 보호와 지켜줌의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사찰이나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귀신은 모두 긍정적 의미의 것들이다. 민간에서는 터주(땅의 신), 조왕(부엌과 불의 신), 성주(가옥의 신) 등이 있다고 믿어왔다.

여느 신들과는 달리 수호보다는 심판의 의미를 갖는 염라대왕도 불교의 신이다. 염라국에 머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여 상벌을 주는 일을 주재한다. 야차(夜叉)는 염라대왕의 졸개로 지옥에서 죄인을 다스린다. 불교의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쌍계사 신중탱화.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는 신중들을 묘사했다.

■ **귀면문(鬼面紋)**

불국사 문고리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의 귀면문을 통해 잡귀를 몰아내는 방퇴잡귀(防退雜鬼) 또는 벽사로서 불교에 차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괴이성과 수성(獸性), 주술적 조형성이 강조되었다.

"그 목적은, 인간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 사악한 것을 억제하고 나태함과 권태로움을 쫓으며, 흥을 돋우어 신성한 영역을 보존하고, 그 신성성으로 상징되는 마음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다."(이부영, 한국문화상징사전)

귀면문의 원형은 중국 고대사회의 조신제(祖神祭) 가운데 지하의 망령을 달래는 원시 주술적인 진혼(鎭魂) 의례 때 쓰인 제기에 그려넣은 도철문에서 비롯된다. 상상의 동물인 도철은 눈이 크고 이빨이 튀어나온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각이 예민하여 어떤 사악한 마귀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귀면문은 중국의 그것처럼 괴기스럽거나 공포감을 자아내기보다는 인간적이고 해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신구에 새길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불국사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외에도 평양 금강사지, 부여 가탑리사지, 발해 용천부 제1사지 등에서도 귀면와가 출토됐다. 한편 귀면기와를 도깨비 기와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발표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제석천·범천·금강역사**

법회가 있을 때마다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겠다고 서원한 선신중(善神衆)으로 불교의 의식(신중작법)과 조형물(신중탱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중에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 금강역사 팔부중이 모두 포함된다. 인도 재래 토속신앙의 토착신들인데 불교에 습합되어 불교화했다.

△제석천: 고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부터 부처님을 호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석굴암의 제석천상이 가장 유명하다.

△범천: 욕계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청정하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신이다. 손에 불자(拂子)를 들고 부처님의 설법 때마다 빠짐없이 듣는다고 한다. 조각의 예가 많지 않은데 석굴암 범천상이 대표적이다.

△금강역사: 인왕(仁王) 또는 이왕(二王)이라고도 부른다. 절문 좌우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본래 임무로서 대개는 상의를 벗은 채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있거나 금강저를 들고 있는 독특한 보습을 하고 있다. 석굴암, 분황사탑, 장항사탑의 인왕상이 대표적이다.

■ **신중탱화(神衆幀畵)**

불교의 온갖 호법신을 묘사한 탱화로, 대개 법당 중심부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봉안한다. 신중탱화를 봉안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 금강역사 등만 그렸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재래 토속신앙의 신들도 함께 그려 넣어 불교의 관용적이고 역동적인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에 불교가 차츰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보다 많은 신들을 수용하게 되어 104위에 이르게 된다.

신중탱화는 화면의 중심 신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대예적금강신을 주축으로 한 탱화, 제석천과 대범천·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화, 제석천과 대범천을 중심으로 한 탱화, 제석탱화라고도 한다. 쌍계사의 〈제석천룡도〉가 가장 유명하다.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에 팔부신장과 십이지신상 등 신장만을 묘사한 신장탱화 등이다.

■ **사천왕도량**

사천왕을 본존으로 하여 개최하는 기원법회. 사천왕의 보호를 받아 적병을 물리친다는 진병도량(鎭兵道場)의 목적에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자주 열렸으며, 경주에 있었던 사천왕사는 사천왕도량의 본산이었다. 지금은 거의 봉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완주 송광사에서 매월 초하루 사천왕도량을 봉행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송광사에 머물던 승군들이 사천왕에게 호국호법의 가피를 빌던 전통이 3백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정월 첫 갑자일에는 사천왕 대불공이 행해진다.

■ **산신(山神)**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신앙, 즉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 가축의 번성,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원초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 불교와 습합되면서 산신각과 산신탱화로 구체화되었는데, 산신은 호랑이와 신선의 풍모를 한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지금도 산신각에 아들 낳기와 재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신은 산중생활의 외호신(外護神)으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계룡산 신원사의 중악당(中岳堂)은 불교와 산신신앙이 결합한 대표적 상징물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신중의 하나인 금강역사는 절 입구에 서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

형상 무섭지만 재앙막는 수호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북방다문천왕. 사진은 통도사 사천왕.

사천왕은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어 사천왕에 낯선 사람은 흠칫 놀라고 만다. 죄지은 양 몸을 움츠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사천왕은 세상의 온갖 재앙을 소멸케 해 안락을 주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다. (금광명경·金光明經) '사천왕품'에서 사천왕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만일 이 나라에 해로운 일이 있거나, 원수가 국경을 침노하거나, 흉년들고 병이 도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적에 어떤 비구가 이 경(금광명경)을 받아 지니면 가지가지 재변을 소멸케 하겠나이다."

사천왕 중 동쪽을 지키는 이는 지국천왕(持國天王)으로, 선한 이에게 상을 내리거나 악한 이에게 벌을 주어 국토를 수호한다. 서쪽을 지키는 신은 광목천왕(廣目天王). 죄인에게 벌을 내려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道心)을 일으키는 서원을 행하고 있다. 남방은 증장천왕(增長天王)이 지킨다. 만물이 태어나는 덕을 베푸는데, 오른손으로 용을 잡고 있다. 북쪽은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지킨다. 항상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도량을 지킨다. 이들은 모두 건달바 용 나찰 등의 무수한 신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다.

IMF를 이겨내는 투자의 맥

어디가 좋을까?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청산컨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끝~!

삼보에 귀의하옵고

상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컨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닥친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저 합니다.





부지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262-1번지 외 8필지
■총평수 : 6,422평(준농림, 일부 전용허가필)
■지 목 : 전, 답, 토임
■특 징 :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약 40Km 출퇴근가능
맑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저수지를 접한 땅
주위 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음.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시며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투자성 : 향후 2~3년 후 I.M.F 에서 벗어나면 2~5배의 투자성이 확실한 땅
■시 세 : I.M.F 전 → 23만원 ~ 30만원 거래
I.M.F 후 → 17만원~ 20만원 거래
→ 현재 받고저 하는 금액 10만원~15만원

부지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21번지
■총평수 : 2,995평(일부 전용허가득)
(준농림+보존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 급매 평당 9만원

부지 3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②필지 ⊙ 보존임지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득해서 드림)
■용 도 : 과수원, 펜, 사슴 목장, 농업용도의 개발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CHUNG SAN 컨설팅
02)420-5474~5/011)213-4594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전화 ☎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 마음 내 생명 아닌 게 없어 공용 공식

자기의 진화를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의 내부모 내자식
내형제 내모습 내도량 아닌게 없어



그림 · 최주현

참자기는 수억겁을 거쳐온 소중한 보배
육신보다 정신계 한걸음이 진짜 큰 걸음

여러분과 또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부처는 한마음 속에서 보살들의 이름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도 우리 마음 속에서, 한마음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관하면 때로는 지장이 돼 주고, 때로는 관세음이 돼 주고 그렇게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어 주십니다. 때로는 길잡이가 돼 주시고 때로는 해결사가 돼 주시고 때로는 보디가드도 돼 주신다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했죠. 즉 말하자면 내 뿌리인 불성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도 하지만 방편으로서 주장자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합니다.

○ 말을 왜 서두에 하느냐 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방편상 길을 인도해 줘야만 요 다음에 허공을 디딜 때도 서슴없이 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中)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의 모습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 모습 속은 모두 곤충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곤충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허공 길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던 관습과 의식 욕심 이런 것 때문이죠. 죽어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옥고를 딛고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고 강을 건널래도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또 불수레를 건너갈래도 건너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있다는 관념 때문에 말이에요. 이 점을 먼저 서두에 말하고 다음 얘기를 하렵니다.

우리가 이 중(中)세계에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만 편안히 살겠습니까? 부딪치고 부딪치고, 수레가 돌아가면서 부딪치듯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치는 천차만별의 이치 속에서 바로 지혜도 생기고 물리도 터지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불'이요, 부딪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교'라고 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진리의 언어지, 어떠한 불자들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국한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는 끝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지만 않는다면, 먹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강도도 없을 거고, 사기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지 않을까요? 먹으니까 똥을 눠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잠자고 먹고 똥누고 이러는 게 없다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돌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거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나은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가 되었다고 큰소리치는데, 개구리라고 해봤자 올챙이 과정을 거쳤단 얘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똥 안 누고 잠 안 자고 먹지 않는 세 가지를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별천지죠. 부처님의 한도량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나가는 이 마음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음에서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주산신도 되고, 주해신도 되고, 보디가드도 되고, 길잡이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아니 되는 거 없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니 일이 되겠습니까.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하나 벗어나서 천차만별의 중생을 다 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 뜻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내 도량 아닌 게 없다고 했죠. 이 말을 자세히 일러드려야만 되겠기에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똥 안 누고, 먹지 않고, 잠자지 않는 세계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체없는 내 마음의 처소가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체를 두고도 배움의 길에 있어서 만약 저 거리를 걸어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간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보이지도 않고 바람만 설설 일어나죠. 이런 거 짐작해 보셨습니까? 또 체가 없는 나가 허공 길을 걸어갈 때는 가고 옴이 없이 갔다가 전체를 작게 만들어서 갖다 보기도 하고 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가운데 들어가서 큰 것을 보려면 다 못 봅니다. 적어야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말은 여러분이 허공 길을 뛰어 넘을 수 있어야만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약 계단을 올라올 때 마음이 올라온다면 점프해서 그냥 단박에 올라올 수 있지만, 몸으로 올려니깐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할래도 할 수 있는 도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둘 아니게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또 내 작용 아닌 게 없고 내 공식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용건이 들어와도 나는 허공 길을 걸어야만 되겠죠. 찰나에 그 모습으로 화해서 나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짐승이 나를 청했을 때 내 마음이 '짐승을 건져야겠다' 이런다면 내가 짐승이 돼야 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으니 공용 공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화해서 남을 건져줄 때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물고기 한 마리 건져도 내가 화해서 그 고기로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건지는 겁니다. 방편으로 말을 하는 데도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라고 이럽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 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강은 못 건너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하죠. 덧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일러줘야 요 다음에 허공 길에 발을 떼어놓을 때 서슴없이 떼어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길에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는 뜻은 뭐냐, 소나 말이나 돼지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속을 다 아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천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상차리고 뭐하고 그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급한데. 그러나 타심통도 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것 보다 이 정신계의 한 걸음이 진짜 큰 한 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자기란 수억겁을 거쳐온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억겁을 거쳐 온 주인공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몸은 그냥 시자인 것입니다. 몸은 시자일 뿐입니다.

반 가와서 악수를 할 때도 말입니다. 마음이 가니까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악수를 하려고 나갑니까?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은 여러분 전체가 움죽거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매인 몸조차 공한 것입니다. 왜냐?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이 몸 속에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 설키고 많이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라고 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것은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마음에다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어휴! 내가 중생인데 어떻게 허공에 발을 떼어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4)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한들 그것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백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고 얽매이고 피땀 흘리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고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억만의 부도 권력도 명예도, 청산유수같던 언변도, 그 많던 지식도 일단 몸을 여읠 때에 이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위대했던 아무개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한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무엇도 참나와의 해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근거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마음을 닦는 공부야말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사람들은 사는데 급급해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할 겨를이 없노라고 말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고, 글이라도 한 줄 더 읽는 게 낫고, 사람들과 만나 일을 도모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한다.

혹은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실이 더 급한데 어느 짬에 마음공부나 하고 있겠느냐고 한다. 마음닦는 공부를 무슨 부업 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바삐 살고 육신이 부서지도록 쉴 짬도 없이 뛰지만 여전히 인생살이는 힘 겹고 번민투성이 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스로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시 그걸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물질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말하자면 이제 생존이라는 문제에서 풀려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 볼 시간이 많아진 경우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대개의 경우 그들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향해 목 타는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헤매고 있다. 내가 남보란듯이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 부단히 장소를 찾고, 수단을 강구하고 방법을 구사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분의 시간을 다 쓰지 않으면 삶이 무료한 것 같고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같아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웃고 즐길 일이 꽉 짜여져 있으면 그들은 삶이 제법 보람되다고 믿는다. 마음 닦는 공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럴 짬도 없다는 사람들이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다. 다만 거룩한 삶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 하는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노동하고…, 여덟겹의 바른 길을 걷는 삶이라는 말씀이다. 그 길은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알아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길을 말한다. 육신의 쾌락이나 좇고 제 잘난 맛이나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참사람의 참 삶을 이뤄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다. '이 길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면 참 삶의 맛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데가 없는 복락의 길이다.'

말하자면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에 들어서서까지 만가지 맛과 만가지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모름지기 만가지 맛을 내는 과일을 키우고 만가지 향을 풍기는 꽃을 키우는 농부이자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참 사람의 길이요 참 삶의 길인 것이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급급해서 또는 즐기느라 짬이 없어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할 여유가 없다 하겠는가. 거룩한 삶의 길을 외면하고 이 구멍뚫린 고기자루를 위하여 시간을 허비해야 하겠는가.

협찬 : 오병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유권 있는데도 마음 자유롭게 못써

☞ 15면에서 계속

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관하면 벌써,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급합니다' 이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어떻게해야 되겠습니까? 그 쪽의 마음도 이 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를 떠나서 무조건이셨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알밉게 했으니까 넌 그렇게 돼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지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어떠한 것도 밖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 관하면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대로 했지만, 가까운 데서 그럴 때는 데리고 와서 관하는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공부를 가르치고 또 멀리 있거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겐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실천 없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실천은 그릇대로 담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무심도리요,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리입니다.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허공을 다 집어 넣는 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까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없죠. 그러니깐 인간에게 마음을 자유롭게 쓰라고 자유권을 줬는데 자유롭게 쓰질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적다 크다 관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6. 25때요, 총알이 막 날아오니까 총알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막 뛰는 거 있죠. 마음이란 급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아프다고 그냥 꾀를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뭐가 어떻다 하면 '난 이제 죽는가보다' 그런 거 많죠. 그렇게 자기 마음이 먼저 죽으니까 이 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하는 거죠. 몸 속에서 작용을 해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추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첫째 선두자의 마음이 '이건 다 죽겠구나. 이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줄줄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죽는 거죠.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남이 이러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것을 다 놔야 된다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데 합해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정히 급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국난에 처해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도 있죠. 다 꺾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지간 만나는 것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여서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면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들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도 잘되고 살림도 부유하게 늘어가고 안되는 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을텐데, 안되기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만날 그렇게 남에게 물어보고 삽니까? 심지어는 꿈 하나 꾸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그 꿈이라는 것도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공에다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것을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뭐가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운명이예요. 그런데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운명이 불지를 않아요.

모두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부처님의 뜻의 길을 좇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방편의 길! 이것이 바로 씨를 여물게 하고 즉 말하자면 '귀신 방구씨를 얻어서 귀신 방구털을 먹여서 잘 길러낼 수 있다'



그림 · 최주현

서 우리는 그 불성하고 내 불성이 통하고 있으니까 과거 즉 '삼천년 전의 너가 현실의 나구나, 내가 삼천년 전의 그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장면 소릴 내가 잘하는데 자장면을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다면 자장면 얘기를 해도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낳고 개가 잉태를 하면 개를 낳죠? 그 식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으니까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딸이 소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소를 몰고 나간 딸이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화가 나서 방방 뛰는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나갔으니 소를 다 처리했겠지 뭘, 잘 처리했겠지" 하더랍니다. 딸이 들어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소는 안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네 기둥을 매고 네 발을 묶어 놓고 그 가운데다 불을 질러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다 구워서 잘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딸은 벌써 깨우침이 있었단 얘깁니다. 어머니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아둔해서 영-, 그러니깐 그냥 펄펄 뛰고 그 소를 얼마를 주고 샀는데 소를 갖다가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먹였느냐고 야단을 하니까, 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까. 어차피 소 한 마리 가지고 삼세가 다 먹어야 할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 현재 · 미래가 바로 현재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다 먹였으니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그러십니까? 삼세에 인연들을 다 먹였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 그걸 모르면 팔자운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현실도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죽거리니까 어떤 것 움죽거렸을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사가 다 그렇죠. 반가와서 악수를 할 때 '어떤 게 먼저 가더냐' 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더라. 그리고 손은 그냥 따라서 가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몸뚱이 하나 움죽거리는 게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잘 다스려서 자기가 마음을 잘 내면 될 것을, 요만한 것도 잘 못내고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냥 자기가 상처가 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도 살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사세요. 한 철 캠핑 나와서 사는 게 그렇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냄비가 있으면 냄비대로 솥이 있으면 솥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한 철 사는 데 욕심을 내고 울고 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넓게 쓰면서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에서 탤런트들이 영화 막이 내리면 그 뿐인 것을, 거지 역을 맡으면 어떻고, 머슴 역을 맡으면 어떻고, 대왕 역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칼잡이 역을 맡든 도둑 역을 맡든 어떤 역을 맡아도 그 막이 내리면 그 뿐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걸 맡아나가도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천년 몇 만년 사는 줄 알고 이 모습을 가지고 뭐든지 쌓아 두려고 그러죠. 그러나 욕심 많게 쌓아 두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죠. 모두가!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입니다. 쌓아둔 뭐가 있다면 빨리 내줘야 마음이 시원하니까, 빨리빨리들 나누어 주는 것이 또 마음도 역시 그래야 우리가 회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어서 끝을 마쳐도 회향이고 밥을 지어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도 회향입니다.

만물만생이 다 여러분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예요. 돌 하나라도 스승이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선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구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中)세계의 진리이기에,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니까 우리는 삼세를 뛰어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점프해서
계단을 한걸음에
오를수 있다면
은산철벽 못 뚫겠나

한마음으로 조복돼야 보살역 할 수 있어
마음이 먼저 죽으니 몸속 생명 다 죽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 방구씨가 뭔가? 귀신 방구털이 뭔가?'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 방구털이지 뭡니까?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여 키워야 정상적으로 크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키우려면 키워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점프하듯 그냥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가 터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함이 없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 말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계단을 밟지 않고 오는 것도 허공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길 아닌 길을 찾아라, 또 '뜰 앞에 잣나무' 니라 한 것도 우리가 둘 아닌 도리에서 어느 거든지 둘 아니게 공생이면서 공심이라는 뜻이 거기에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배우고 이론만 알았지 도무지 실천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재차 말하지만 우린 여기에서만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은하계 모든 별성에도 우리의 마음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불성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길에 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이나 소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나 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사람이 사형을 받고 끌려가는 거나 똑같아요. 혼이 다 빠져서 사형장 문턱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나 똑같죠. 소들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가요. 정말이에요. 이 다음에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거 한 번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특이한 이치죠. '나는 안 죽겠다'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나가다 볼 때에 들 아니게 그 마음을 내가 갖든지 내 마음을 주든지 한다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없을 거고, 죽는다 해도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환생이 되죠.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 사람이 되지,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잉태를 하면 사람을

금방 밥을 굶게 되든 뭐가 되든 자기는 심부름꾼이니까 주인에게 맡겨서 '네가 끌고 다니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 맘대로 해라' 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놓으면 다 제가 형성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끌고 다니며 먹여요. 예전에 내가 그렇던 걸요, 칫솔 하나 안 가지고 나갔지만 다 끌고 다니며 먹이더라구요. 하다못해 풀뿌리 하나를 먹이고 싹 하나를 뜯어서 먹여도 먹이더라구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다 자기 뿌리에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입니까. 바람이 부니 걱정입니까? 비가 오니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싹을 죽이게 되면 뿌리가 더 내려서 깊이 박혀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그래요. 옥수수 같은 것도 비가 와서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으면 뿌리를 사방에다가 넓게 박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들 초식들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드니까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둬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벌레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 풀 한 포기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 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좇아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중생을 저버리고 제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습이면 그 모습으로 화해서 나투어 주시니까 거기서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건져질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다 맺으셨다 이겁니다. 뼈 한 무더기에 절을 하시는 걸 보고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고조부일 수도 있고, 고조모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수없이 겪은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광년을, 책에는 '나유타' 라고 그랬습디다만 그 나유타를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사연이 많았건만 인연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행은 그 사람 차원에 따라서 따라주시는 거죠. 개는 개대로 모습을 해서 따라주고, 사람은 사람대로 해주는 거죠. 사람 가까이 사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다 인간으로 화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돌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함이 없이 방편으로 말하지만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앉아계신 부처님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툭 터졌다' 이러는 건 이 사방 가운데 전부 즐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중심에 다 그런 법망이 있어요. 법망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고 또 법망이 가장자리로도 전부 있기 때문에 타의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걸 오존층이라고 할까요, 대기권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혈관이 다 이 몸을 싸고 있기 때문에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 이런 것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나가면 죽으니까요.

이 말은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이날까지 얘기를 했지만 두서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니까 두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아는 만큼 나도 이만큼 알고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아신다면 나도 바다와 같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말입니다.

말 한 것을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자기가 놓으면서 또 실천해 보세요. 육조스님도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여여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붙이지 말고 오직 살아나가는 일거수 일투족 모두를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으세요. 그 구녘 밖엔 없어요. 구녘 없는 구녘이 그 구녘 밖엔 없다구요.

일체제불이 통과하는 구녘은 그 구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이 통과할 수 있는 구녘도 그 구녘 밖엔 없고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이 도리를 다 알고 나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 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길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영축아봐타센터
0523)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氣明 緩 岾↔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워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예약상담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고통에 아픔을 알아합니다.

02)897-7731, 016)340-4459
●→108-51471-277 KAA←●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침술, 불교학, 일본어
◆ 자 격 : 연령 · 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개인 수강자는 별도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1
(목화오피스텔 605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출구)
T. 3412-4582
대길승가대학 교무처

사주(명리) · 주역(육효) · 작명 · 택일

● 늘 배우고 싶었던 왕초보
● 혼자 공부하다 지친분들
● 처음 배워서 개업하실 분(포교당, 철학관)

노력 여하에 따라서 3~5개월 개업가능
※ 3개월 책임지도 ※
철학인 명인 **고운처사**
051)442-3108
017)566-5223/012)1582-0437

꼭 알아야 할 秘要 특강

1. 모든 문제의 成敗 · 可否 판단법
1. 운명 문제의 간단명료한 판단법
1. 현실 문제 적중법 및 각종 방편법
1. 이사, 결혼, 풍수, 건축 등 각종 택일법
1. 정신통일 건강 및 초능력 개발법

02)597-6211
(45일완성 · 통신가능)
正山堂 金 景 泉 직강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확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 인 구 직 •

사찰 종무원이나 법당 화주보살로 일하고 싶습니다.

011)716-3193

사찰에서 일할 처사님을 구합니다.

연령:30세이상~55세 미만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742-2057
중화사 주지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보리사
0546)474-3737
0546)474-3738

비구니 부전스님 두분 모십니다.

도반끼리 오시면
환영합니다.
02)359-77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연령제한없음)
⊙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742-2057
중화사 주지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박운파)예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771-3번지
대명사 주지 허명자(행연)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475번지
자비암 주지 서성원(행정)

상기인등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뜻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함.

1998.9.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같이 공부할 불자 친목모임

55세이상 불심이 돈독한
혼자사시는 불자 친구들을 찾음.
고향이 이북이시면서 자식이 없는 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011)775-8070

신장병 수양하실 분 수양법 전수

본인은 만성신장염으로 혈액 투숙직전 입산수행하여 신장병 극복
친동생 신장병 완치.

0595)883-4165
011)678-4686

• 사 찰 안 내 •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부지 : 1,100평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창고 : 1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청도 / 부지 : 500평
법당 : 18평 / 가액 : 1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새주인을 찾습니다.

울산 경주간 국도변 00산 분지형태의 보기드문 적멸보궁터로서 편리한 교통과 수려한 경관이 최상이며 경내에 석조대불이 있고, 연못에는 항상 물이 넘쳐흐르며 조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도처임.
◆법당, 산신각, 요사 3동(방사 12)
◆ 경내지 350평 – 매 3억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천애산 휴게소 뒷편 (산림도로 있음.)
◆ 임야 18,183평 / 평당 10,000원
0561)775-0545/011)561-9005

사찰 및 임야 안내
(대사찰지가능 총 만5천평)

1. 사찰 석굴암 50m 길이 석존 7자 불상, 요사채 1~2층 합 34평, 법당 15평, 3층 현대식, 아미타불 4자, 좌불상관세음 불상 15척 ◆호가:2억 5천만원
2. 제2석굴암지 정지작업 완료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된 법당 사찰 제반 설치가능
* 천평-2천평 양도가 @15만원(위물건 대전, 청주, 수원, 대구, 서울등지 건물 물물교환도 가능)
3. 사찰하부지 강변 진입도로간
◆부지 :2천평 @20만원, 밭(전) :2,700평 (전원주택지 가능)
응도 실버타운, 모델하우, 산장식당 강변도로적지
(1/3%D C함 중계인불교 직접상담)
문의전화:0441)848-1766최/851-3866

사 찰 안 내

◇ 대지 : 85평
◇ 법당 : 17평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요사 : 27평
◇ 위치 :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매가 : 1억 7천만원
(5천만원 전세도 가능)
◇ 특징 : 산밑 관음기도 영험도량.
시내와 근거리, 지하철 이용가능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736-3579~9/011)789-2255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8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총 3천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7)282-1998
02)482-4550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산포 목조 문화재급(시설은 A급)
◇요사채: 지상 20평(목조),지하: 50평, 산신각: 5평(돌벽),체공실: 17평,(조립식)
◇양도가액 : 15억
◇특징 : 산세 수려하고 물좋고 남골당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124) 종점 5분거리, 주차장 완비(50대)
※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요망.
02)899-4281

사 찰 안 내

◆위치:중랑구 상봉2동 (상봉터미널 부근)
◆평수:50평
◆방3개,주방1,욕실1개,기름보일러, 에어콘 완비
◆삼존불,부처님개금,백팔불 불사되어 있음.
◆가격:보증금 5천만원(월세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입주시 바로 법회 볼수 있음. 주지스님 공석 관계로 사정상 내놓음.
011)775-7656/02)496-7656

사 찰 (급) 안내

◇위치 : 경상남도
◇대지 : 120평
◇가격 : 6천 5백만원
015)7903-8753
0597)964-1662

사찰 및 임야 안내
(대사찰지가능 총 만5천평)

1. 사찰 석굴암 50m 길이 석존 7자 불상, 요사채 1~2층, 합 34평, 법당 15평, 3층 현대식, 아미타불 4자, 좌불상관세음 불상 15척 ◆호가:2억 5천만원
2. 제2석굴암지 정지작업 완료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된 법당 사찰 제반 설치가능
* 천평-2천평 양도가 @15만원(위물건 대전, 청주, 수원, 대구, 서울등지 건물 물물교환도 가능)
3. 사찰하부지 강변 진입도로간
◆부지 :2천평 @20만원, 밭(전) :2,700평 (전원주택지 가능)
응도 실버타운, 모델하우, 산장식당 강변도로적지
(1/3%D C함 중계인불교 직접상담)
문의전화:0441)848-1766 최 /851-3866

포교원 안내

◆위치:동대문구 장안동
◆가격:
전세 보증금 3천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
(시설 일체완비)
02)215-7978
011)308-4225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시내 중심지)
◇법당 약 45평. 방 2칸
◇시설일체
011)538-5159
허 응 스 님

토굴 · 선방 · 암자터 소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리산 깊숙한 명당
◆영원사, 실상사, 검대, 벽송암, 백장암 사이에 있으며 천왕봉이 안산이 되는 숨겨진 성지명당.
◆부지 : 약 2천여평
호출 012)587-6233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관음동 (상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건물 : 3층건물 2 · 3층 각 35평
◇조건 : 임대(전세, 월세 절충)
◇시설 : 새건물 생활시설 완비
◆특징 : 건물주인이 독실한 불자로 포교하실 스님의 입주를 원함.
0546)473-9153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신림동 (신림 4거리 도보 10분거리)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보살 및 명부시왕 10분, 지장탱화, 각종 최고급 만다라화 여러점.
◇가격 : 보증금 1천 5백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일체 집기물품 포함-가격 6천만원▶급히양도함.
02)888-1642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음성읍
◇대지 : 1,200평
◇건평 : 180평
◇조경비 : 10억 투자(자연석)
◇매가 : 15억 (융자 2억 2천 5백포함)
◆ 충북의 최고의 명당
주인직접 032)514-4201
011)720-5405

사 찰 안 내

◇소재지 : 강원도 춘천
◇부지 : 1,250평
◇건평 : 법당 · 요사 3동 120평
◇가액 : 2억원
0361)262-8570
스님직접

사찰부지안내
(타용도 가능)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평수 : 45만평(분할판매 가능)
◇가격 : 평당 2,300원
051)625-6359
※ 감 · 밤 · 잣 · 표고버섯 등 유실수 있음

사 찰 (급) 안내

◇위치 : 대전 논산간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
◇대지 : 602평, 종교용지
◇총건평수 :
대웅전 35평(목조로 외5포 · 내7포)
삼성각 5평(목조로 외5포 · 내7포)
요사채 33평 - 현대식 건물
◇가액 : 3억 8천만원
0461)733-3048
011)458-3048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
◇ 기도처로 좋음.
◆ 시설 완비되어 있음.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459)951-8884

사 찰 안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하고져 합니다.
◇ 전세도 가능.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내
0654)461-4152
011)579-98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노원구상계동
◇ 평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77
012)341-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종로구 부암동
◇ 건평 : 140평
02)395-4557

불자 세상보기

동서화합 남북화해

"自他不二 정신으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체 '발족'

"마음 맞으면 도토리 한알로 허기 면해"

영국의 민주주의는 종교갈등의 역사요, 프랑스 민주주의는 신분갈등의 역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치학자들은 누구나 주저없이 남북과 동서로 갈라진 지역갈등을 든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그 나라의 주도적 갈등을 '마치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피해간 사례는 없기에 지역갈등은 한국 민주주의의가 풀어내야 할 공안(公案)과도 같다는 것이다.

국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남북화합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관용의 시대'를 통과할 때라는 말이 있듯이 호남 출신 대통령이 개혁과 통일을 선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느 때보다 '관용과 화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요구와 한반도의 동서 화합, 남북화해를 실현하려는 민족화합운동연합(준비위원장 김병걸)이 발족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1백70여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지향하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공식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역과 계층,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견해들을 초월해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민화협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99년 8.15 통일대축전 준비 △민간차원의 통일기금 모금 △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체육교류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연구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정부 출범 후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동서 대화합 분위기가 전남과 경남, 충남북, 강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자매결연 형식으로 추진되던 지역주의 해소운동이 최근에는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전분야로 넓혀져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동서화합 무드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점점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화합 자매결연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알을 가지고도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간의 화합이 모든 국가대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선결요건임을 온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지역갈등을 공론화 해 시민 개개인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대승 보살심으로 후유증없이 치료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3일 '민화협' 출범식에서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화해를 이루자"고 축사했다.

물교의 눈 "화합은 생활공동체의 생명"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은 연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없애려면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부터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새 대통령은 허공의 공기와 같이 마음을 비워 국민적 대화합을 도출해 낸 다음 그 바탕위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 바란다"고 설한 바 있다. 〈팔리 율장대품〉은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여섯가지 일을 이렇게 설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바르게 보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나머지는 주변 조건이다"라고,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대반열반경)임은 물론이다. 〈중지부 경전〉은 화합중(和合衆)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우유와 같으니라.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느니라."

장수비결은 자비심과 긍정적 사고

"종교 믿으면 오래산다"

美 듀크대연구팀 '종교활동과 혈압' 조사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은 비종교인들에 비해 혈압이 낮게 유지돼 심장·혈관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평소에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듀크대 해럴드 코니히 박사 연구팀은 최근 〈정신의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여름호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활발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종교인이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986년과 1989~1990년, 1992~1993년 3차례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2천3백91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여부와 혈압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심장마비나 심장발작을 일으키기 쉬운 혈압수치인 최소혈압 90이상인 사람이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그룹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그룹에 40%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노인의학연구소소장 레너드 푼 박사는 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오래 산다는 것은 유전, 음식 등과는 무관하며 그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종교적인 신앙, 자비심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푼 박사는 1백세이상 장수하고 있는 1백57명을 포함, 총3백50명을 대상으로 10년동안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학자들은 앞으로 "단순히 수명에 세월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생명을 얹어주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는 의미있는 삶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초·중·고 결식학생 11만2천명

가정경제를 책임진 가장들의 실직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결식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파악한 8월말 현재 전국의 결식학생은 11만2천8백48명. 이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연초 점심지원 대상으로 추정 합계한 학생 2만7천8백62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7월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파악한 9만8천8백 여명보다 한달 사이에 무려 1만4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결식학생의 점심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2백30억 가운데 2백7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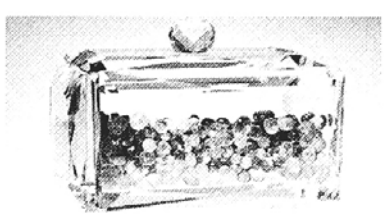
시신 화장후 사리 만들어 안치

자화사리硏 발명특허
부패안돼 영탑봉안 적합

화장으로 인한 유골 분말에 대한 혐오감을 줄여 화장제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례방법이 개발됐다.

한울정신문화원 부설 자화사리연구소 김준원소장(45)은 지난 7월9일 '화장후 남은 유골을 결정체(사리)로 만드는 방법'이란 명칭의 발명특허를 받아 보급에 나서고 있다.

자화사리의 제작방법은 화장한 유골(골분상태)을 2000℃ 이상의 고온으로 완전 용해시켜 한 방울씩 받아내어 자연스러운 구형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 사리 모양의 결정체로서 외견상 진짜 사리 만큼이나 보석처럼 맑고 영롱해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전혀 없어 가정에서조차 모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썩을 염려가 없어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탑에 모시기에 적합한 것이 장점이다. (02)575-4333. 김재경 기자



◇자화사리는 유골을 2000℃ 고온에 용해시켜 만든 결정체로 진짜 사리처럼 영롱하다.

시론

선의 인플레



인권환
〈고려대 교수·국문학〉

선(禪)이 요즘 국내외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 선도량이 생겨나 날로 수행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많은 선방에는 수행승들이 항상 구름처럼 모여 피나는 정진을 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은 물론 벽안의 외국인들까지 삭발한 채 다수 참여하여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의 전성시대'를 맞은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변에는 선의 인플레에서 오는 부정적인 현상마저 나타나 선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늘고 있다. 여기저기 선방, 또는 선도량이 생겨나고, 그러다보니 '선도사(禪道師)'란 자들이 족출(簇出)하여 선이 요가, 기철학, 기공, 단전호흡 등과 뒤섞이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선수련을 통하여 건강의 비법인 양 널리 퍼지고 있다. 또 선이란 용어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더욱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고 볼 수 있는 용어만 해도 선식(禪食), 선필(禪筆) 선화(禪畵) 선무(禪武) 선무(禪舞) 선다(禪茶) 선체조(禪體操) 등 수없이 많다. 도대체 '선이 뭐길래' 이처럼 모든 것에 결부되는가. 또 선이란 말이 들어가야 고상하게 보이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토록 많은 선의 용어를 만들어내게 하였는가. 과연 이것이 무사불용(無事不容)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하며 무처불입(無處不入)하는 선의 자재로움에서 오는 올바른 현상인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선의 궁극은 기복·건강비법 아닌 자아완성의 성취요 보살행의 실천"

결론부터 말한다면 선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인식이 잘못되어 온 탓이다. 즉, 선의 본질이 올바로 파악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확산된 데서 오는 왜곡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선의 종류는 많다. 그러나 아주 쉽고 크게 두갈래로 나누자면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출가선과 세속에서 심오한 사색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적인 재가선으로 나눌 수가 있다. 원효가 말한대로라면 전자는 성취불법선(成就佛法禪)이요, 후자는 교화중생선(敎化衆生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둘다 모두 선인 이상 그 본질은 같다. 다만 수행의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그 실천양상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좀더 이상적인 선은 이 둘이 서로 상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일융합된 일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둘이 서로 유리된 채 양극화된다면 둘 모두가 선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와같은 현상이 일부를 제외한 오늘 우리 선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즉 위의 둘이 서로 양극화될 경우, 전자는 신비화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후자는 통속화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즉 전자만으로 끝날 때는 자리적(自利的), 관념적, 초월적 선이 되고 말며, 후자에만 기울어질 때는 기복적, 신비적, 건강적 선으로 떨어지고 만다. 오늘 우리의 선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의 선이 올바른 위상을 되찾고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선의 고고화와 대중화, 관념화와 생활화, 신비화와 실천화, 독점화와 일반화, 산중화와 도시화란 양극성을 탈피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한국의 선이 수도자나 기이(奇異)를 탐하는 이의 개인적인 것에 함몰되어 현실 및 타인이나 집단과의 인연이 끊어져 관념으로 끝나던가, 민간신앙적 기복이나 건강·장수를 위한 비법으로 끝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선의 궁극은 자아완성을 성취할 뿐 아니라 일상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고, 실천으로 행해져야 하며, 남과 이웃을 위해 주고 베푸는 이타적 보살행으로 연결될 때 그 참된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석용산 스님 출판 (수필집,시선집) 기념대법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수행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모시는 글

회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시고 포교활동을 재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중 보여 주셨던 여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대구 공덕원 주지 석지광 합장

부산
첫째날 〈강연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둘째, 셋째날〈강연회〉
·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2시(이틀간)
·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051)625-2253, 2254 / FAX : (051)623-3946

대구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 (053)741-0077, 0088 / FAX : (053)741-0066

· 주최 :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 후원 : 부산불교신도회, 불교부산방송,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 대한불청부산지구청년회, 도서출판 문학수첩



컴퓨터로 만나는 21세기 '문화보고'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장경硏 세미나 열어 '공과 연기사상' 조명
팔만대장경 이체자전·해제본 연내 출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려대장경 해제본과 이체자전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시작된 세미나는 매월 각기 다른 주제를 선정,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과 대화로 불교인문학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동·서양 학문의 새로운 가치와 사고관 속에서 공과 연기라는 불교적 패러다임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고전범어문법'을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은 대장경학 성립에 있어서 그 문법적 원류를 밝히고 불교인문학으로서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는 학술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장경에 사용된 이체자를 분류·색인한 이체자전은 연내 출간할 계획이며, 대장경에 수록된 경의 목록을 색인하고 설명한 해제본을 10월중 출간, 일반 불자들도 손쉽게 팔만대장경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권유

청소년 꿈 키워주는 불사



지홍스님 〈금강정사 주지〉

몽고에 항거했던 고려인들의 불심이 담긴 팔만대장경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위대한 불교문화유산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디지털문화정보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은 학계는 물론이며 일반인들에게 쉽게 불교를 접하며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문화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장경전산화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국난극복 민족염원 담겨



정수스님 〈내원사 주지〉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팔만대장경전산화 작업은 민족문화유산을 컴퓨터로 보고 활용하는 새로운 문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목판속의 활자로 남아있는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 한자 한자가 모니터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신세대를 만나는 인연의 장으로, 남북을 잇는 화합의 장으로 새로이 우리의 미래를 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는 고려민족의 염원을 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속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팔만대장경전산화 불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회 후원인 명단

염불만일회 (건봉사) ▶박태섭 장대행 박재승 박재국 올영희 박상현 박재호 송미 박성진 박희나(경기 과천시) ▶박자 박명자(경기 과천시) ▶노승락 김선 노예녀 노학래(경기 부천시) ▶정형수 연희 정성목(경기 성남시) ▶양정국 양복례 양선자 양은지 양건대 문인 문인수 경기 안성군) ▶김영숙 김용한 박숙자 배희회 배용선 배기원 배윤경 권오균 오찬호 준기(경기 안양시) ▶강희방 장행례 강선 강정현 장범규(경기 광명시) ▶황치최순년 황귀석 황주석 환정석 황화석 두석 환현자 환현희(경남 거창군) ▶하목 갑의자 하형진 하창완(경남 마산시) 이재용 우병출 이명규 이성규 이경성 이철 이상원 이상훈(경북 영주시) ▶김익 이경희 김봉수 김미경 김대한 김진철 진국 조종목(대구 남구) ▶전승철 김도 전미란 전미향 전미숙 전영아 전현지 산 남구) ▶임중호 윤분에 임주희 임성 임양희 김종요 김다은 김윤태(서울 강구) ▶전해관 도대련화 전용주 전경주 서울 관악구) ▶김수호 이연숙 김가법 김주(서울 도봉구) ▶황주석 정은립 황준 황민지 황현지(인천 남동구) ▶장영후 동월 장윤희 장은정 장윤숙(제주 북제주) ▶장금정 이빈(제주 북제주군) ▶문인 강영자 문남원 박민숙 문용완(제주 제주시) ▶강동주 정두련 강태환 강태경 강현석(제주 제주시) ▶허영희 김준자 허봉석(제주 제주시)

금강정사 ▶김재경 김운자 김주인 김영화 김재화(경기 광명시) ▶김형래 박상숙 김지철 김수현 김태호(경기 광명시) ▶안상남 나희순 안명희 박민수 박효정 박효진 박준일 나기석 나종림(경기 광명시) ▶김년주 채균단 김성철 김은미(경기 광명시) ▶고정현 고정호(경기 광명시) ▶이상철 김명희 이종광 이종탁(경기 광명시) ▶이태선 김향심 이승희(경기 광명시) ▶유동식 오영숙 유수현 유성범(경기 광명시) ▶권봉규 이동익 박명숙 이영재 이창훈 이정훈(경기 광명시) ▶권혁철 홍정예 권순명 권순규 유석순(경기 광명시) ▶장인련 김필연 장정순 장정미 장경복(경기 광명시) ▶이용우 조법우행 이수현(경기 광명시) ▶방종흠 이재숙 방옥화 방옥경 방성희(경기 광명시)

내원사 ▶정수스님(서울 성북구) 김입순 홍순주 이미희 홍지은 홍지선 홍순상(서울 종로구) ▶장남신 이권필 장준기 장진기 장지연 감연옥(서울 중구) ▶안준형 안준우 안영선 이재인 이영호 이소정 안선호 진원보화(서울 중랑구) ▶전홍식 김금석 전성우(서울 광진구) ▶서강원 이숙자 서도영 서재현(서울 노원구) ▶이수목 박만월행 이승화 이승희 권혁법 이승연 권순석 권하정(서울 도봉구) ▶임주환 이희종 임재성 임섭은 김노영 임지은 양성호(서울 동대문구) ▶김탈수 주경숙 김갑수 신옥자 김광수 원지현 김혜진 김영진 김영재 엄진실(서울 서대문구) ▶김수경 한정희 김경진 김치연 (주)삼성방재살업 한상철 이희상 한환 한원규 (주) 삼성갑리(서울 서초구) ▶최문규 이덕순 최종희 최원준 여문상 최윤선 여선정(서울 성북구) ▶김연한 박정각심 김창표 고은경 이태상 김민아 이준로 이현로(서울 성북구) ▶홍반아행 손세현(서울 성북구) ▶오반아 김혜명화 오준식 오현식 오경원 오성미 이맹심 이종현 이수영 이지선(서울 성북구)

무차선회(백양사) ▶박남근 최미자 박정심 박정도(경기 부천시) ▶전순년 정광일 정귀자(경북 안동시) ▶김종만 도선자 김형진 김민지(부산 동래구) ▶신운원 송준식 조배순 송하천 지미숙 송민기 송원기(전남 순천시)

석왕사 ▶노현성 김애숙(경기 구리시) ▶김상종화 노승현 김화숙 노정호 노정연(경기 구리시) ▶이순구 이정순 이은수 이은영 이은선(경기 부천시) ▶장용환 정세미 장다령 장연우(경기 부천시) ▶김천화 서미하연 김태범 변미숙 김태영 김태진 김민정 김채연 김규연(경기 부천시) ▶한상철 전갑순 한광국 이미선 한서범 한광욱 김정숙 한광진(경기 부천시) ▶신희준 연규천 신명신 신수정 신미경(경기 부천시) ▶남교원 한두리 남정민 남정운(경기 부천시) ▶류상훈 안귀남 류홍렬 류성렬 한정이 황현숙 류석용 류정용 류범용 류태용(경기 부천시) ▶한병수 권옥순 한상연 한희정(경기 부천시) ▶김창호 유선정화 김희원(경기 부천시) ▶김창호유선정화 김희원(경기 부천시) ▶최대식 유풍자 최설영 최현정(경기 부천시) ▶조병호 조해경 조한규 조준규 최원순 박중하 조재희(경기 부천시) ▶손승희 김현자 손영선 손영은 손영자(경기 부천시) ▶손승희 김현자 손영선 손영은 손영자(경기 부천시) ▶최석숭 우성숙 최세일 최국일(경기 부천시) ▶이경희 류숙 이은정 이제(경기 부천시) ▶이홍용 이복례 이상현 이상열 이상호 이상국 이미경 이창준 이류나 이도현(경기 부천시) ▶이홍용 이상현 이상열 이상호 이상국 이미경 이창준 이류나 이도현(경기 부천시) ▶김인수 최문숙 김용우 김홍태(경기 부천시) ▶송재옥 한연분 송승용 송정윤(경기 부천시) ▶김교철 이정인 김지현 김지선(경기 부천시) ▶홍은표 박순옥 홍승연 홍성욱(경기 부천시) ▶고덕종 김행연 박계현 고성숙 고은경(경기 부천시) ▶신성하 신규희 신윤희 신태희 황명숙(경기 부천시) ▶양승은 이무정 양준모 이을새 양문모 김점순 양유지 양희태 장재현 양수영(경기 부천시) ▶황수남 임순복 황태현 황승현(경기 부천시) ▶황수남 임순복 황태현 황승현(경기 부천시) ▶권진택 김경자 권용윤 권용경(경기 부천시) ▶박노섭 이옥자 박준재 연선화(경기 부천시) ▶이기숙 윤철원 윤태원 윤혜순 윤혜옥 윤영선 윤희선(경기 부천시) ▶신승일 심창섭 김순자 심갑섭 심미애(경기 부천시) ▶원용학 김도홍 원유진 이애란 왕우택 임보윤(경기 부천시) ▶민상규 장영우 민경철 임말례 민경태 민지혜 민대홍(경기 부천시) ▶최성안 이준순 최혁민 최수민 최수지(경기 부천시) ▶최성안 이준순 최혁민 최수민 최수지(경기 부천시) ▶이국재(경기 부천시) ▶이국재(경기 부천시) ▶황상연 우인재 황정태 박남희 황정숙 황정자 황정애 황정남 황성하 황자영(경기 부천시) ▶고영부 원경옥 고은미 고은희 고명진(경기 부천시) ▶이대순 송석은 송석태 송석민 윤현주 송혜영 송혜진(경기 부천시) ▶이대순 송석은 송석태 송석민 윤현주 송혜영 송혜진(경기 부천시) ▶신현구 신기희 신주희 신민철 신영빈(경기 부천시) ▶이종진 노희영 이광태 조재화 이원주 이정은 조동준 황매월 조재환 조재현(경기 부천시) ▶이종진 노희영 이광태 조재화 이원주 이정은 조동준 황매월 조재환 조재헌(경기 부천시) ▶김등자 박기성 박기영 박기수 이씨 라정수 라종석(경기 부천시) ▶김참경 이명순 김재영김미란 김혜진(경기 부천시) ▶인경환 김도석 김종석(경기 부천시) ▶인경환 김도석 김종석(경기 부천시) ▶류관열 조경숙 듀지혜 류승유(경기 부천시) ▶정무흥 김순복 정남희 정현운 정철원(경기 부천시) ▶박태규 김순자 박민수 박명찬(경기 부천시) ▶박태규 김순자 박민수 박명찬(경기 부천시) ▶최의규 임무궁성 최재석 최정심행 최반아심(경기 부천시) ▶서인진 김희순 서지연 서지영 안중태 안창용(경기 부천시) ▶오정환 이미숙 오수기 오수정 오성훈(경기 부천시) ▶오정환 이미숙 오수기 오수정 오성훈(경기 부천시) ▶원천연 유창아 원동관 원동영(경기 부천시) ▶최영호 유근아 최하정 최서우(경기 부천시) ▶김유식(경기 부천시) ▶김유식(경기 부천시) ▶김운섭 최월수 김혜진 김경진 김영진(경기 부천시) ▶이영수 김영임 이성희 이성경 이주희(경기 부천시) ▶신학철 허덕선 신상우 신예슬(경기 부천시) ▶이기연 신재수 오혜장 신종민 신종현(경기 부천시) ▶황병용 정순이 황계숙 황은숙 황정만(경기 부천시) ▶한기형 하영월심 한두호 이은경 한경숙(경기 부천시) ▶류숙경 임영복 류숙경 임기현 임보현(경기 부천시) ▶박기철 오명자 박윤진 박한진(경기 부천시) ▶정진우 조한분 정재용 정재경(경기 부천시) ▶서국진 박복임 서은경 서태원 서은주 이의승 서옥숙(경기 부천시) ▶서국진 박복임 서은경 서태원 서은주 이의승 서옥숙(경기 부천시) ▶배광묵(경기 부천시) ▶배광묵(경기 부천시) ▶신용직(경기 부천시) ▶신용직(경기 부천시) ▶박형연실 최상희 김 희 최미진 최미선 최명숙(경기 부천시) ▶변정자 권보상 오광명 권상희 오재현 윤종근 권미경 윤준수 윤수미 권미향 김영기 김상훈 권남돌(경기 부천시) ▶변정자 권보상 오광명 권상희 오재현 윤종근 권미경 윤준수 윤수미 권미향 김영기 김상훈 권남돌(경기 부천시)

연등사 ▶반월스님 도진스님 도휘스님(부산 동구) ▶이복악 김수선 강태홍 김지영(부산 금정구) ▶문준일 이정옥 문종복 김광옥 문성연 문예경(부산 금정구) ▶장이랑 김옥매 강동호 강동원 강미선 강미옥 강은정 강정희 이길이 김민수(부산 동구) ▶조덕순 황석규 김은정 황혜린 황혜원(부산 동구) ▶하길영 장영자 하대경 하대성 하형림(부산 동구) ▶조봉길 전순연 조복기 조수민 이승훈(부산 동구) ▶정범영 박점순 정민기 정옥희(부산 동구) ▶오석동 오주철 오태영 오영숙(부산 동구) ▶김형규 황외선 김봉우 김지연 김상희 강효준(부산 동구) ▶윤원찬 박점순 윤영일 윤은희 윤은애(부산 동구) ▶김기호 박길상희 김용해 김영태 김예래성 박희자(부산 동구) ▶최세태 김명애 최성우 최은정 최은영 하성금(부산 동구) ▶황재문 손익춘 황수준 황수희 김형준 황정희 김민경(부산 동구) ▶김영삼 노수도화 김봉은 김봉수 김봉열 김봉철 김민석 김기원 김기성 김상욱 김성우(부산 동래구) ▶산동표 이혜명심 신창근 정세은 신기영 신남미 신혜영 박기영 신미경 박지연(부산 동래구) ▶강동기 김선행화 강태욱 강창욱최운철 강희정 최지현 최준성(부산 동래구) ▶이남석 장법륜행 이형규 이승규 이정규 이택규(부산 동래구) ▶안삼출 진을성 안상형 오유진 안주형 백명숙 안경모 신기옥(부산 부산진구) ▶이정선 김청심행 이영규 이진화 유동춘 이은경 이상모 유혜림(부산 부산진구) ▶이봉숙 김홍규 박영희 김차은 김자봉 김자명(부산 사하구) ▶김정인 박정신 김창훈 김지현 김지선(부산 수영구) ▶윤윤남 구본정 박임조 구지영 정희철 구애란 정아름 이유근 구애경 이정섭(부산 해운대구) ▶김형윤 주동희 강양명 강양수 강양효 김현주 정운희 김양수 강동협 강동균 강민지(부산 해운대구)

정혜사 ▶김교분 이기수 정인원 이승훈 이승호 정진학 류순(경기 군포시) ▶조진원 윤창자 조성오조우진(경기 군포시) ▶박홍석 손숙자 박재현 방수빈(경기 군포시) ▶진육만 박정희 최성인(경기 군포시) ▶이기연 박성숙 이정화 이정민 이정우(경기 군포시) ▶곽호혜 방수용(서울 금천구) ▶전호영 방수경(서울 금천구)

일 반

▶탐솔정보통신(주)(경기 광명시) ▶배철주 전숙자 배선종 배선화(강원 강릉시) ▶김영애(강원 양양군) ▶조병원 이종분 조진오 조순기 조은기(경기 고양시) ▶심상효 전은금(경기 광명시) ▶이동훈 김난희 이창욱 정수란(경기 광명시) ▶김재희 김준철 박영선 김준열 김미선(경기 군포시) ▶이용락 이용화 이순동 이석연 김지혜 이차현 이두연(경기 남양주시) ▶이용환 홍재순 구영순 이강연 이세연 이미영 조한미(경기 남양주시) ▶이영덕 최영순 이정애 이정구 이정은(경기 남양주시) ▶정인스님(경기 남양주시) ▶이민수 이종예 이주경 이주한(경기 남양주시) ▶김현성 최현분 김정민 김정진(경기 남양주시) ▶윤재석 이효상 윤현호 최은아 윤한호 윤미호(경기 남양주시) ▶김달용 최명옥 강현기 조성자 김창원 김대원(경기 남양주시) ▶최성기 이복순 최종민 최종찬(경기 남양주시) ▶김승신 서정자 김순용 이명희 김모준 김모아(경기 남양주시) ▶김종철 김숙자 김민태 김현태 (경기 남양주시) ▶이창호 이태분 이예순 이의환(경기 남양주시) ▶임석순 김진희 임지민 임지호(경기 남양주시) ▶김은산 김복순 김민수 신경희 김현욱 김현영(경기 남양주시) ▶한열평 유호일 유호창 이동지(경기 남양주시) ▶이대훈 강덕금 이준규 이민규 서정숙 이상규 조성희 이세희(경기 남양주시) ▶조안자 김경아 김홍훈(경기 남양주시) ▶이두형 김지의성 이준성 이민성(경기 성남시) ▶김기룡 서윤희 김현준 (경기 시흥시) ▶김정숙 강인모 강택관(경기 안양시) ▶고경섭 조복자 고혜연 고성일(경기 안양시) ▶정진희(경기 안양시) ▶박진용 이영원 박재문 박영문(경기 안양시) ▶류대영 공귀덕 류진아 류진용(경기 안양시) ▶임봉분 장운선 임형진 임형란 임형문(경기 안양시) ▶장영옥 박창언 박선희(경기 안양시) ▶덕천스님(경기 양주군) ▶엄성범(경기 의정부시) ▶이건웅 서미원 이보환(경기 이천시) ▶송병권 임미애 송성민 송신호(경남 거제시) ▶문이홍 박월오 문상원 문상혁(경남 마산시) ▶김말순 윤태우 이두주 윤대수 김영순 윤명환(경남 진해시) ▶김달석 김경희 김한택 신정숙 김성택 이명혜 김지태 김서연 김두운 김현희(경남 진해시) ▶최준호 김영귀 최지요 최세미 (경남 창원시) ▶윤조경 진복희 윤기원 윤성민(경남 창원시) ▶이영명 정경일 이예린 이승빈(경남 통영시) ▶이연화 박상신 이빈희 이서연(경북 경주시) ▶곽지원(경북 김천시) ▶한영환 최옥녀 한경혁 한경숙 한경대(경북 영주시) ▶최창환 박재금 최지원 최경숙 경북 영주시) ▶김달용 최명란 신경선 신동건(대구 서구) ▶조숙희 정홍기 오현주 정재옥 정재환(대구 수성구) ▶김경태 장자이 김동일 김동철 김동숙(대구 수성구) ▶김성열 김정옥 김희정 김태우(부산 금정구) ▶권구택 황순애 권우탑 권한술(부산 금정구) ▶김태성 강병철 박희자(부산 금정구) ▶정금자 이종범 손금희 이상호 이상균(부산 금정구) ▶김준호 최정옥 김규태(부산 남구) ▶김호남 조정숙 김정훈 김정우(부산 부산진구) ▶이태영(부산 사하구) ▶김반야태 고석만 권금강장 고정호고현지(부산 사하구) ▶이학준 장두순 이지현 이충현(부산 서구) ▶이별운 김명옥 이지은 이영진(부산 수영구) ▶김병호 조남순 김태훈 김은경(부산 연제구) ▶황형란 임득준 임기정권미선 강신혜 임소희 임성미(부산 진구) ▶이지환(부산 해운대구) ▶박분감 성봉아 전영택 서애경 전보경 전병규(부산 해운대구) ▶전영효 김미순 전상옥 전수민 전성범(부산 해운대구) ▶김준식 전현숙 김진도 김윤수 전선화 김유정 김민석 감영희 전정희(부산 해운대구) ▶이갑조(부산 해운대구) ▶정상열(서울 강동구) ▶김철수 권명성 감동희 서인우 최송희 박세일 호문희 곽윤직 이상면 최기원(서울 관악구) ▶김건식 이홍재 권오승 남효순 정상조 허성도 정옥자 이태진 최승희 심희기(서울 관악구) ▶과희선 한경애 곽민규 곽민철(서울 광진구) ▶이건형 정경자 이승우 이승택 이주현(서울 구로구) ▶서정배 김인례 서경주 서연식 김정순(서울 구로구) ▶박종원 김학정 박화선 박규선 박보산(서울 도봉구) ▶민경애(서울 도봉구) ▶신기환 이분순 신명옥 신동호 신호주 신인남 신창현(서울 도봉구) ▶박인규 이현숙 박익형 박수정(서울 동작구)

대장경연구소 (02)797-0585 http://www.sutra.re.kr

교계 자원봉사 '여성들 잔치'

매년 배출 교육생 90%가 여성
양성기관-사찰 네트워크 필요



◇수해를 당한 파주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펴고있는 여성불자들. 하루 평균 1백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성불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봉사활동을 교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여성불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불교계 대표적인 자원봉사 교육기관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자원봉사시민대학의 재학·수료생들의 성비(性比)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두 교육기관에서는 매년 5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여성불자들이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파주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평균 1백여명, 이중 70여명이 여성불자로 밝혀졌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이진원간사는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불자들이 늘어날수록, 북을 비는 기복적인 불교보다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불교로 변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같은 여성불자들의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결성, 교육기관·사찰 봉사단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톨릭계에서는 주교회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설해 놓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교구 자원봉사단의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복보다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여성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교구 본사 및 말사의 복지전문 강좌 개설 △각 사찰에 전문 복지부서의 설립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전문 법회 실시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회장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여성불자들의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에게 봉사 정신을 심어주고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가을 노래한 음악모음
BBS 16~24일 특집방송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6일부터 24일까지 가을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을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선정해 가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가을노래, 추억의 노래'(오후12시20분~오후2시, 담당PD 이응진)는 16일~18일까지 3일간 개그맨 최영준씨의 진행으로 '가을편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국민들이 애창했던 가을 노래를 들려준다.

'영화음악실'(밤10시5분~밤11시, 담당PD 조은정)에서도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계절 느낌에 맞는 포크음악과 재즈, 샹송, 고전영화음악 등을 선사한다. 또 이 프로에서는 영화 속의 대사와 바람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 등 자연배경 음악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건강 365일 〈32〉 황련(黃蓮)



〈영재한의원 원장〉 이만성

갱년기 장애·심장 열 증세에 효과
소장 염증·배에 가스 찰때도 복용

옛날 중국 사천성에 도씨성을 가진 명의가 살고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씨는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의 후손이라 한다. 그러나 화타가 조조에게 살해당한 후 후손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이곳으로 도망와 몰래 숨어 살았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역적으로 몰리면 삼대를 멸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화타의 후손들은 성도 도씨로 바꾸었다.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도의원은 열심히 의술을 익혀 사천성에서 제일가는 명의가 되었다.

이런 도의원의 집에는 백가지 종류의 약초를 재배하는 백초원(百草園)이란 정원이 있었다. 어느 날 도의원의 딸 연매(連妹)는 산길을 가다 본 하얀꽃이 너무 예뻐 백초원에 다 옮겨 심었다. 이 정원은 황후생(黃厚生)이란 정원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옮겨 심은 하얀꽃은 연매의 보살핌속에 잘 자랐다.

그해 가을 연매가 병을 앓게 되었다. 열이 나며 구토와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요즘 병명으로는 급성장염이었다.

왕진을 가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은 도의원은 그 날도 왕진을 가고 없었다. 오직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곤 정원사 황후생 뿐이었다. 다급해진 황후생은 정원에 나가 연매에게 먹일 약초를 고르던 중 연매가 심었던 그 약초를 발견했다. 약초를 따 맛을 보니 매우 썼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고구양약(苦口良藥)' 즉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떠올랐다.

황후생은 그 약초를 정성껏 달여 연매에게 먹였다. 그 약초를 먹은 연매는 사흘만에 완쾌할 수 있었다.

왕진을 마치고 돌아온 도의원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났던 그간의 일들을 다 듣게 되었다. 도의원은 그 꽃을 다시 달여 딸과 비슷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했다. 딸이 먹었던 약초가 위와 장의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도의원은 그 약초의 이름을 정원사 황후생과 딸 연매의 이름 첫글자를 따서 황련(黃連)이라 명명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탄생한 황련은 한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로서 손발에 힘이 없거나 온몸이 쑤시는 갱년기 증세에 효과가 있다. 심장이 두근두근 자주 뛰거나 얼굴이 붓고 혓바늘이 돋는 것은 심장에 열이 있다는 증거로 황련으로 잘 다스리면 낫는다.

또 췌장에 문제가 생겨 다리에서 쥐가 나거나 빈혈이 오는 경우와 소장에 염증이 생겨 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뱃속에 가스가 찰 때도 이 약초를 복용하면 좋다.

복용법 황련 8g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번 복용한다.

(02)762-5510

주부신행담

바른법을 찾아서 ③·끝

정법을 만날 기회가 없어 착각과 망념에 사로잡힌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기도 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포교당도 안내해 주고 스님의 법문 테이프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른 신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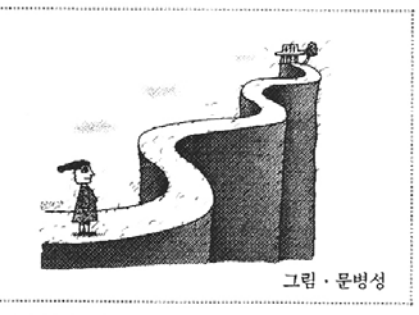
그러던 중 고향인 청주에 갈 일이 있어 언니댁을 들린 것이 마침 부처님 오신날 다음 날이었다. 어느 포교당 앞을 지나다 들어가 보았더니 부처님 한분 모신 법당에는 등만 몇 개 쓸쓸히 달려 있고 젊은 스님 한 분이 힘없이 짐을 꾸리고 계셨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곳은 절도 멀고 포교당도 없어 불법홍포의 큰 뜻을 품고 포교당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다. 언니는 몇 년 동안 포교에 열중하느라 자신도 돌보지 못한 스님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던 스님을 모시고 우선 한의원부터 들렸다. 한의사에게 보약 한재를 부탁해 놓고 저녁공양을 올리면서 포교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의논했다.

그날 밤 언니와 함께 포교당 문제를 놓고 밤잠을 설치면서 의논해 보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서울에 돌아와서도 포교당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였다. 언니와 계속 연락을 하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끝에 신심이 돈독한 서울 보살 몇분과 청주 포교당 운영문제를 의논해 보았다. 그러나 재정문제 등이 걸려 지원이 어렵다는 말 뿐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법을 찾지 못하고 무명에서 헤매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더욱 간절히 발원했는지 모른다. 늘 존경하고 뜻을 같이 하던 두 분 보살님을 모시고 청주 포교당으로 내려가 스님과 포교문제를 의논하였다. 우선 스님 생활비부터 우리 셋이 돕기로 약속했다. 이런 저런 준비를 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스님의 건강도 좋아지시고 포교당 앞엔 교리강좌 개설 소식이 붙었다. 언니를 따라 젊은 보살들 삼십여명이 강좌에 등록을 했고 이렇게 포교당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 강의 때마다 청주를 왕래하며 필요한 준비물을 나르느라 난 늘 바빴다. 몇 상자씩 되는 책을 운반하고 우송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신심과 환희심을 내도록 서울에서 불교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시키고 조계사에 와서 참배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방황하는 영혼 포교하자"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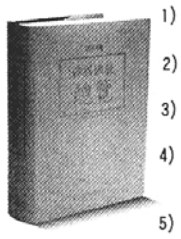
그림·문병성

서울에 있는 큰 사찰 순례도 하고 대덕 스님들을 친견하는 기회도 주선해보았다. 그리고 큰 스님께 수계도 받도록 하니 보살들은 더욱 신심을 내어 정진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청주 언니는 저 세상으로 떠났다. 스님을 지켜주시고 젊은 보살들을 딸같이 사랑하시던 노보살님은 가셨지만 남아있는 여러 보살들 마음 속에 보리의 씨앗은 잘 자라고 있으리라 믿어본다.

초발심자들에게 정법으로 인도하신 스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포교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서울 두 보살님께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합장 기원한다.

유밀다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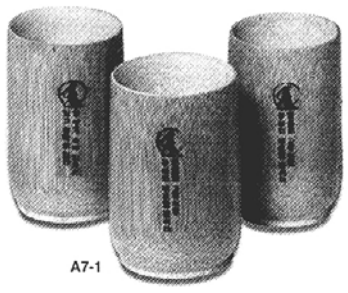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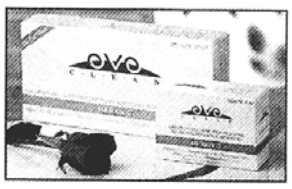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감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번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강해진 인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히지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끌끌수동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지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꽂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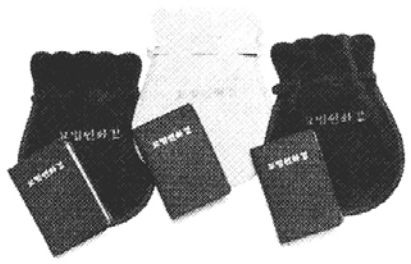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앙,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응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산소등 용도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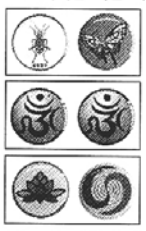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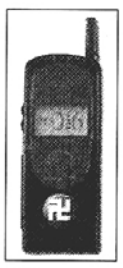
가 격 : 1세트 ₩ 25,000

신소재 전자파 방지장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백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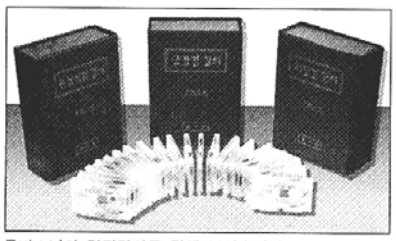


강력한 키릴리안(Kirilian)이 유해 전자파를 흡수, 용해 합니다.



응 도 :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백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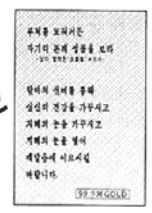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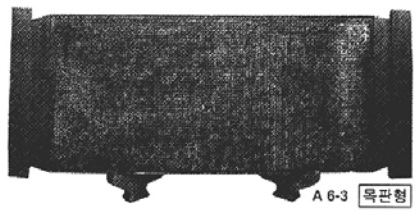
순금 99.9%

특 징 :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순금99.9%
크 기 : 5.2㎝ × 7㎝

가 격 : ₩ 20,000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A 6-3 목판형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경판받침

가 격 : 1개 ₩ 100.000

앞치마

연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생활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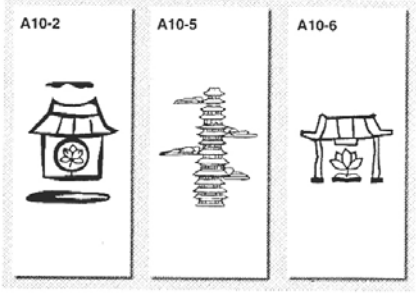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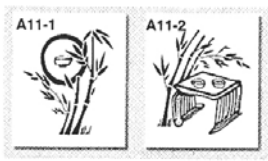
내부그림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기도포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다포
기장 : 50㎝ 폭 39㎝
재질 :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2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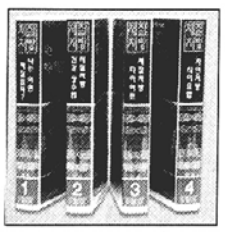


※ 선택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A8-1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 불보살의 가피력이 훨씬 힘게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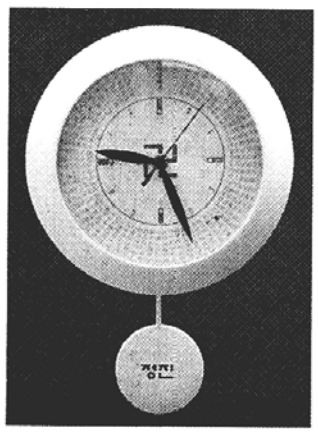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체질이란 무엇인가?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상의학이란?
-체질 감별법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과일,해물,차 등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살찌는 체질?
-체질과 비만의 관계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다이어트 음식
-살빼는 민간차
-지압으로 빼는 군살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다이어트의 부작용
-선택이 중요하다
-질식요법이란?
-쉽게 찰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물리요법 7가지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엇지게 보내는 하루

가격 ₩ 70,000 (가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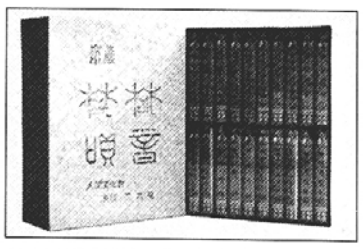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실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종성 · 천수작법 · 요잡

법회안내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30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문화회관 1층 큰법당 보현불교대학 수계대법회.(042)624-6555 10월 3일 오전 11시 제5회 한국불교전통선 중흥영산대설법회 상 법회. (02) 732-3327



철웅스님(성전암 주지) 3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법왕사 법화산림 백고좌대법회 'IMF를 극복하는 지혜' 주제 법회. (053)766-3747



혜정스님(법주사 주석) 25일~27일 조계사 대웅전 보살계 산림 대법회. (02)732-2115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0·27일 오전 11시 길상사 〈사십이장경〉 일요법회. (02)3672-5945



법민스님(대구 은적사 주지)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053)653-157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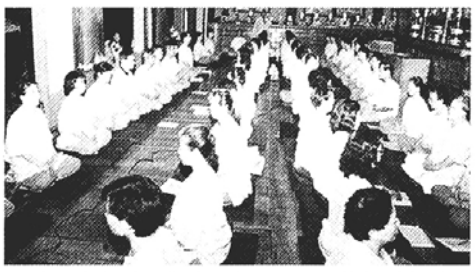
9월17일 (목)

■**천태종 수륙영산재, 예수재**=오전 9시 입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6일간 천태종 구인사에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가 봉행된다. (02)233-6210

9월18일 (금)

■**민주열사 천도재**=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천도재가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천도재 준비위원회의 주도로 오후 5시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02)734-6401

■**무진법장사 참선, 요가반**=무진법장사는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참선, 요가반을 개설한다. (02)932-2333



◇참선과 요가는 실직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19일까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 주최로 90주년 기념학술관에서 열린다. (02)260-3606

9월19일 (토)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 창립대회**=오후 3시 광주 무각사에서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지부장 영조)가 창립된다. 청화스님이 법문한다.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경제살리기 헌혈캠페인운동도 열린다. (062)234-9098

■**금강경독송회 98전국 통합 철야법회**=금강경독송회는 19일 오후 10시부터 20일 새벽 6시까지 경주에서 전국단위 통합철야법회를 갖는다. 김재웅법사의 법문과 〈금강경〉 7독, 미륵존여래불 정진 및 공부발표순으로 진행된다. (0562)61-2231

■**운주사, 쌍봉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천불천탑의 화순 운주사와 쌍봉사로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청교련 경기지부 창립법회**=오후 2시 수원 정혜원 3층법당에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경기지부 창립법회가 열린다. (0331)254-1275

■**〈장자〉 특강**=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성신여대 수정관 406호에서 이상현씨의 강의로 장자 특강이 열린다. (02)732-2404

9월20일 (일)

■**청소년 문화기행**=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중학생들과 함께 오전 10시 서울시내의 고궁 문화유적답사와 환경보전자원봉사를 나간다. (02)571-2988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연수**=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1일까지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장에서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대상 연수회를 실시한다. (02)723-5101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는 서울 송파구 곰두리 체육회관에서 '98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실시한다. (02)735-8165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한다. (02)723-6165

■**불광사 청년회 체육대회**=불광사 청년회는 오전 10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청년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2)413-6060

9월21일 (월)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교실 개강**=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참선교실을 연다. (051)466-4080

9월22일 (화)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 개강**=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의 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과정이 개강한다. 찬불가, 리더쉽, 싱어롱, 특수효과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지도하며, 12월말까지 열린다. (02)738-7860

■**치매예방과 노인 보호 가족교실**=개금사회복지관은 지역내 노인부양가족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치매란 무엇이며 발병예방과 치매노인의 보호' 주제의 가족교실을 연다. (051)893-5034

9월23일 (수)

■**강화 보문사 사시기도 및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강화 보문사 사시기도 및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종단소식

조계종

행자교육원 255명 입방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5기 행자교육원이 7일부터 29일까지 영축산 통도사와 취운암에서 열린다. 상설행자교육장 설립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27명, 여행자 128명 등 총 255명이 입방했다.

지리산 수해영가위령재

지리산 수해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7일 오후 2시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봉행된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쌍계사, 해인사, 화엄사 등 3본사와 진주시 사암연합회가 주관하며, 수해로 인한 영가를 천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고종

국난극복 수륙영산재

전북종무원(원장 남파)은 16일 오후 1시 정읍 고부 황토현 녹두광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1만등 달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국운이 융창하고 남북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성취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룡사 진신사리 친견

부산 백룡사(주지 도오)는 2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 선보이는 진신사리는 미얀마불교연합회의 도움으로 들여온 것이다.

성당서 실직자들과대화



한국불교청년회 회장 도각스님이 3일 명동성당 초청으로 평화의집에서 실직자들과 불교와의 대화를 가졌다.

실직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불교와의 대화시간에서 스님은 "실직의 아픔을 달래고 일어나 참나를 찾을 수 있도록 참선정진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산하단체 간부교육

총무원은 10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신도회, 청년회, 합창단 등 종단산하 각 부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1천8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미술, 불교의식실수 등에 대한 교육과 기도, 총무원 각 부 업무전달이 있었다.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

대전 삼문사, 안양 대안사, 포항 환해사, 영주 운강사 등 각 말사들은 지난 8월에 이어 9월 한달간도 봉사활동은 물론 수재의연금 모금과 전달로 지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관음종

수해사찰 복구 지원

총무원(원장 홍파)은 10일 논산 관음사에서 확대중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반기 종단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해를 입은 동두천 천은사, 의정부 관음사 덕수사 복구를 종단차원에서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원융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인준

중앙종회(의장 성관)가 1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인준 건과 동원불교대학 수강생 유치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법계고시 일정을 합의할 방침이다.

총화종

수진사로 총무원 이전

총무원(원장 남정)은 17일 오후 2시 천마산 수진사로 총무원을 이전하고 관음전 2층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0346)62-2751

소등종

포교사 연수교육 실시

총무원(원장 송정)은 11일 회의실에서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종지종풍 및 종단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과 포교사 소양교육이 있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풍선아트 무료 공개강좌=신도림복지관에서는 22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풍선아트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2)631-9792

△메주와 헬리스트 견학=메주와 헬리스트 정선전통식품 부산지사는 19~20일 본사 견학을 떠난다. 등명낙가사-정동진역-정선전통식품 본사-정암사를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 4만원. (051)816-4540

♣ 모집

△유급자원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로 거동 불편한 노인을 수발하고, 말벗 상대가 돼줄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칼라믹스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월 과정의 칼라믹스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월 3만원이며 수시등록 가능하다. (02)852-0525

△신도림복지관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워드 자격증반과 스텐실, 한지공예, 홈패션, 퀼트 등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31-9742

△불교기초교리반 수강생=무진법장사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불교기초교리반을 연다. 5개월 과정으로 법장스님과 인환스님, 김용정박사등이 강의하며 수강료는 4만5천원. (02)932-2333

△추석맞이 후원자=개금사회복지관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맞기위한 쌀과 과일 등의 후원을 기다린다. (051)893-5034

△제2기 신라문화대학 연구반=신라문화진흥원은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국이 조각예술 및 유적답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선착순 50명. (0561)746-1950

△봉원사 불교교양대학=봉원사 불교교양대학이 매주 월, 금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 불교학개론, 경전강독, 불교의식이론 등을 지도하며, 개강은 10월 20일. (02)392-3007

△불교사회교육원 불화교실=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3개월과정의 제4기 불화교실 초급반을 개설했다. 최성훈씨가 지도하며 선착순 20명. (053)784-3669

△생활영어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반과 초급반 생활영어교실을 열었다. 알파벳부터 기본적인 일상회화까지 종합적으로 지도한다. (02)282-1100

△자원봉사 시민대학=불교자원봉사 연합회는 제8회 자원봉사시민대학을 개설했다. 원왕생교육, 한글강좌, 자비수화초급, 자비수지침초급등의 과정을 지도한다. (02)723-6258

△카운슬러 대학=조계사 신행상담 천수천안 전화가 제2기 카운슬러 대학을 개강한다.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조계사 제2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다. (02)720-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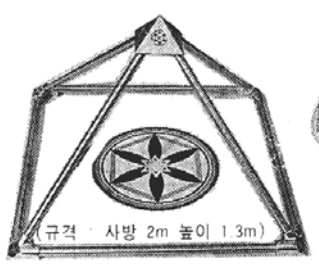
♣ 답사

△안동 하회마을=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20일 국제탈춤 잔치가 벌어지는 안동을 찾아간다. 하회마을과 탈박물관, 별신굿 공연, 안동민속박물관, 도산서원을 둘러본다. 회비 4만원. (02)275-4333

△미륵산 용화사, 통영=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19일~20일 불사리4사자 법륜탑이 있는 미륵산 용화사-해저터널-한산섬 제승당-세병관-충렬사 등지도 답사여행을 떠난다. 참가비는 5만5천원. (02)725-1284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피라밋 모자

(규격 · 사방 2m 높이 1.3m)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223495) ·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부산동호회 051)517-0236/창원동호회 0551)268-5338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묶고

소슬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헝겨운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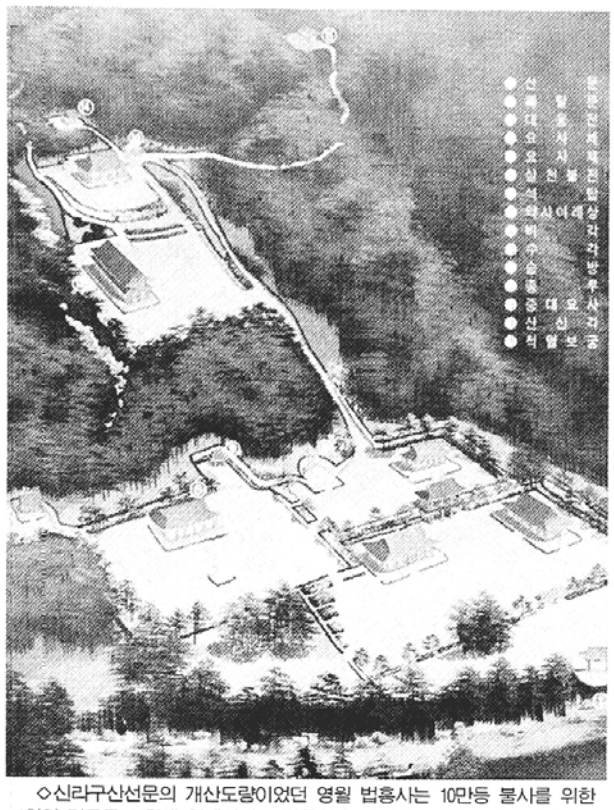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신라구산선문의 개산도량이었던 영월 법흥사는 10만등 불사를 위한 1천일 기도를 11월에 입제하며 도량중창을 시작한다. 사진은 조감도.

사자산문 개산도량 적멸보궁 법흥사

천년가람 옛명성 되찾는다

흥녕선원 복원…선센터 · 삼천불전등 건립
11월8일 10만등 불사 1000일기도 입재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자산문의 개산도량이었던 강원도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가 옛사격을 되찾기 위한 중창불사를 시작한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사자산 연화봉 아래 봉안하고 흥녕사(興寧寺)라 명명했던 법흥사는 신라말 선승 절중(折中)스님이 중창해 한때 2천여명의 수행승이 운집하기도 했던 큰 가람. 그러나 법흥사는 수차례의 병화와 화재, 산사태로 인해 쇄락의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는 적멸보궁과 심우장 1동, 요사채 1동만 전하고 있다.

법흥사의 중창불사는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이끌어 갈 대안으로 선(禪)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흥녕선원의 복원과 선센타 개설, 삼천불전등 각종 당우의 신축등 산문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위해 법흥사는 각계의 자문을 받아 도량복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도량 전체에 대한 기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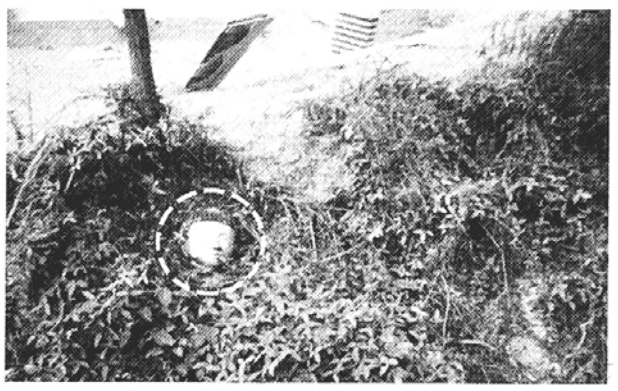
법흥사는 이 불사를 '온 국민이 동참하는 불사'로 추진키 위해 11월 8일부터 10만등 불사 1천일 기도를 입재한다. IMF한파 속에서 진행되는 불사인 만큼 국난극복의 의지를 천년가람의 중창을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법흥사의 계획. 이에따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천일 기도 입재와 함께 법흥사는 적멸보궁을 찾는 기도객들의 편의를 위해 요사채 건립에 착수하게 된다. 또 사자산문과 선불교 중흥도량의 의미를 담은 일주문도 세울 방침이다. 이와함께 흥녕선원을 복원하고 상설 선센터를 개설함으로 사자산문의 옛 명성을 되찾다는 복안이다.

현존하는 문화재들에 대한 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불사다. 올해에는 강원도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징효대사브인탑비와 부도 주변터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지 도완스님은 "법흥사의 중창은 잃어버린 선문의 역사를 내일의 희망으로 되살려내는 일"이라며 "단순한 사격일신의 차원을 넘어 국민 정신의 회복과 통일의 염원을 성취하는 원력을 모아 난세에 응공하는 도량으로 가꾸는데 이번 불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8일 발생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법당뒤에서 목이 잘려진 불두가 발견돼 훼불 방화가능성이 높다.

"청주 노봉사 화재는 훼불"

법당인근 야산서 톱으로 잘린 불두 발견

국립과학연구소조차 화재원인을 찾지못해 미궁에 빠져있던 청주 노봉사 방화가 훼불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노봉사주지 원행스님은 법당뒤 10m지점 야산에서 톱으로 목이 잘린 불두를 발견하고 청주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원행스님은 "화재로 불상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야산에서 불두를 발견하고 자세히 관찰해보니 잘린 목부위에 톱질한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 청원군 부용면소재 노봉사는 8일 새벽1시 화재가 발생해 18평 대웅전이 완전 전소돼 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천태종 사찰건립 불사 잇달아

메머드회관 관문사 내달 9일 낙성법회
안산 월강사 관음존상 · 1천53불 봉안

동광사 원통보전 완공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의 전국 주요사찰 건립 불사가 속속 마무리되거나 시작되고 있다.

1천6백평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건평 6천5백80평의 매머드 회관으로 서울지역 포교의 요람으로 부상한 관문사(주지 운덕)가 오랜 불사를 마무리했다. 관문사는 낙성기념으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점등식 및 한 · 중 · 일 · 미얀마 4개국 대표 상견례 및 만찬, 전야 예술제, 삼존불 봉안, 낙성 법요식, 낙성 축하 불공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양양 문수사(주지 개문)는 27일 오전 11시 1백여평 규모로 법당 증축 기공식을 갖는다. 또 속초 동광사(주지 개문)는 대지 1만50평를 확보, 대가람 불사를 계획하고 1차 불사로 29일 2년여 전 착공한 원통보전 불사를 회향한다. 관음존상이 봉안되는 원통보전은 연건평 1백50여평 단층으로 건립됐으나 차후 지상 3층 규모의 법당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수사는 대지 1만50평에 원통보전 외에 유치원, 향다, 요사채, 종각 등을 갖출 예정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도 30일 지상 2층 연건평 2백64평의 명부전을 상량한다. 명부전 1층에는 주방과 식당, 보일러실, 대중방이 2층에는 법당과 대중방 등이 들어선다.

문경 문장사(주지 래장)는 10월 17일 지관전 낙성식을 갖는다. 안산지역 내에서 최대 법당규모를 자랑하는 월강사(주지 경해)는 10월 29일 관음존상 및 1천53불 봉안식과 법당 낙성식을 동시에 봉행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4개 청년회 합동법회

지역감정 해소 앞장

서울 · 광주 · 대구지역 청년불자들이 골깊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민족화합을 이끌기 위해 나선다.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종찬), 원각사 청년회(회장 조진현), 보현사 청년회(회장 서교일) 소속 청년불자 2백여명이 20일 오전10시 속리산 법주사에서 '청년불자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 자리는 지난 86년 자매결연을 맺고 13년째 교류해 온 원각사와 보현사 청년회가 조계사 청년회와 결연을 맺음으로써 서울과 영 · 호남을 잇는 트로이카 체계가 구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청년불자들은 합동법회를 마치고 체육대회와 연합회의도 개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대 운영 방안도 논의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강경독송회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시내 2곳의 법당에서 전국단위 통합 철야법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6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인 이날 법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재웅법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금강경 7독, 미륵존여래불 정진및 1년동안의 공부를 발표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김원우 기자

부산 '보현의 집' 개소

노숙자 80명 수용…상담 · 재활교육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산 보현의집(원장 주용, 만성사 주지)이 23일 문을 연다.

부산 불교계 처음으로 개원되는 노숙자 쉼터 보현의집(동래구 온천동)은 건평 2백평 규모에 4인 1실의 숙소 20실, 샤워실, 세탁실, 상담실, 휴게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80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또 보현의 집은 숙박, 급식제공은 물론 의료상담, 취업상담, 법률 세무상담, 가정상담, 신행상담 등을 통해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이밖에도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초청강연과 수탁재활직업 교육, 수용인 자녀 중 학비 지원 및 급식 등을 실시해 장기적인 수용으로 인한 의욕상실에 대비할 방침이다.

주용스님은 "명상이나 교리강좌 등을 통해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한편 범어사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찰들과 불자들이 실직자나 결식아동 등 고통받는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는 보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보현의집, (재)호주장로선교회를 비롯 생명의전화 부산지부, 구세군유지재단 등의 종교단체에 총 18억6천4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chapia.com)

나주 불회사

매월 두차례 관음참회

4박5일 오후불식 · 묵언
직장인 주말 수련반
전액 무료로 진행

전남 나주 불회사(주지 정연) 관음대참회수련원에서는 출가인의 생활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관음대참회수련회가 매월 2회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관음대참회수련회는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하심에 의지해 우리의 원력을 발현하고, 나아가 보살의 원력을 우리의 원력으로 현상화함으로서 모든 이와 함께 편안함에 안주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수련이다.

지난 7,8월 두달간 4박5일의 여름수련회를 총 7회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한 불회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을 위해 상설 수련회를 개설하게 됐다. 특히 불회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참가자들에게 수련회 경비를 일체 받지않고,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회사 관음대참회수련회는 휴가철에만 하던 수련회를 연중무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하고, 직장인들의 편리를 위해 매월 세째주 토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2박3일 과정을 신설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수련회는 넷째주 토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4박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이론중심적 수련회에서 체험중심적 수련회로 탈바꿈해 부처님께 올리는 갖가지 예와 의식, 참선을 통해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수련기간동안 철저한 오후불식과 묵언을 실시하게 된다. (0613)337-3440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백천사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재

국내첫 행사 · 남양주시 지원

중국 구화산의 지장보살 화신 김교각스님 성도및 추모헌다재가 20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백천사(주지 무구)지장왕보살 김교각 기념관에서 봉행된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재는 남양주시가 지원해 봉행된다. 중국에 신라의 차를 전한 인물로도 유명한 김교각스님의 영전에 차를 바치는 헌다의식이 함께 봉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자용스님, 이영희 남양주시장, 이원호 남양주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0346)577-3545 이은지 기자

자현사 청소년회관 완공

경기 안산시 대부도 자현사(주지 법현) 청소년회집은 9월20일 오전 10시30분 대웅전 및 청소년회관(요사채) 완공 기념법회를 갖는다.

7개월만에 불사를 회향한 건평 60여평의 2층 건물 1층은 방 6개의 요사채, 2층은 대웅전으로 각각 사용된다. 이날 대웅전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수산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할 예정이며,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도 함께 봉행한다. 둥지청소년의집 원생은 현재 50명.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0만연등 영가 천도

무안 연꽃축제 3천명 참가

제2회 무안 연꽃대축제가 10일부터 13일까지 세계최대규모의 백련지 화산연꽃방죽에서 열렸다.

무안불교사암연합회 정평스님은 "무안연꽃축제가 열리는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 의미가 크다"며 "연지를 보호하여 불교문화의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는 인곡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천운스님(대흥사주지)을 비롯하여 허경만 전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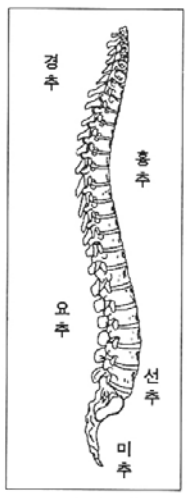
광주=주용직 지사장

불교미술연구소
불상 · 불화 · 단청
0 2·285·5963
019·285·5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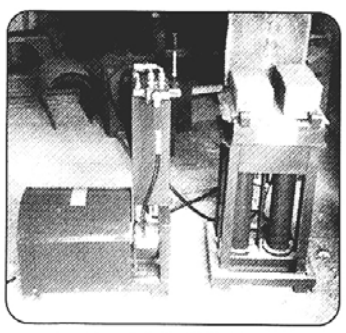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현 금 가 : ₩140,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뜰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 · 법사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 교 육 안 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 10매
3. 주민등본 1통4. 신청서 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황토관련 전문회사
지역 총판 대리점 모집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 충남, 충북, 대전
3) 경남, 경북, 울산, 부산, 대구 4)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위와 같이 광역단체로 총판대리점주를 4분만 모십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화재-성보도난 대비 보험드세요"

보험사들 사찰에 '손짓'

해동 · 동부화재 · 삼성생명 잇달아 상품개발

불교계를 겨냥한 보험상품들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유명보험회사들은 사찰의 화재, 귀중품 도난은 물론 사찰 종사자(스님포함)들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불교계를 향한 영업의 길을 트고 있다.

가장먼저 불교관련 보험을 내놓은 해동화재의 주력 상품은 '사찰화재보험'. 1년형 소멸성과 3~5년 장기보장성 등 2종류의 사찰화재보험은 3년전부터 판매를 시작 2백개 사찰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과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 받은 동부화재도 지난달부터 사찰의 화재는 물론 각종 배상책임과 상해 도난위험에 대한 담보를 묶은 '사찰종합보험'을 개발해 시판에 들어갔다. 동부화재의 사찰종합보험은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화재담보와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담보, 스님들과 종무원, 사찰을 찾은 신도들의 상해(교통사고 포함)등에 대비한 상해담보, 사찰내의 문화재를 비롯한 귀중품의 도난을 대비한 도난담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담보에 대해 선택적인 가입도 가능해 사찰의 형편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동화재와 동부화재의 상품이 주로 건축물이나 귀중품 도난에 치우쳐 있는 반면 삼성생명이 최근 기획한 상품은 사찰에 종사하는 스님과 종무원들을 대상으로하는 대인 단체보험이라는 특징이 있다. 삼성생명은 불교전담팀까지 구성해 스님과 종무원들을 대상으로하는 특별승인용 단체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것으로 세제혜택과 입원비지급 등 다양한 부과효과도 갖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포교원-군승단 신교대법당 직접 건립

내년부터 신병교육대 법당을 포교원과 군승단이 직접 짓는다. 포교원은 10일 "98년부터 신교대 법당을 포교원과 군승단이 지어 군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군법사를 법회와 장병위문 등 포교활동에 전념케 하고, 건축불사와 관련해 불미스런 사건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포교원은 내년에 신축할 3개 신교대 법당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2~3개의 표준설계안을 마련 여러 개의 법당을 지을 계획이다. 또 신교대 법당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후 신교대 법당 건립에 예산을 증점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VR홈페이지 컴덱스코리아에 출품

가상현실을 구현한 사찰홈페이지가 세계 최대규모의 대중적 컴퓨터 관련 전시회 '컴덱스코리아 98'에 출품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현데이타시스템은 5일~9일 서울 코렉스전시관에서 개최된 '컴덱스코리아 98'에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기법이 도입된 통도사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통도사 홈페이지는 미국 라이브픽쳐(Live Picture)사의 이미지 처리방법을 도입, 교계 최초로 구현된 것. 통도사 가상현실 홈페이지는 일주문에서 금강계단까지, 전각보기 등 3단계로 이뤄져 체계적인 사찰관람효과를 보였다. 도필선 기자

BBS 후원회 확대 24일 '대법회' 열어

불교방송후원회(회장 월주스님)는 24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 개편 발족 대법회'를 봉행한다.

후원회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새 출발 다짐을위해 열리게 되는 이번 법회에서는 후원회장 월주스님의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와 사무처장 임명 등에 이어 후원자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 후원회 부회장단에 위촉된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 총무원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승가대 학인스님 농성

총무원장 퇴진 '요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총무원 1층 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강하) 소속 1백60명은 9일 낮 12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앞에서 '현 송월주 총무원장은 전종도의 뜻을 모아 이룩된 종단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총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등스님 등 24명의 의원스님들은 11일 '중앙승가대의 총무원청사 무단점거농성을 우려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학인스님들의 자제를 당부하며 "더이상 사태를 장기화하거나 악화시킬 경우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종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청정승가 기원 불교도 참회법회 "삼보의 정재를 훼손하며 승단의 위의를 실추하여 스스로 사지의 몸을 갉는 무서운 죄업을 그치게 하소서." 12일 조계종 포교원 4층 회의실에서는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가 열렸다. 불교인권위원회 석림회 선우도량 등 7개 승가단체와 우리는선우 경불련 동산반 야회 등 9개 재가단체 회원 4백여명은 발원, 결의문 낭독과 1080배 등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도박승' 사건과 관련한 승단의 참회와 정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당초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계사측이 "일부 승려의 비리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해 장소를 변경했다. 〈김재경 기자〉

오봉정사 납골당-동국대 장례식장

시설비 4억원씩 정부서 융자

납골당을 건립하고 있는 연천 오봉정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3천5백만원의 시설자금을, 동국대병원이 4억원의 병원장례식장 설치비용을 융자받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8일 납골시설 확충을 위해 사설 납골당 3개소와 납골묘 2개소 설치자금으로 15억8천만원을 융자자원키로 하고 장례편의를 위해 신·증축 전문장례식장 6개소와 병원장례식장 1개소에 46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

납골시설은 신축 설비비의 50%가 지원되며 납골당 신축의 경우 표준규모(연건평 2백30평) 이상 건축 때 1개소당 5억원, 납골묘는 일정규모(50기)이상 설치 때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0.7%,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지스님-보육시설장 겸직가능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건복지부는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에서 해당 종교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격요건 미달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개설하지 못하던 각 사찰 주지스님들의 시설장 겸직이 가능해져 어린이집을 통한 어린이 포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수재의연금 4억 모금

불교방송(사장 성낙승)과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8월에서 9월까지 한달여 동안 실시된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에서 각각 3억여원과 1억여원을 모금했다.

8월8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 불교방송은 모금 총액이 3억3천3백만8천8백3십6원으로 집계되었고 수재의연품도 쌀 94가마와 의류 1천1십3만점 등이 기탁됐다. 8월7일부터 9월8일까지 모금방송을한 불교TV도 1억1천7백5십8만8천5백9십4원이 모금됐다. 김주일 기자

파라미타 전북후원회

파라미타 전북지부(지부장 도영)는 10월17일 오후7시 전주 목원 부페가든에서 파라미타 청소년 후원의 밤을 열고 '파라미타 후원회'(회장 남궁선)를 정식 가동키로 했다.

후원회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등 50여명을 목표로 회원 확보에 나서 현재 절반 이상이 가입한 상태. 재가자 중심으로 구성된 후원회는 재가자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청각장애인에 컴퓨터 교육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육을 1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청각장애인복지회(회장 김온)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컴퓨터교육은 매주 토요일 컴퓨터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천리안 수화사랑동우회(시삽 박홍철)에서 32명의 자원봉사자가 파견, 교육을 도울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혜진)는 7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34차 총회를 열었다. 16개 지회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통일사업, 환경사업, 대불련제로 크게 나누어 북녘동포돕기, 월요법회, 환경교육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목탁소리

승가대 학인들의 농성

조계종 134회 임시 종회가 열리고 있는 9일 오전12시 조계사내 총무원청사 앞에서 중앙승가대 학생회 소속 학인스님 1백60여명이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학사 신축불사 불사금 지원방안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라"는 등 4개항의 결의사항을 주장하며 "학사 신축불사와 관련한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 총무원으로 진입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들은 5층 법당으로 집결했고, 이날 밤 청사 출입구 셔터를 내려 잠그고 한때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개혁종단 출범이후 볼 수 없었던 이같은 학인스님들의 집단행동은 단연 "학인스님들이 왜 그럴까?"에 관심이 모아졌다.

공부하는 학인스님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의견표출을 하기까지에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명분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간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며, 하물며 계율과 법도를 근본으로 삼는 출세간에서야 더욱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학인스님들의 이번 농성은 명분정립이 아리송하다. 농성장 진입과 함께 당초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만 하루가 안돼 새로 수정본을 발표하고 이어 또다시 하루가 지나서 '제1차 성명서'라는 유인물을 내면서, 돌연 "개혁불사의 실패에 대한 총책임을 총무원장스님에게 묻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을 주장한 것이다.

이번 학인스님들의 농성을 두고 평가를 하기에 앞서 짚어야 할 점은, 그토록 급박하게 농성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명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학인들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할 중진 스님들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인스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교측의 어떠한 방침이나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상하기까지 하다. 위영린 취재1부 부장

(yuryui@buddhapia.com)

훼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종교간 화합은 아직 멀었나 보다.

"실정법상 타종교의 숭배물을 훼손·철거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며 용기없음에 한탄할 뿐이다."

9월초 발행된 개신교계의 한 신문인 '하늘나라'에 실린 사설의 한 구절이다. 사설의 제목은 '전국토 우상제거 앞당기자'. 개신교 일부 교단이 타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훼불을 선동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생각도 못했다.

"금년 장마철에 일어난 게릴라식 폭우를 잘 검토해보면 그곳이 대부분 최대 불상, 최다 불상 등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우상의 목이 잘린 제주에는 피해가 없지 않았던가"며 아예 선량한 다수의 신도들을 훼불대열에 몰아넣고 있다.

한때 불교계에서는 방화 불상파괴 등 훼불을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설마, 종교인들이 그런 끔직한 일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느냐는 말로 지나쳤다. 불교인들은 그동안의 훼불사건에 대해 정신병 증상이 있는 광신도의 개인적 소행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훼불, 종교편향에 대한 대처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종교편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훼불과 종교편향에 대처해 왔다. 이 정도로는 안된다. 종단협의회에 특별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개신교를 연구하고, 수사기관에 미해결 훼불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불자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성운 취재2부 차장

(swjung@buddhapia.com)

"조상의 산소자리가 좋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흥함의 축복이 있는데 반하여, 나쁘면 질환과 패망을 가져오고야 만다는 음택(산소)풍수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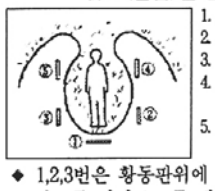
"지금 조상님의 산소가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산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업에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어지고,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병환이 깊은 사람들이 완쾌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음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가피력일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방 법 산소 좌,우와 앞쪽에 봉분은 건드리지 않고 佛法(불법)을 묻어드리는 방식입니다.



1. 황동판 팔괘만다라
2. 황동판 금강경신탑다라니
3. 황동판 묘법연화경탑다라니
4.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금강경신탑다라니
5.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1,2,3번은 황동판위에 세겨진 만다라와 탑다라니가 산소를 바라보도록 세워서 묻습니다.

◆ 4,5번 공단천안에는 위패를 써서 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안치시킨후 묻어드립니다.

〈이때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써서 넣은 분들에게만 주로 발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이름과 자녀들 이름을 같이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명당이란? 땅의 생기(生氣)가 있는 땅을 찾고자 함이며,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산세를 보고 물길을 보며, 방향을 따지고, 흙의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본 산소처방을 해드리면, 산소자리의 토질이 생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하면서, 수맥과 수분이 차단되고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라고 하는 토질로 변해지는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세나 지형을 볼 필요도 없고 자리의 조건이나 돌출부와 물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고 이장할 필요도 없고 명당자리를 구하고자 애쓸것도 없이 본 산소처방을 해드려 보시면 토질에 따라서 2~6개월 사이에 모든 분들이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사례

1. 풍수가 박도원씨의 경우
조부산소를 이장하면서 산세와 지형 방향을 보고 명당자리라 생각되어 터를 잡고 막상 땅을 파니 사토(死土)에 가까웠다. 그래서 본 산소처방을 해드렸으며, 8개월 후에 조모가 돌아가셔서 합장을 해드리기 위해 산소를 다시파니 산소의 토질이 빛이나는 생토(生土)로 바뀌어져 있었다.
2. 금년 장마에 주위의 산소가 모두 형체가 없이 훼손되었지만 본 산소처방을 한 산소는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전해온 분이 다섯분이나 되었다.

산소 1基(기) 처방비용 : ₩400,000
(합장이나 쌍봉은 1基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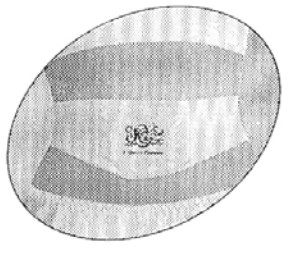
상담문의 성지관음회(회장: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부산 : 보문포교원 ☎(051)864-3740

"모든 풍수지리가 미신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 산소처방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에 일단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직계조상님 한분 산소만이라도 해드려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요!"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산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산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산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지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지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입 문

삶과 사회, 실재에 대한 문제인식



■길을 찾아서/ 최민자 지음

저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룻배가 필요하나, 언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배를 버려야 한다. 그런 까닭에 원효대사는 손가락에 의지해 손가락을 여읜 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언설(言說)에 의지해 언어가 끊어진 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존재와 비존재, 주체와 객체, 사유와 실재의 이분법을 초월한 경지. 그것만이 인류구원의 의식이요 생명수임을 말한다. 기행문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다. 미국 유학시절과 중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써내려갔다. 삶과 사회의 실재와 유리된 위험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드러나 있다.

까치 8,000원 (02)735-8998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도원 지음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속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관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몸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체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에 세 이

詩心으로 부처님 닮아가기



■납자의 노래/ 청학스님 지음

시심이 곧 불심이라는 말이 있다. 맑고 고요한 명상 가운에서 자신의 마음을 캐닫는 일이니,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심신을 갈고 닦는데는 시만한 것도 없다.

청학스님은 시를 짓는 일을 인간 본연의 자세로 마음상을 갈고 닦는 일이라고, 수행자로서 깨달음의 감을 건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말대로 이 시집에는 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고, 수행자의 고뇌가 서려있다. 먼 산사에 앉아서도 고향집 뒤안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어머니가 짓는 저녁밥 연기와 동솥에서 푸는 구수한 숭늉과 밥냄새가 물씬 풍긴다. 모두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리라.

동인 5,000원 (02)365-6368

선지식의 일침은 용기와 희망



■산승의 향기/ 이학종 지음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이다.

〈산승의 향기〉는 서옹스님을 비롯해 월하·원산·승찬·법담스님 등 25인 큰스님들의 삶에서 비로그런 가치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출가와 수행과정,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일침은 스님들의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끼게 한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 법보신문 이학종 기자가 2년여간 큰스님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취재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묶었다.

운주사 7,000원 (02)720-9372

기 타

인도여행에서 본 부처



■깨달은 자의 죽음/ 안동권 지음

"붓다는 죽었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다. 붓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딘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죽으면서 몇 날 몇 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따위의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았다." 가톨릭대학을 다녔던 저자는 대학시절 잠시 떠난 인도여행에서 불교와 부처님을 만났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인도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눈에 비친 인도와 불교의 모습을 담은 인도 여행기. 캐달음의 땅 부드가야에서 앞만의 땅 루쉬나가르까지 인도 8대 불교성지를 여행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는 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했던 붓다는 정말 위대한 스승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인도 여행 가이드북으로도 적격이다.

문원 7,000원 (02)464-3101

불심의 자성으로 보살심을 다하자



■승려의 삶과 보살심/ 달마스님 지음

청정한 스님의 삶과 불심의 자성으로 보살심을 다하는 우주의 세계관과 불교의 사생관을 접목시켜 자성하는 연법의 출현에 우주속에 윤회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그린 필치이면서도 연계법을 구상하여 우주의 공전과 자전의 순리로 天地人의 카리마와 아인슈타을 느끼게 하는 삼서이다. 본책의 수익금은 안동시의 달마사 건립기금으로 쓰여지므로 불자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항장합니다.

총 19권 190,000원 (051)531-2682
日本 大板市 生野區 本北生 4-7-3

금주의 추천도서

'한용운' - 詩心으로 승화된 구도적 자세



■한용운시전집/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남아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그 몇 사람 객수 속에 길이 갇혔나/한마디 버럭 질러 삼천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점점이 복사꽃 붉게 지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이다. 스님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스님보다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 그것은 스님의 지조있는 사상과 부처님을 향한 구도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 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8편의 시와 시조 32편, 동시 3편, 한문으로 된 선시 138편을 한 권에 담았다. 만해시의 결정판.

장승 10,000원 (02)730-2500

설기문 교수의
〈최면 · 전생 체험〉
특별워크샵

前生은 과연 있는가??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설기문 박사 현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국 전생치료학회 전문위원. 최면 전생 공인 치료사 <최면과 전생 퇴행>의 저자

국내최초의 시도!!

1. 〈'집단' 최면 · 전생 체험〉 대공개 워크샵 ●일시: 9월 19일(토) 오후 2시~7시 ●참가비: 2만5천원
'최면 · 전생 공인치료사' 인 설기문 박사의 집단 최면유도에 따라 5시간의 과정속에서 전생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2. 〈최면 · 전생〉 체험교실 - 12시간 특별워크샵 ●일시: 9월 20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참가비: 8만원
※ 19일(토) 특별워크샵 참가자에 한함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인별 상담 포함

■참가신청 요령 : 먼저 필히 전화로 접수마감 여부 확인하신 후 온라인 송금. (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하여 현장에서는 접수받지 않음.)

■주최: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혼니동 운현궁터 엔덕성여대 B관 502호 (전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에서 100m) ☎(02)747-7033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청소년 눈높이 불교 입문서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윤원철 외 지음

아주 쉽고 단순한 주제를 택해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너무 쉽고 단순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부처님과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는 '꼬마성자들의 궁금증'편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는 '생각하는 이야기'편으로 전개된다. 또 '쉬어가는 페이지'코너는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들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재미있고 쉬운 내용이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불교가 곁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불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 지음

불교를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리보다는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과 불상, 그림 등 절의 모든 것을 컬러 화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명쾌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 3백50여장의 사진과 30항목의 그림 그리고 18개의 도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엮었기에 현장감도 생생히 전달된다.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의 얼을 새기고 있는 사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자 또 다른 창조의 길을 여는 힘경.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까지 돋군 문체가 관안함을 더해준다.

전원문화사 15,000원 (02)704-1626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반야경/혜탈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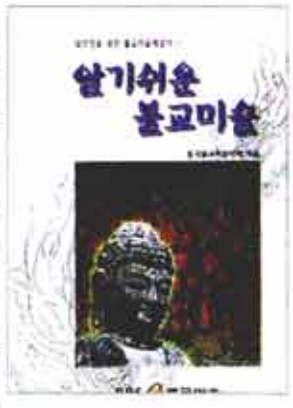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권가받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된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미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파되어 있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알기 쉬운 불교미술로의 여행



■알기쉬운 불교미술/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 년. 그와 더불어 불교미술도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으며, 우리 나라 전통미술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널리 조성되고 봉안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리에 해박한 불자들이라도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현재 활동중인 불교미술 작가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인들의 불교미술에 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법구 등에 대해 주요사찰과 국보급 문화재를 엄선,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도면을 제시했으며, 명호도 알기 쉽게 표현했다.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의 교리적 배경과 조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불서출판 운주사 값 9,000원 (02)720-9372

존재의 빛을 보여준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선화(禪話)/라즈니쉬 지음

"그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자 같았다. 그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렸다. 그에게는 고타마 붓다와 같은 우아함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남아있다. 그 점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이다."

라즈니쉬는 달마대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달마대사의 메시지는 붓다와 같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달마대사와 그 제자와의 선문답.

질문자는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들고 있는 횃불에 달마대사가 기름을 부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기름을 부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뺨을 잡는 웃음소리로 하여 횃불에 찬물을 끼얹는다. 달마대사가 가르키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타오르는 존재의 빛.

관음출판사 5,000원 (02)720-8434